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국어과 토론 지도 방안 연구

- 논제 · 논증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教育科

金 惠 眞

2018년 8월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Debat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ed on the proposition and the argumentation -

Kim, Hye-Jin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어과 토론 지도 방안 연구

- 논제 · 논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宋 弦 貞

金 惠 眞

이 論文을 教育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金惠眞의 教育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최 대 희	
委 員	이 주 석	
委 員	전 제 응	
委 員	노 대 원	
委 員	송 현 정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6月



국어과 토론 지도 방안 연구

- 논제 · 논증을 중심으로 -

김 혜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송 현 정

이 연구는 국어과 토론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토론 지도 방안을 구안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논제·논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토론 교육에서 논제와 논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현재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에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를 통해 토론 교육의 성취 기준을 점검하였고,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토론 단원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논제가 토론에 적합한 논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제시한 논제의 조건 중 ‘단일한 논점, 찬반대립성, 시의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평서문’을 논제의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논제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증 평가 요소를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찰하였다. 토론 단원의 찬성과 반대 입론의 논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 논증이 2단계의 단순 논증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토론에 적합한 논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단계 구조를 세분화하여 5단계 논증 구조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논증 구조에 필요한 요소 중 ‘주장, 이유, 근거’는 필수 요소로, ‘전제·연결고리’, ‘반론 수용 및 반박’은 추가 요소로 보았다.

국어과 토론 교육의 실제적 적용을 위하여 교실 토론을 위한 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실토론 수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시한 후, 교실토론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실토론 수업 모형과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실토론 수

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탁토론 모형,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모형, 디베이트 기본 모형, CEDA 토론 모형과 같은 토론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실 수업에서 토론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토론 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담고자 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종적으로 분석하여 토론 교육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것은 토론을 활용하여 수업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교실토론, 논제, 논증,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6
1) 토론 교육 연구.....	6
2) 논제 연구.....	10
3) 논증 연구.....	11
3.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3
II. 논제와 논증에 대한 비판적 고찰	17
1. 논제	17
1) 논제의 개념.....	18
2) 논제의 유형.....	20
3) 논제의 조건.....	25
2. 논증.....	33
1) 논증의 개념.....	34
2) 논증의 방식.....	36
3) 논증의 구조.....	39
III. 국어과 토론의 실태 분석	51
1. 교육과정 분석.....	51
1)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51
2)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58
2. 교과서 분석.....	62
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위 분석.....	64
2) 중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위 분석.....	74
3)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위 분석.....	125

IV. 국어과 토론 지도의 실제	168
1. 교실토론의 원리.....	169
1) 영역 통합의 원리.....	169
2) 범 교과와 원리.....	172
3) 학습자 중심의 원리.....	175
2. 교실토론의 전략.....	178
1) 교실토론의 유형.....	179
2) 교실토론의 과정.....	189
3) 교실토론의 논제.....	201
4) 교실토론의 논증.....	213
3. 교실토론의 모형.....	219
1) 토론·문학 수업 모형.....	221
2) 토론·비문학 수업 모형.....	225
3) 토론·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모형.....	230
4) 토론·교육연극 수업 모형.....	233
4. 교실토론 지도방안 설계.....	238
1) 교실토론 준비하기.....	238
2) 교실토론 실행하기.....	249
V. 결론	261
1. 요약.....	261
2. 제언.....	267
참고문헌.....	270
<Abstract>.....	281

표 목 차

<표 II-1> 논제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	19
<표 II-2> 선행 연구자들의 논제 선정 조건.....	25
<표 II-3> 논제의 조건.....	30
<표 II-4> 틀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요소 비교.....	40
<표 II-5> 틀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요소에 대한 설명.....	41
<표 II-6>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의 논증 요소.....	48
<표 III-1> 듣기·말하기 영역 토론 성취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변화.....	52
<표 III-2>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비교.....	55
<표 III-3> ‘설득’ 담화 유형별 학년군 간 위계.....	58
<표 III-4> 2015 개정 교육과정 토론 요소와 토론 성취기준.....	59
<표 III-5>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역과 학년(군)별 토론 요소.....	59
<표 III-6> 2015 개정 교육과정 토론 내용 체계	61
<표 III-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토론 성취기준.....	65
<표 III-8>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순서와 주의할 점.....	66
<표 III-9> 초등학교 토론 단원과 토론 논제.....	67
<표 III-10>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적합성 분석.....	68
<표 III-1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수정.....	69
<표 III-1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논증 성취기준.....	70
<표 III-1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논증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71
<표 III-14> 찬성측 토론자 입론의 논증 요소.....	72
<표 III-15>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논증 요소 수정	72
<표 III-16> 초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	73
<표 III-1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토론·논증 성취기준.....	74
<표 III-18>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단원과 통합 영역.....	75
<표 III-19>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토론 논제.....	77
<표 III-20>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적합성 분석.....	78

<표 III-21>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수정.....	81
<표 III-22> 중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84
<표 III-23>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평가 항목 점검.....	86
<표 III-24>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1 - 주장의 명확성.....	87
<표 III-25>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2 - 근거의 타당성.....	88
<표 III-26>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3 - 쟁점 파악하기.....	89
<표 III-27>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찬성·반대 입론의 논증평가.....	90
<표 III-28>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찬성·반대 입론	91
<표 III-29>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92
<표 III-30>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찬성·반대 입론.....	93
<표 III-31>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94
<표 III-32>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찬성·반대 입론	96
<표 III-33>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97
<표 III-34>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찬성·반대 입론	98
<표 III-35>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99
<표 III-36>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찬성반대 입론	100
<표 III-37>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01
<표 III-38>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찬성·반대 입론	102
<표 III-39>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02
<표 III-40>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03
<표 III-41>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04
<표 III-42>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06
<표 III-43>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06
<표 III-44>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찬성반대 입론	107
<표 III-45>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09
<표 III-46>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찬성·반대 입론	111
<표 III-47>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12

<표 III-48>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13
<표 III-49>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14
<표 III-50>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찬성·반대 입론	115
<표 III-51>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16
<표 III-52>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17
<표 III-53>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18
<표 III-54>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19
<표 III-55>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20
<표 III-56>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 성취기준과 토론 요소	125
<표 III-57>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단원	126
<표 III-58>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주제와 논제 유형	127
<표 III-59>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논제 적합성 분석	128
<표 III-60>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논제 수정	131
<표 III-61>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134
<표 III-62>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증 평가 항목 점검	136
<표 III-63>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1 - 근거의 신뢰성	137
<표 III-64>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2 - 근거의 타당성	138
<표 III-65>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3 - 주장의 공정성	139
<표 III-66>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4 - 쟁점 파악하기	139
<표 III-67>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단원 찬성·반대 입론의 논증 평가	140
<표 III-68>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41
<표 III-69>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42
<표 III-70>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43
<표 III-71>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44
<표 III-72>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45

<표 III-73>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46
<표 III-74>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47
<표 III-75>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48
<표 III-76>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 찬성·반대 입론	149
<표 III-77>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51
<표 III-78>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52
<표 III-79>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54
<표 III-80>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56
<표 III-81>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57
<표 III-82>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58
<표 III-83>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59
<표 III-84>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60
<표 III-85>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61
<표 III-86>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62
<표 III-87>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63
<표 III-88>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164
<표 III-89>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166
<표 IV-1> 교실토론 유형	180
<표 IV-2> 원탁토론 판정지	183
<표 IV-3> 교실토론을 위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모형	184
<표 IV-4>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토론 판정지	185
<표 IV-5> 교실토론을 위한 디베이트 기본 모형	186
<표 IV-6> 디베이트 기본 모형 판정지	187
<표 IV-7> 교실토론을 위한 CEDA 토론 모형	188
<표 IV-8> CEDA 토론 판정지	188
<표 IV-9> 교실토론 논제 예시	203
<표 IV-10> 수정 전 논제와 수정 후 논제	207

<표IV-11> 찬성과 반대 쟁점 예시1	212
<표IV-12> 찬성과 반대 쟁점 예시2	213
<표IV-13> 삼단논법의 도식과 예시	214
<표IV-14> 귀납추론의 도식과 예시	215
<표IV-15> 유비추론의 도식과 예시	216
<표IV-16> 교실토론 논증 요소	217
<표IV-17> 토론·문학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223
<표IV-18> 토론·비문학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227
<표IV-19> 토론·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232
<표IV-20> 토론·교육연극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236
<표IV-21> 교실토론 논제 예시	239
<표IV-22> 교실토론 참여자 역할	242
<표IV-23> 교실토론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 분담	243
<표IV-24> 자료 카드 양식	244
<표IV-25>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 예시	245
<표IV-26> 토론 개요서 양식	246
<표IV-27> 에머렌과 구르텐도르스트의 10가지 토론 규칙	248
<표IV-28>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듣기·말하기 영역 토론 성취기준	250
<표IV-29>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개관	251
<표IV-30>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교수·학습 내용	252
<표IV-31>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 평가 내용	255
<표IV-32> ‘토론’ 수행 평가 기준	256
<표IV-33>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교수·학습 과정안	258

그림 목 차

[그림 II-1] 논제 조건을 적용한 논제 확정 과정	31
[그림 II-2] 논제 확정 과정에 대한 예시	32
[그림 II-3] 톨민의 3단계 논증 구조	41
[그림 II-4] 톨민의 4단계 논증 구조	42
[그림 II-5] 톨민의 6단계 논증 구조	43
[그림 II-6] 톨민의 6단계 논증 구조의 예시1	44
[그림 II-7] 톨민의 6단계 논증 구조의 예시2	45
[그림 II-8] 조셉 윌리엄스와 그레고리 콜립의 논증 구조	49
[그림 IV-1] 학문 간 연계 형태에 의한 통합교육과정 모형	173
[그림 IV-2] 창의성 구성 모델	176
[그림 IV-3] 교실토론 자리 배치도	181
[그림 IV-4] 교실토론 논제 확정 과정에 대한 예시	205
[그림 IV-5] 교실토론 논증 구조	217
[그림 IV-6] 교실토론 수업 모형	220
[그림 IV-7] 교실토론·문학 수업 모형	222
[그림 IV-8] 교실토론·비문학 수업 모형	227
[그림 IV-9] 교실토론·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모형	231
[그림 IV-10]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실 배치도	235
[그림 IV-11] 교실토론·교육연극 수업 모형	235
[그림 IV-12]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토론 수업 모형	257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의 일부로서 토론 지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어과 토론 지도 내용을 구안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논제, 논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토론 교육이 국어과 전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법적 고찰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토론(討論)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라고 풀어서 의미를 규정한다. 이 정의를 통해 볼 때 토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할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문어가 아닌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debate)을 영어 사전(旺文社, 1983:175)에서 찾아보면, ‘public meeting in which a question is talked about by at least two people or groups, each expressing a different point of view’, ‘to talk or argue about (something) with someone. in an effort to persuade other people’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토론(debate)은 ‘(1) 서로 생각이 다른 (2) 두 사람 이상이, (3) 어떤 문제에 대해, (3)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4) 논쟁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에서는 유사함이 있으나, 토의(discussion)가 상대와 협력적 관계에서 최상의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면, 토론(debate)은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양측이 상반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더 나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사소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討論)은 토(討)와 론(論)으로, 토(討)는 다시 언(言)과 촌(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론(論)은 언(言)과 룬(倫)¹⁾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토(討)는 말을 나누거나 쪼개어 분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론(論)은 말을 들려가며 진행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강태완 외, 2001:15). 토론(debate)의 어원은 라틴어의 'debattuere'에서 유래된 것이다. '나누다' '제거하다'를 뜻하는 'de'와 '겨루다' '전쟁' '시합' '싸움'을 뜻하는 'battuere(battle의 어원)'의 합성어이다. 그리하여 'debate'의 원뜻은 '나누어 겨루다' '말싸움'이란 의미를 지닌다(이정옥, 2008:24).

프릴리(Freeley, 1986:2)는 토론을 '한 논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추구하는 탐구와 옹호의 과정'이라고 보고, 토론을 '논증(argumentation)을 통해서 어떤 논제(proposition)에 대해 분별력 있는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Freeley, 1996, 강태완 외, 2001:101 재인용). 스나이더(Alfred C. Snider, 2015:25)는 '토론은 의사결정 집단 앞에서 어떤 관심 주제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공평하게 의사소통하도록 구조화된 사건'이라고 하면서, '토론은 말이나 글로 하는 의사소통 사건으로서 생각을 전달하고 논증하는 방법이자 행위'라고 하였다. 토론의 사전적 의미와 선행 연구자들의 토론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대립되는 양측이 논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말을 수단으로 하여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토론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문제란 토론의 논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논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논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형성되는 대립 지점으로 이를 통해 양측의 다양한 쟁점이 형성된다. 토론에서 논제는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통해 토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가 상대 논리보다 더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옳으니 그르니 갑론을박하며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갈등을 잠재우고 자신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증이 필요하다. 논증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 왔던 사회적 통념에 대해 과연 그럴까하는 의문을

1) 강태완 외(2001:15)에서는 '룬(倫)'을 '륜(倫)'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문맥상으로 볼 때, '인륜'의 뜻을 갖고 있는 '倫'이라기보다는 '동글다'라는 뜻을 가진 '倫'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적 판단 아래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증명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자 한다. 논증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든,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든,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든 이 유나 근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토론의 전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토론에서 논제와 논증이 매우 중요한 반면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적절히 교육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논제는 토론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교과서 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교과서 맹신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토론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는 논증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증은 주장과 근거 위주의 2단 논법인 단순 논증이 대부분이다. 교과서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하는데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논증 역시 탄탄하지 못하고 부실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 토론 단원을 검토해 보면 부적절한 논제와 논증이 다수여서 이를 그대로 수업에 적용했을 때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론 단원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교사는 기존 교과서에 의존하기보다 토론 단원 수업을 위한 자료를 스스로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토론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이러한 고충은 지금도 대체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우리는 매일 무수히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고,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순간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현대인들은 매체 환경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했으나 정보 소외 계층의 박탈감, 인간보다 물질이나 기계를 우선시 하는 인간 소외 현상 등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가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미래형 인간 양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2015년에 개정·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토론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 방법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토론은 ‘국어’의 하위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대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단일 영역이 아닌 영역 통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토론 전, 자료를 찾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가, 토론 과정에서는 상대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가, 토론 중 주요 내용을 메모하고, 토론 후 논제에 대해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쓰기가 사용된다. 토론이 끝난 후, 토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가 사용된다. 이 모든 과정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문법과도 연관이 있다. 문학 단원의 갈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학과 토론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토론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의 기본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토론은 또한 국어 교과와 도덕, 사회, 과학, 수학 등 타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교과 간 영역 통합 교육에도 유용하다. 주제 중심, 화제 중심, 교과 내용 중심, 핵심 원리 중심 등으로 지식을 재구성하여 통합 교육을 하고자 할 때 토론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년을 초월하여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노인부양, 저출산, 소득양극화, 왕따, 학교 폭력, 청년 실업, 통일과 같은 소재는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다. 해당 학년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 주도의 활동을 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토론은 교과 내 영역 통합, 교과 간 영역 통합, 초·중·고등 교육의 유기적 통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토론은 ‘국어’ 교과가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게 해 준다.

토론을 위한 논증 훈련이 학생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²⁾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주장을 뒷받

2) 대학의 논증과 토론 강좌가 표준화 검사에서 비판적 사고 점수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조사한 수많은 연

침하는 근거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향상된다. 토론은 양방향 찬반 논쟁으로 토론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 토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론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 토론과정에서 팀끼리의 단합은 매우 중요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토론은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 임금들 상대로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나, 조선왕조실록에 조정에서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벌였던 논쟁들, 양반이나 유생들이 철학적 관점의 차이로 벌였던 다양한 논쟁들은 고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토론은 문화향유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또한 토론은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자신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 역량을, 협력과 소통의 토론 과정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자기 계발 역량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토론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토론은 그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사회 구조 아래서 논쟁을 잘하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은 ‘말’과 관련된 많은 관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다. 우리 사회는 세련된 웅변이나 달변보다는 행동이나 내면을 중시했다. 유창하게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은 어눌해도 내면이 진실한 것을 더 선호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 말없이 상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다.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의 갈등 해결 방법은 무력이나 권력과 같은 힘이 아니라 논증을 기반으로 한 토론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토론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구들에 따르면 논증 집단 학생이 통제 집단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입증되었다. 콜버트(Kent R. Colbert)는 CEDA나 NDT 토론에 1년간 참여한 토론자는 비토론자보다 비판적 사고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보여주었다(Freeley, 1996:270).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의 토론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완성되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파급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 기반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고, 토론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토론 관련 부분에 대한 교과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가 개발된 후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진행 가능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 연구 검토는 토론 교육에 대한 연구, 논제 관련 연구, 논증 관련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토론 교육 연구

국어과의 토론 교육에 대한 고찰은 화법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화법 교육에서 토론 교육은 토론을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다루는 ‘토론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토론을 통한 교육’으로 나뉜다. 전자는 ‘토론 교육’이라 불리고 후자는 ‘토론식 수업’으로 불린다(임철성, 2011, 이창덕, 2013:10-11 재인용). 이때, ‘토론에 대한 교육’인 ‘토론 교육’은 교육 방법으로서의 토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토론을 위한 토론 교육 연구인 반면, ‘토론을 통한 교육’인 ‘토론식 수업’은 토론을 수업 방법으로 이용하여 교과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토론 활용 수업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인 ‘토론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토론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재찬·이성영·서혁·박수자(1998)는 총체적 언어학습관을 토대로 토의·토론이 국어과의 전 영역과 타 교과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봄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 토의·토론의 범위를 듣기·말하기 영역을 벗어나 언어·문학 영역, 타 교과 영역으로 확대하여 연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토의·토론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한 것과 토론을 토의에 포함시키고 ‘Debate’를 ‘대립토의’로 풀이한 것은 부적절하다. 국어교과에서 토의(discussion)와 토론(debate)은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debate인 토론은 의견 대립을 전제로 한 설득적 말하기를 의미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스미스와 라간의 설계 모형을 차용하여 새로운 토론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한 임철성·최복자(2004)는 토론 수업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습자, 학습 환경, 수업 방법을 들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수업 일반 모형과 거기에 따른 각 단계의 하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 남은 과제라고 밝히고 있듯이 실제 수업 시간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 받지 못했다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토론 수업 설계 모형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학습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토론 설계자인 교사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복자(2006)에서는 토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토론 지식 학습과 토론 수행 경험을 구분하여 교실 환경에 적합한 모형은 지식 중심 수업 모형으로, 학교 환경에 적합한 모형은 수행 중심 수업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토론 수업 모형을 지식과 수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수행에 대해 경기대회 방식을 제안한 것은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수업과는 거리가 있다. 지식과 수행을 포괄한 교실 환경에 적합한 일원화된 토론 수업 모형으로 교정해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론 수업 모형이 될 것이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디베이트 토론 방법으로 배심원 토론 수업 방법을 소개한 김주환(2011)은 배심원 토론과 CEDA 토론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시간과 순서가 엄격해 제한되어 있고, 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한 엄격한 평가가 있는 경쟁식 CEDA 토론에 비해 토론 시간, 순서, 내용이 자유롭고 동료 학생들이 배심원이 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배심원 토론이 교육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CEDA 토론 방식이 아닌 일반 토론 방식에서 청중인 동료학생들이 토론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인 청중을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이선영(2011)에서는 국어과 토론 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초·중·고 토론 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토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밝혀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국어과 토론 교육의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교육청 주도의 토론 대회와 민사고식 토론 대회를 형식으로 분석한 것은 학교 내에서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김지현(2012)에서는 토론 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것이 교과서 토론 단원에 구현된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교수·학습의 외재적인 요인인 학습자·교실 환경·교사라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 자체만을 비판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으나 토론 단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은 의의가 있다.

총체적 언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토론 수업 설계 방안을 연구한 조선덕(2017)은 임칠성 외(2004)의 토론 수업 설계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교실토론 수업 설계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실제 교실토론 수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설계 모형에 대한 시도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을 통합하여 총체적 언어사용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토론 논제에서 ‘응칠은 만무방이 아니다.’라는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어 토론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양측이 혼선이 올 수 있다.

다음으로 토론을 수업 방법으로 활용한 ‘토론식 수업’에 대한 연구에는 다양한 교과 관련 연구들이 있다. 특히 사회과(이대성, 2005; 오연주, 2008; 설규주·정문성·구정화, 2011; 이지혜 2017)와 도덕과(백춘현, 2004; 한승욱, 2011; 이경희, 2016; 이병기·정종삼, 2017)에서 토론을 활용한 수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와 도덕과의 연구에서는 딜레마, 가치 갈등,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역량 신장, 토론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수학과(조영규, 2006; 위자명, 2015; 최모로·안병곤, 2017)에서는 토론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과학과(이선미, 2009; 손효정, 2010; 엄장희 2017)에서는 과학 토론 수업이 과학 탐구 능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국어과에서는 교과 내 다른 영역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토론을 활용한 수업 연구가 있었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의 방법으로 토론을 활용한 연구(양윤경, 2000), 찬반대립형 독서토론 모형 연구(서정혁, 2009), 독서 토론을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권정인, 2010), 찬반대립토론에 기초한 논술 능력 신장 연구(강주영, 2013), 김유정의 문학 작품과 독서 토론의 의의(최선영·차봉준, 2015) 등 토론을 수업에 활용하여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어과에서 토론을 활용한 수업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윤경(2000)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 방법으로 토의·토론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문학을 토론과 접목한 시도는 좋았으나 토의와 토론이 혼재되어 있어 토론 수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토론 형식도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모둠 활동 수업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서정혁(2008)에서는 교보·숙명 전국독서토론대회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찬반대립형 독서토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과거 개방형 독서토론대회가 주를 이루는 교육 현장에 찬반대립형이라는 새로운 독서토론 모형을 제시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권정인(2010)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학교 3학년 독서토론동아리 학생 8명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한 토론을 바탕으로 토론 전과 토론 후의 사고의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수의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토론 과정 끝에 주어진 결과여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강주영(2013)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반대립토론을 실시하여 찬반대립토론 전후의 논술 양상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논증도식으로 김병원의 토론 6단계 논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논술 쓰기에 앞서 토론을 할 경우 주제와 관련된 비판적, 확산적 사고가 활성화되어 내실 있는 논술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으나 김병원의 6단계 논법 중 학생들이 어

려워한다는 5단계 ‘설명’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유정의 문학 작품과 독서토론 교육의 의의에 대해 최선영·차봉준(2015)이 연구하였다. 대학 수업에서 협동학습형태의 독서토론모형을 사용하여 실제 수업 사례를 들고 있으나 수업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현장에 대해 실감할 수 없었고, 몇몇 김유정의 작품을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논제 연구

토론 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이선영(2010), 박재현(2013b), 이순훈(2015), 이민영(2016), 김혜진(2017) 등이 있다. 토론 교육 연구가 국어 교과 외의 사회과, 도덕과, 수학과, 과학과 등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반면, 논제 연구는 주로 국어 교과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토론 대회, 교과서 논제의 적합성 여부, 정책 논제, 가치 논제의 적합성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논제의 분석틀을 마련하여 그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역대 토론대회 논제들을 분석하여 논제의 경향, 논제 선정의 배경과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토론대회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논제들을 상호 비교·분석한 것은 이선영(2010)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논제 선정과 서술 방식을 둘러싼 논쟁 과정을 고찰하면서 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정책 논제의 적합성 분석 기준틀을 마련한 박재현(2013b)은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에 제시된 논제들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립성’, ‘변화지향성’, ‘균형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중·고등학교 정책 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특히 ‘변화지향성’에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는 정책논제판단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논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순훈(2015)은 박재현(2013b)의 ‘정책 논제 적합성 분석틀’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논제들이 토론 수행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 11개의 논제 중 대립성, 변화지향성, 균형성을 모두 충족한 논제는 하나 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토론 논제 선정에 신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논제 분석 후 부적합한 논제를 수정하는 과정이 빠져 있어서 심층적인 연구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가치논제 토론 수업의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 이민형(2016)은 교육공학의 설계 기반연구를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의 연구는 정책논제 일변도의 토론 교육 연구에서 가치논제를 다루고 있어서 토론 논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부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혜진(2017)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마련한 논제의 조건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공통되게 제시한 조건을 추출하여 다듬은 후,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입하여 논제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논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대다수의 논제에 대해 논제를 다듬고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재구성하여 공정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논증 연구

다음으로 논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증에 대한 연구로는 엄훈(2002), 이선영(2002), 민병곤(2004), 권희경(2008), 권대호(2014), 김종우(2015)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토론 담화 상황에서 논증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병곤, 권희경, 김종우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논증을, 이선영에서는 대학생의 논증, 권대호는 TV 토론 논증 담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 전기 공론 영역(public sphere)에서 이루어진 논증적 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전통 논변을 논변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는 엄훈(2002)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의 연구는 과거의 전통 논변 양상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논변을 분석하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국어교육에 적용하고자 시도했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이선영(2002)은 대학생 토론 활동의 담화 분석을 통해 토론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토론 활동을 인지적 측면인 ‘논증 구성’과 프레임을 원용한 사회적 측면인 ‘상호작용 전략’으로 이분화하여 고찰하였다. 실제 토론 현장을 관찰하고 토론 참여자들이 논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해 줄 논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대립 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갈등 상황을 운용하며 협력하는

지를 살핀 후 이를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논증 담화 및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개념과 위상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민병곤(2004)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초·중·고 6, 8, 10학년 학생 소집단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국어 교육에서의 논증 교육의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통제 상황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의 토론 양상을 킨 포인트너(1992)의 논증 도식과 왈튼(1996)의 비판적 의문을 목록화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권희경(2008)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인과도식, 설명적 예시, 귀납적 예시, 비교도식, 권위도식, 유추도식 순으로 학생들이 논증 도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는 실제 학교 토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토론 담화 수행의 본질을 ‘논증 구성’과 ‘쟁론 수행’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지니는 구조와 수행 방법에 대한 연구는 권대호(2014)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의 연구는 토론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실제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종우(2015)는 학교 토론 상황에서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논증 도식 프로그램과 직접 교수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5학년 두 개 반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논증 도식을 직접 교수하고 통제 집단은 논증 도식을 지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논증 도식을 지도한 실험 집단이 토론 능력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논증 도식 지도의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의 일부로서 토론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어과 토론 지도 내용을 구안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토론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 장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선행 연구는 크게 토론 교육 연구, 논제 연구, 논증 연구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토론 교육 연구는 토론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토론에 대한 연구는 토론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토론을 통한 연구인 토론 활용 연구는 국어 교과를 비롯하여 사회, 도덕,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국어 교과 내 다른 영역인 문학, 독서(읽기), 논술(쓰기) 능력 신장이라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토론을 활용하고 있었다.

논제에 대한 연구는 정책 논제의 논제 적합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정책 논제에 비해 소외되었던 가치 논제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논증에 대한 연구는 담화 분석을 통해 실제 학교 토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증 방법에 대한 지도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토론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교실토론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토론 유형과 수업 모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실토론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장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바탕이 되는 부분으로 논제와 논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논제는 토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또는 문제로 토론 논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한 것이다. 부적절하게 제시된 논제는 토론의 흐름을 막고, 토론자가 판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고 토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의 논제의 조건을 검토하여 토론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논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논제의 개념, 논제의 유형, 논제의 조건, 논제의 적합성 분석에 대해 다룰 것이다. 토론에 부적합한 논제를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논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증은 많은 연구자들이 토론에서 다루고 있다. 논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토론은 내실 있는 토론이 될 수 없고, 상대 토론자를 제대로 설득할 수 없다. 논증의 개념, 방식, 구조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토론 수업에서 2단 논법에 머물렀던 논증을 실제 토론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논증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논증을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자들 중, 아리스토텔레스, 톨민, 윌리엄스의 논증을 바탕으로 교실토론을 위한 논증 구조를 제안하였다.

III장에서는 국어과 토론 교육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 편찬 및 각종 평가와 대학교 입학시험까지 연계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현재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영역 통합을 지향하고 있어서 토론의 특성과도 합치하는 부분이 많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토론을 교육하기에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 토론 단원이 수록된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성취 가능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단원을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과서가 토론 교육을 실천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토론 단원이 수록된 교과서는 초등학교는 『5-2 국어㉠』, 『5-2 국어활동 ㉠』 중학교의 경우는 3학년 『국어⑤』 또는 『국어⑥』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어Ⅱ』,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토론을 다루고 있다. 이들 교과서 외에도 논제와 논증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단원을 찾아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5-6학년군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3학년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국어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토론·논제·논증에 대해 다루었다. 이들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

으로 제작된 교과서여서 교과서 분석의 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국어과 토론 지도의 실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어과 토론 지도 방안은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교실에서 다인수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 지도이므로 이러한 토론에 대해 본고에서는 ‘교실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교실토론의 원리에 대해 다루었다. 교실토론 지도의 원리는 토론이 듣기·말하기의 영역을 비롯하여 문학, 읽기, 쓰기 등과 통합하여 학습자의 총체적 언어 신장에 도움을 주고, 주제를 중심으로 타 교과와 연계가 가능하며, 교사가 아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영역 통합의 원리, 범교과의 원리, 학습자 중심의 원리를 추출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실토론의 전략에 대해서는 교실토론의 유형과 과정, 논제, 논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제 교실토론을 위해 필요한 토론 요소들에 대해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교실토론의 모형은 연구자의 오랜 토론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교실토론의 진행 과정을 ‘계획-실행-적용’의 삼 단계로 나누어 총 3차시에 하나의 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영역통합 수업에 적용하여 토론·문학 수업 모형, 토론·비문학 수업 모형, 토론·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모형, 토론·교육연극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실토론의 지도 방안에 대해 교실토론 준비하기, 교실토론 실행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실토론 준비하기는 실제 교실토론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 단계로 논제 정하기, 모둠 구성하기, 역할 분담하기, 자료 조사하기,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토론 판정지 작성하기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실토론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의 3학년들을 대상으로 3학년 2학기 토론단원을 위한 교실토론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토론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판된 교과서여서 현재 상황에 맞게 토론 단원의 학습 목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변경·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토론 단원의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학습 목표를 변경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교육과정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후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학습자 실태 분석을 통해 교실토론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 단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토론 단원의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V장 결론에서는 본고의 전체적인 논의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고는 교실토론을 계획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토론 지도 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담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초·중·고 교과서 토론 단원을 분석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를 통해 토론의 향방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교실토론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 방안을 구안하였다는 데에 본 논문의 한계가 있다. 이는 앞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출판될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II. 논제와 논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제를 정해야 한다. 논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되는 현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 의지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Freeley & Steinberg(2013:122-123)에 따르면, 논제(proposition)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진술한 것이며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경쟁하여 그 결과를 청중 혹은 토론 심판이 결정하게 된다.

토론은 토론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의사소통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가 상대 논리보다 더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국어과 토론 지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논제와 논증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논제³⁾

논제는 토론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논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을 담고 있다. 논제는 가치논제, 사실논제, 정책논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인 수사학(2015:32-36)에서 다룬 세 가지 연설 유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먼저, 송덕연설은 때로는 과시적 연설(epideictic speech)이라고도 불리는 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칭송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연설은 그렇게 함으로서 연설에서 제시한 가치를 청중이 받아들일도록 설득한다. 법정연설은 법정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3) 논제에 대한 부분은 필자의 참고인 '김혜진·송현정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토론 논제 분석」, 2017, 한국언어문학 vol.101'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하였다.

고소를 하거나 변호를 할 때 또는 개인의 권리나 다툼에 대해 법정이 해결해주기를 원할 때 하게 된다. 의회연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설의 목적은 입법부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을 거부하거나 통과시키게 하는 것이다.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연설 유형은 오늘날 토론에서의 가치논제, 사실논제, 정책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논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세 가지 논제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핀 후,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논제의 조건을 추출한 후 제시된 논제를 조건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통해 부적합한 논제를 토론에 맞는 적합한 논제로 수정하고자 한다.

1) 논제의 개념

논제의 개념은 논제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논제의 세 유형인 정책 논제, 가치 논제, 사실 논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 내릴 수도 있다. 정문성(2012:345-354)에 따르면, 정책 논제는 대개 학급이나 학교, 국가, 나아가서 시민으로서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진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제를 말한다. 가치논제는 무엇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 판단 즉 가치를 검증하는 논제를 말한다. 사실논제는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양립 가능한 사실에 대해 자신들의 논리로 입증하고 반박하는 논제이다.

논제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를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4) 티모시 보셔스, 이희복 외 옮김,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 55-56.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유형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시제	목적	예
법정	과거	정당/부당	법적 소송의 최종 주장
송덕(과시적)	현대	명예/불명예	장례 송덕
의회	미래	이익/손해	의회 연설

<표 II-1> 논제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

연구자(연도)	논제에 대한 정의
강태완 외(2013)	논쟁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명료하게 구분해 주는 진술문.
박재현(2013)	토론의 본질인 양측의 대립이 드러나는 시작점이며 토론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내용과 범위 결정.
이정옥(2014)	토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대상이며, 찬성과 반대 입장의 대결 구도를 나누는 대립축.
유동엽(2012)	토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핵심적인 쟁점이 잘 드러나도록 선명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
박보영(2016)	대립토론 ⁵⁾ 의 안건은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며, 양자택일(찬성이나 반대)밖에 허용되지 않음.
신광재 외(2012)	토론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

논제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 토론의 성격상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토론의 특성이 논제에 대한 정의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논제에는 찬반 양측의 쟁점이 들어 있어야 한다. 논제는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토론을 통해 가장 치열하게 다룰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다.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은 논제 해결을 위한 방법 찾기라고 볼 수 있으며 논제는 찬성 측이 토론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자 목적지라고 볼 수 있다.

경쟁을 통해 팀 또는 개인의 토론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교육 토론의 특성상, 토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는 쟁점을 형성하게 된다. 논제는 무엇에 대해 다루느냐에 따라 사실논제, 정책논제, 가치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논제 유형에 따라 논제의 개념도, 입론 방식도 달라진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제로 보는 입장은 정책 논제를 엄두에 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가치관의 차이를 다루는 가치 논제인 경우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진실공방을 다루는 사실 논제는 사실에 대한 진위(眞僞)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대립토론은 'debate' 즉, 형식적 제약이 강한 논쟁형 토론을 의미한다. 아카데미 토론인 교육 토론은 형식적 제약이 엄격한 debate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에 따라 대립토론(박보영, 구정화·김두한, 이주현, 이효준), 찬반대립토론(서명애), 디베이트(정문성, 케빈 리), 찬반토론(강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논제의 유형

논제는 토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실(fact)논제, 정책(policy)논제, 가치(value)논제로 구분한다. 이러한 논제의 유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인 수사학에서 연설의 세 가지 유형을 송덕연설, 법정연설, 의회연설로 구분한 것에서 유래한다. 송덕연설은 오늘날의 가치논제, 법정연설은 사실논제, 의회연설은 정책논제로 이어져 내려왔다.

논제의 유형 중 교육 토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가치 논제와 정책 논제이다. 사실 논제는 뒷받침 근거의 진위(眞僞) 여부 파악을 위해 자료 수집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쉽지 않고, 가치 논제와 정책 논제의 하위 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토론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다. 교육 토론에서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인가와 같은 가치 판단에 대한 가치 논제와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책 논제를 주로 다룬다.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토론의 가치 논제는 이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정책 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성이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사실 논제는 논제의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 토론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게 하므로 어떤 대상에 대해 가치와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선행 절차로 가치 논제와 정책논제처럼 교육 토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제의 세 유형⁶⁾에 대해 사실, 가치, 정책 논제는 비정책(non policy)

6) 조셉 윌리엄스와 그레고리 콜롬(Joseph M. Williams & Gregory G. Colomb, 2012:50-51)은 글쓰기의 전략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방법에 대한 실용 문제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 문제로 크게 둘로 나누어 다룬다. 여기서 제시하는 실용 문제는 토론의 정책논제와, 개념 문제는 가치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제와 정책(policy) 논제로 구분되기도 한다. 정책 논제가 현존하는 규제 프로그램의 폐지나 새로운 규제 혹은 프로그램의 수립 등의 행위를 폭넓게 진술해 놓은 것이라면,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가 속한 비정책 논제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판단형 논제이다(Hill & Leeman, 1997:129-132). 가치 논제는 사실 논제와 정책 논제의 중간에 위치하여 유사사실논제, 유사정책논제로 변형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 논제의 유형은 대상을 어떤 방향에서 조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이선영(2010:257)에 따르면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때로는 서로 경계를 넘어서며 상호간에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 폐기물 매립장을 지어야 한다.’와 같은 논제의 경우, ‘방사선 폐기물은 위험하다.’라는 사실 판단과 ‘핵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 ‘매립장 건설’이라는 정책 판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논제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실 논제

사실논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쟁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사실논제는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따지는 법정논쟁이 대표적인 것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

고대 그리스의 법정에서는 원고가 입론을 하고, 피고가 반론을 하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배심원들이 했었다. 사실 논제는 그 당시에 했던 법정 연설(judicial rhetoric)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통한 법정 논쟁과 유사하다. 오늘날은 직접 변론이 아닌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하게 되는데, 범죄 유무에 대한 논쟁은 사실과 거짓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결정된다.

사실 논제는 이러한 법정 공방 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들을 다룰 때도 사용된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일본 영토인지,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한 공방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논제이다. 조선 영조의 아들 사도 세자의 죽음이나 인조의 아들 소현 세자의 죽음과 같은 의혹이 많은 역사적 사건, 외교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우선

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UFO, 외계인의 존재 유무와 같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한 소재들도 사실 논제로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선영(2002:91)에서는 사실 논제를 9가지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 주장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사물이 존재하거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는 존재 주장(claim of being)이고, 둘째는 사물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관계 주장(claim of relationship)으로 나타난다. 관계는 전형적으로 원인과 결과도 드러나며 존재 주장에 비해 결과나 효과를 가정하고 있다. 셋째는 지칭 주장(claim of designation)으로 사물을 이름 짓거나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며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다룬다. 이와 같은 분류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맥락에 의한 재분류가 일어나면 총 9가지의 사실 주장이 논증 활동에서 토론된다고 볼 수 있다.⁷⁾

사실 논제는 증거에 대한 사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논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 자료,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논제보다 사실 논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토론을 위한 준비 기간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가치 논제

가치 논제는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의 가치 충돌 상황을 토론을 통해 풀고자 할 때 제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나 판단이 ‘바람직한지 아

7) 관련되는 예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상계서, p. 91.

범주	존재	관계	지칭
과거	¶일본은 세계대전 당시 중군 위안부를 조직했다.	¶정부의 비호 아래 1970년대 특정 기업은 고도로 성장했다.	¶대통령의 대량 실업 방지책은 보수적이었다.
현재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종합 의료보험 방안을 가지고 있다.	¶잠복근무를 하는 교통경찰은 교통사고를 부추긴다.	¶특정 기업의 구조는 관료적이다.
미래	¶정부는 평화통일 방안을 계속 추구할 방침이다.	¶이 물체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불을 붙이면 재로 변할 것이다.	¶연예인의 의복구입비는 면세 항목으로 분류될 것이다.

닌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개인이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어떤 가치가 더 바람직한지를 토론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가치 논제는 고대 그리스의 송덕 연설(demonstrative rhetoric)과 관련이 있다. 송덕 연설은 장례식 추도사와 같이 어떤 사람을 칭송하거나 비난하는 특정한 경우에 행해졌던 것으로 청중으로 하여금 특정 가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송덕 연설은 개개인이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어떤 가치가 더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가치논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치 논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평가 대상(object of valuation)과 평가 용어(evaluation term)이다. 그리고 이에 부가될 수 있는 하위 요소로 상황 한정자(situational qualifier)와 판단 한정자(judgemental qualifier)가 있다. 우선 상황 한정자는 평가 대상의 맥락과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에 배속된다. 또한 판단 한정자는 평가 용어의 하위 요소로 가치 판단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Hill & Leeman, 1997:133, 이민형, 2016:28 재인용). 예를 들면,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리스트를 고문해도 좋다’라는 논제의 경우, 토론의 평가 대상은 ‘테러리스트 고문’이 될 것이고, 평가 용어는 ‘좋다’, 상황 한정자는 ‘테러’, 판단 한정자는 ‘테러를 막기 위해’가 될 것이다.

이민형(2016:28-30)에 따르면, 가치 논제는 문장의 진술 형태, 평가 대상의 성격, 평가 용어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문장의 진술 형태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낫다.’와 같은 비교 평가형과 ‘모든 학생은 바람직하다.’와 같은 단일 평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는 ‘안중근의 행위는 정당하다.’와 같은 과거 행위에 대해 현재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칭송할 것인지 비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개념 문제와 ‘불효자 방지법은 정당하다.’,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은 정당하다.’와 같은 실용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실용 문제에 대한 가치 토론은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집합적 결정이 중요하고, 정책에 대한 예비 토론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유사정책 논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용어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 ‘정당하다.’, ‘좋다.’와 같이 어느 대상에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판단형과 ‘교육적이다.’, ‘도덕적이다.’와 같은 구체적 가치 판단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정책 논제

정책 논제는 정책의 실행 여부를 가리는 토론에서 다루는 논제로 국가, 국회나 지방 의회, 학교와 같은 집단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정책 논제는 주로 ‘-해야 한다’는 의무나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책 논제는 고대 그리스의 의회 연설(deliberative rhetoric)과 관련이 있다. 의회 연설은 의회에서 행하는 연설로, 제안된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의회 연설에서 다룬 문제는 정책의 실행 여부를 가리는 오늘날의 정책논제와 관련이 있다.

정책 논제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정책 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찬성 측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 또는 기존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대해 발언한다. 그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새로운 정책 시행 또는 기존 정책 폐지가 이익보다는 부작용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정책적 대안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익보다는 부작용이나 문제가 많고 대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며 풍부한 관련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정책 논제는 정보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주요 쟁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제시가 중요하다.

정책 논제는 현재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당위적 행위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이나 가치 논제와 달리 정책 논제에는 행위의 주체와 ‘해야 한다(should) + 행위(동사)’의 형태로 당위적 행위가 명시되어야 한다(Ericson, Murphy&Zeuchner, 2011:8-9, 박재현, 2012:146 재인용). 현재의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금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규제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도입해야 한다, 공개해야 한다, 부과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 인상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행위를 명시한다. 그와 함께 행위의 주체가 국가인지, 국회인지, 도의회인지, 학교인지 등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한 실행 가부를 묻는 정책 논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정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토론 논제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나 국회, 도의회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실행을 통해 질서 있게 그 사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교육 현장인 학교도 사회의 축소판으로 다양한 규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면서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쓴다. 정책 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과 도덕의 차이, 규칙, 약속의 중요성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논제로 현재 교육 토론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3) 논제의 조건

토론에서 논제는 매우 중요하다. 논제가 어떻게 제시되느냐는 토론의 공정성과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논제는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토론을 관장하므로 잘못된 논제 제시는 토론자들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다. 좋은 논제로 논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논제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의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Freeley(1996:38-41)는 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논제는 하나의 중심적인 논점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이상의 쟁점을 포함하는 논점은 회피해야 한다. 둘째, 논제의 찬반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 담긴 용어는 배제해야 한다. 셋째, 논제는 긍정 측이 바라는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요한 현안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제의 조건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선행 연구자들의 논제 선정 조건

	하나의 논점	찬반 대립	시의성	긍정 측 입장	긍정 평서문	학생 흥미	구체적 입증	그 외
프릴리	○	○	○	○				공정성
강태완 외		○		○	○		○	합리성
박보영		○		○		○		난이도(수준)
박재현	○	○	○	○	○			균형성
신광재 외	○	○	○	○	○		○	단문
유동걸	○	○	○	○	○		○	명제형

이선영			○			○		교육목표
이정옥	○	○	○	○	○		○	단문
정문성	○	○	○	○	○	○		학생 수준, 학교 현장
김지현 외		○	○	○	○			
서영진	○	○		○	○		○	
합계(11)	7	10	8	10	8	3	5	

<표Ⅱ-8>을 통해서 볼 때 논제 선정 시 열한 명의 연구자 중 일곱 명 이상이 논제의 조건으로 본 것은 하나의 논점, 찬반대립, 시의성, 현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긍정 측 입장, 긍정 평서문이다. 일곱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논제의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열 명의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은 ‘찬반 대립’과 현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긍정 측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여덟 명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의성’, ‘긍정 평서문’, 일곱 명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은 ‘하나의 논점’이다. 그 외에도 다섯 명이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체적 입증’, 세 명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학생의 흥미’가 있다. 다수의 연구자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연구자들이 논제 조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공정성, 합리성, 학생의 수준, 균형성, 단문, 명제형, 교육 목표, 학교 현장에 맞는 논제’ 등을 들 수 있다.

일곱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하나의 논점’, ‘찬반 대립’, ‘시의성’, ‘긍정 측 입장’, ‘긍정 평서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의 논점’은 토론 논제가 하나의 주장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을 담게 되면 토론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서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⁸⁾라는 논제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위한 러닝메이트인지,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을 위한 러닝메이트인지 정확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토론 논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가,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논제가 있다면, 이 논제는 ‘자연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와 ‘자연 환경을 개발해야 한다.’는 두 개의 관점에서 한 쪽에서는 자연 환경

8) 김종철 외,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 2016, pp.148-153.

보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상대방에서는 자연 환경 개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찬반 의견이 서로 섞여서 토론자와 판정단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환경 보전이나 개발이냐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의 논점으로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 목소리로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찬반 대립’은 논제가 찬성과 반대 측의 팽팽한 대립이 될 수 있도록 쟁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편에 유리한 표현이 논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팽팽한 토론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론 결과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나와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⁹⁾는 찬성 측에 유리한 논제로 팽팽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를 위해”와 같은 수식어구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서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이유가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전력난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서라고 미리 찬성 측에 유리한 명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 측에서 반대하기에는 논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논제는 찬성 측에 유리한 논제로 이 논제로 토론을 진행할 경우 반대 측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태완 외(2013:37)에서는, ‘야만적인 개고기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제의 경우, ‘야만적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찬성 측에 유리한 정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논제에는 가급적 이 같은 가치 판단을 최소화하는 중립적인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시의성’이란 토론 논제가 그때그때 그 시기에 적절해야함을 의미한다. 토론 논제는 시의성을 잃게 되면 논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면 토론자들은 토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지지부진한 토론이 될 수 있다. 논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과거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규칙, 제도, 법이 찬성 측과 동일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그 논제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면 토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9) 김중신 외, 고등학교 『국어Ⅱ』, (주) 교학사, 2016, pp.256-261.

않을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찬반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시기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가 토론 논제로 적절했으나,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더 이상 토론 논제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012년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 이후 올레길 안전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었던 당시에는 ‘제주 올레 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가 토론 논제로 적절했으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금은 더 이상 그와 같은 논제로 토론하지 않는다. 이처럼 논제는 논제가 개발될 당시의 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담긴 문제를 논제로 다루어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 측 입장’은 토론에서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 입장이 논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찬성 측은 판정단의 입장에서 볼 때 왼쪽에 앉게 된다. 왼쪽은 진보를 추구하는 좌파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보수를 지향하는 우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이념적 대립으로 여기는데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좌파는 그 당시 사회 변동에 급진적인 몽테뉴 당이 의회의 왼쪽에, 우파는 온건한 당인 지롱드 당이 의회의 오른쪽에 위치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좌파와 우파는 이념 간의 대립이 아니라 서민으로 대표되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집단과 부자 계층을 대표하여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온건한 집단 간의 대립인 것이다. 토론의 논제는 좌파로 볼 수 있는 급진 개혁의 입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찬성 측이 현재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급진 개혁의 입장으로 논제는 개혁을 원하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즉 논제는 현 상황과는 반대되게, 현 상태의 수정, 개정,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형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면 논제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로 표현해야 한다. 인간 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인간 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제는 ‘긍정평서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평서문’은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으로 평서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¹⁰⁾

10) <http://stdweb2.korean.go.kr>(2017. 11. 27.)을 참고하였다.

을 뜻한다. 고영근·구본관(2015:426)에 따르면 우리말의 결어법 체계는 종결어미 사용에 따라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라체에서 먼저 평서법에는 ‘-(는)다’, 감탄법은 ‘-(는)구나’, 의문법은 ‘-(느)냐’, 명령법은 ‘-(어)라’, 청유법은 ‘-자’가 쓰인다. 이들은 문장 종류의 관점에서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양한 문장의 종류 중, 토론 논제는 문장 종결 어미를 ‘-(는)다’로 끝내는 평서문으로 나타내야 한다. 논제가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와 같은 의문문의 경우 김반장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 어떤 부분은 옳고 다른 부분은 그르다’와 같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론보다는 토의에 적합하다.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와 같은 청유문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역시 논쟁을 다루는 토론에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논제를 ‘남북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와 같이 긍정이 아닌 ‘안-’, ‘못-’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표현하는 경우, 찬성이 부정 측이 되고 반대가 긍정 측이 되어 서로의 입장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논제는 긍정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긍정 평서문’은 유동걸이 제시한 ‘명제형’, 신광재 외와 이정옥이 제시한 ‘단문’과도 관련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명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단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이다. 명제형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이나, 단문에서의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을 통해서 볼 때, ‘~과 ~을 ~해야 한다.’, ‘~하고 ~해야 한다.’는 복문이나 ‘~해야 하는가?’, ‘~하자’와 같은 의문문, 청유문은 논제의 문장 유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복문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을 담게 되어 하나의 논점을 제시해야 하는 토론의 조건을 어기게 되고, 의문문은 토론이 아닌 토의로 호를 가능성이 있으며 청유문은 상대방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이므로 대결구도 속에서 논쟁하는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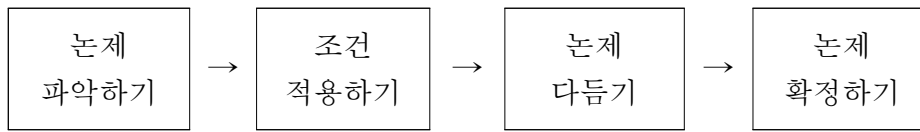
위에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의 제시한 논제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논제의 조건인 ‘공정성, 합리성, 난이도, 균형성, 교육목표, 학생 수준, 학교 현장’은 토론 논제의 기준에서 볼 때 꼭 지켜야할 조건이기보다는 개별 연구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적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과서 토론 논제 선정 기준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논제의 조건을 추출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의 적합성을 논하는 논제의 기준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3> 논제의 조건

기준	논제의 조건
단일한 논점	하나의 주장을 담아 논의의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한다.
찬반대립성	논제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대립을 이루어야 한다.
시의적절성	현재 시사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가 토론하기에 적절하다.
찬성 측 입장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 입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긍정평서문	복문, 부정문, 의문문, 청유문으로 논제를 제시하면 공정한 토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긍정 평서문으로 논제를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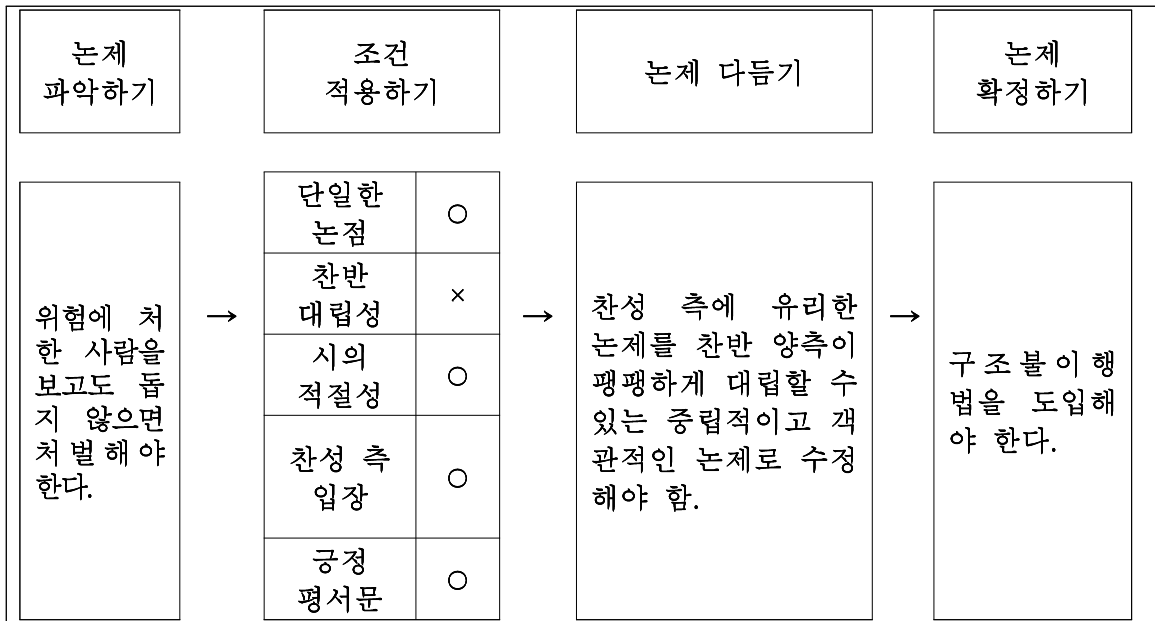
논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토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토론자들이 잘못된 논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논제는 단일한 논점, 찬반대립성, 시의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평서문과 같은 논제의 조건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조건에 부합하는 논제를 제시하는 것이 토론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에도 수월하다. 다음은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논제 수정을 통해 토론 논제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림 II-1] 논제 조건을 적용한 논제 확정 과정

[그림 II-1]을 보면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다듬기 위해서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논제를 파악한다. 논제는 처음 제시될 때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완의 논제가 제시된다. 그러한 논제로 토론을 진행할 경우 팽팽하고 긴장감 있는 토론이 될 수 없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논제로 인해 토론자들이 승패에 불복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논제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조건은 위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조건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제가 여러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의 논점으로 모아지는지, 찬성과 반대의 팽팽한 대립을 이루는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지, 변화를 모색하는 찬성 측 입장을 담고 있는지, 토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긍정평서문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수정하여 논제를 다듬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토론하기에 좋은 논제로 재탄생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II-2]는 부적절한 토론 논제를 [그림 II-1]에 적용시켜 토론하기에 알맞은 논제로 확정하는 과정에 대한 예시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단일한 논점’, ‘시의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 평서문’의 조건에는 맞지만 ‘찬반 대립성’에는 맞지 않는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이미 찬성 측에 유리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2] 논제 확정 과정의 예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구조불이행법’, ‘불구조처벌법’, ‘착한 사마리아 인 법’과 관련이 있는 논제이다. ‘구조불이행법’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호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논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다.’라는 개인의 자유 영역인 도덕에 대해, ‘처벌’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법의 영역에서 다를 수 있느냐에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찬성 측에게 유리하게 표현된 논제를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법이 혼재해 있어서 혼란스러운 논제를 도덕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문구로 바뀌서 찬성과 반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논제로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구조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확정하였다.

토론을 위해서 논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논제 없이는 토론도 없기 때문이다. 논제는 토론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므로 잘못 선정하여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마련된 논제를 다듬으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논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토론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논제로 담지 못하면 토론자들은 실제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수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어느 한 쪽에게 유리하지 않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제를 제시해야 공평한 입장에서 토론이 역동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논증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을 설득력 강화의 필수 요소로 보았다. 그는 상대를 설득하는 세 가지 요소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들었는데 그중 로고스는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 능력¹¹⁾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은 중세의 침체기를 거쳐 1950년대 카임 페렐만이 ‘신수사학’이라 부르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한 틀민으로 대표되는 영어권의 연구 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신수사학의 창시자인 페렐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부활시키면서 그 전통을 다시 잇고자 하였다. 페렐만이 『논증개론:신수사학』을 발표했던 때는 ‘냉전기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적·이념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고, 그는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을 이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도구는 바로 대화’(미에치슬라브 마넬리, 2006:25)임을 역설했다.

한편,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17~18세기 독일, 영국,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의 사적 모임을 ‘공론장(public sphere)¹²⁾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그는 ‘공론장(public sphere)’에서의 문화, 예술,

11)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논증되었을 때 가장 잘 믿는다(아리스토텔레스, 2015:33).”고 했다.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적 주요 현안은 아고라에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법정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때 자신의 주장에 대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논증이 필요했을 것이다.

12) 하버마스는 그의 교수 취임 논문인 『공론자의 구조변동』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예로 살롱과 커피하우스를 들었다. “18세기 처음 10 년간에 이미 런던에는 3천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생기는데, 이들 모두는 고정 고객의 핵심층을 가지고 있었다(상게서, p. 115).”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부르주아 계층들이 모임을 위해 단골 커피하우스를 정해서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었다.

정치, 시사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여론을 형성하였고, 국가·국왕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결을 통해 지배원칙을 무력화하여 근대민주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음을 밝힌다(위르겐 하버마스, 2016:107-132).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¹³⁾은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가 이루어졌던 아고라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이나 무력과 같은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공론장(public sphere)에서의 논증을 통한 활발한 토론의 과정과 결과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하버마스는 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토론에서의 논증 개념을 정립하고 논증 방식을 살핀 후, 논증 구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논증의 조건을 적용하여 조건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통해 부적합한 논증을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증으로 바꿀 것이다.

1) 논증의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를 뜻한다. 하병학(2000)은 ‘논증’의 의미를 한자어 ‘논증(論證)’에서 찾았는데, ‘언어의 영역(言)’, ‘언어의 묶음(論)’, ‘언어의 증명(證)’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증의 개념을 이끌어 냈다. 언어의 영역(言)에서 논증은 ‘말’과 ‘글’의 영역임을 밝히고, 언어의 묶음(論) 측면에서는 논증이 여러 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언어 체계가 됨을 말하였다. 또한 언어의 증명(證)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진실이거나 참임을 밝히는 것이 논증이라고 하였다(권회경, 2008:10 재인용). 논증의 영어 표현인 ‘argument’의 어원은 라틴어 ‘arguere’인데, ‘arguere’의 본래 의미는 ‘회개 하다’였다. 이 의미가 논리학의 용어로 활용되면서 투명하게 ‘보여주다’, ‘분명하게 하다’, ‘확신하다’, ‘증명하다’ 등의 논리적

13)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논증은 상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개인주의로 인해 분산된 민의를 강제적인 힘이 아닌 이성을 통해 한데 모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논증은 발전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도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Richard Andrews,1995:2, 권회경, 2008:10 재인용).

과거 전통적인 논리학에서의 논증의 개념은 논리 형식에 중점을 두고 명제들의 결합의 타당성 여부, 참과 거짓의 진위 여부를 증명함에 두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논리학에서는 논증을 전제와 결론이라는 명제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증은 전통 논리학이 아닌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논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이란 논증을 통해서 어떤 논제에 대해 분별력 있는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Freely, 1981:2)’이고, ‘논증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것(Ziegemuller & Kay, 1997:5)’을 의미한다. Van Eemeren 등(1996:5)은, 논증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 (또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그 입장을 청자 또는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또는 감소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 행위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우즈(Wood, et al., 2000:2, 박준호, 2006:275 재인용)는 ‘논증이란 어떤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는 일로, 둘 이상의 진영에 의해서 발언되는 언어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이라고 보았다.

틀민은 ‘자료(data)로부터 정당화(warrant)를 통해 주장(claim)을 도출하는 과정(Stephen E. Toulmin, 1958:162)’을 논증이라고 보았고, 페럴만은 ‘어떤 주장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동의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 기술(필립 브로통·질 고티에, 2006:40)’이라고 논증을 정의하였다.

제임스 크로스화이트(1996:51)는 ‘어떤 논증도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의 과정, 즉 질문과 대답, 도전과 대응, 긍정과 부정의 과정이라고 제안하는데, 이것들 모두는 요구와 응답이라는 일반 범주의 하위분류이며,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위이다’고 하였다. 그는 ‘논증 행위의 목표는 사회적 행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즉 모든 논증 행위는 청중에 기초하여 전개된다.’¹⁴⁾고 보았다. 피셔(2001:235)는 ‘비판적 사고의 맥락에서 논증이란 용어는 일련의 주장을 가리키는데, 이 주장들 가운데 일부는 결론 격인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된다. 근거는 독자나 청자가 결론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다.’고 했다.

14) 상계서, p. 36.

Williams와 Colomb(2012 : 45)은 ‘해결 방식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들이 상의 사람들이 함께 풀려고 한다. 각각의 해법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질문, 반대, 대안에 대해 대답하고 대응한다.’고 논증을 정의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기준을 통해서 볼 때 논증은 담화 상황에서 청자인 상대가 있어야 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언어를 사용하여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며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에서의 논증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논증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믿음도 상대로 하여금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판단의 과정에서 논증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2) 논증의 방식

논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추론 방식은 연역 추론과 비연역 추론이 있다. 연역추론은 삼단논법이, 비연역추론은 귀납추론과 유비추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추론이란 이미 밝혀진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다.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유의 과정으로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추론이 심리적 과정이라면 논증은 언어 즉 말과 글로 표현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을 위한 추론의 방식으로 연역적 추론인 삼단논법을 귀납적 추론인 예시에 의한 논증을 제시한다. 연역적 추론인 삼단논법은 일반화된 사실인 대전제와 특정한 사례인 소전제, 마지막 결론의 삼 단계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귀납적 추론인 예증은 설득하려는 대상과 유사한 또 다른 경우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1) 연역 추론

연역 추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여 특수하고 개별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 추론 방식이다. 연역 추론은 일반적 원칙인 대전제가 참이라면 거기에서 연역되어 추론된 결론도 참이라는 확실성이 보장된다.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방법은 삼단 논법으로 학술적인 증명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다. 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기본 형식을 갖는다.

일반적인 경우 연역추론인 삼단논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고전(古典)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대전제) - 일반화
'홍부전'은 고전(古典)이다.(소전제) - 일반화에 포함된 특정 사례
'홍부전'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결론) - 결론

이러한 삼단논법과 달리 '생략삼단논법'은 삼단논법의 세 단계 중 어느 한 단계가 생략된다. 예를 들면, '홍부전은 고전(古典)이다. 왜냐하면 홍부전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에서는 대전제인 '고전(古典)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가 생략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2017:202)는 '논의가 길어지면 논지가 모호해질 수 있고, 자명한 것을 말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므로 생략삼단논법처럼 한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논증을 활용할 수 있다. '못 배운 자가 군중 앞에서 말을 더 잘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여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논증에서도 일반적 진리라고 볼 수 있는 대전제를 생략하거나, 특정 사례인 소전제를 생략하거나, 대전제와 소전제를 전제로 묶어 한 문장 안에 전제와 결론을 함께 제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생략삼단논법을 논증에서 자주 사용한다.

(2) 귀납 추론

귀납 추론은 다수의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주장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추론 방법이다.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거기서부터 일반적 사실이나 상황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 귀납 추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예시에 의한 논증이 있다. 이 논증은 설득하려는 대상과 유사한 또 다른 경우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연역 추론의 대전제인 ‘고전(古典)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많은 전제들의 예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전(古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익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뜻한다. 이러한 고전에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다수의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부전’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삼국지’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홍길동전’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파우스트’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아라비안나이트’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고전(古典)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고전에는 삶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결론은 고전(古典) 작품에 공통적으로 담긴 세상의 보편적 진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귀납추론에서의 결론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반적 진리인 연역추론의 대전제가 되어 다시 특수한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귀납 추론은 개별적 사실들을 계속 관찰하거나 실험하여 그 사실들로부터 어떤 원리나 법칙, 공통점을 발견하려 애쓴다. 즉, 귀납적 사고의 결과가 보편적 인

식이 되는 것이다. 귀납 추론의 결과 얻어진 보편적 인식은 연역 추론의 대전제가 된다. 이러한 대전제를 통해 다시 개별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의 영역은 점점 확장될 수 있다.

(3) 유비 추론

유비 추론은 유사한 사례를 근거 삼아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자신의 주장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비유를 사용한 추론으로 유추라고도 한다. 특수한 두 대상의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낯선 대상을 익숙한 대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추하고자 하는 두 대상은 개연성을 가질 뿐, 완벽하게 일치하는 필연성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사례들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을 비교, 해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인간의 심장을 펌프에 비유한다든지, 학년이 올라가는 것을 계단을 오르는 것에 비유한다든지, 독단적인 정치가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비 추론을 반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비유사성(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유비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유사성이 아닌 비유사성을 제시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술과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에 대한 반론으로 술과 게임은 청소년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 법적 처벌의 정도, 판매 금지의 정도가 다르고, 게임의 경우는 술처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보다 비유사성이 크다면 반론의 여지도 클 것이다.

3) 논증의 구조

논증은 청자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논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논증의 요소들이 여러 개의 문장 안에서 적절히 배합되어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형성했을 때, 논증은 상대를 설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교육자이자 법학자였던 스티븐 툴민은 주장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면 어떤 비판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툴민의 논증은 전통 논증의 비실용성을 극복한 실용논증으로 현실 문제 해결의 필요에 의해 제시된 사고 모형이므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툴민은 논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이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전제, 소전제, 결론과 같은 단순한 논증 형식은 분명하고 상세한 논증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음과 대전제와 소전제의 ‘전제’라는 단일 명칭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 과정에서 논증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표 II-4> 툴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요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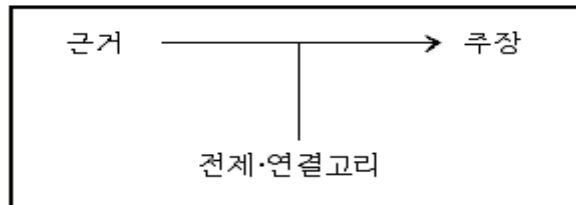
툴민의 논증 요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요소
주장(Claim)	결론
근거(Data)	소전제
전제·연결고리(Warrant)	대전제

툴민의 논증은 법정에서의 수많은 담화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하나의 논증 요소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을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세 과정으로 나누었지만 툴민은 논증을 여섯 개의 요소로 나누고 구조화하였다. 논증의 필수 요소인 세 요소는 전통적 논증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을 바탕으로 하며, 추가된 요소들은 논증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가된 요소에는 세부근거(Backing), 반박(Rebuttal), 확신정도(Qualifier)가 있다.

<표 II-5> 툴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요소에 대한 설명¹⁵⁾

툴민의 논증 요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요소	논증 요소에 대한 설명	
주장(Claim)	결론	논증의 결론	
근거(Data)	소전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자료·정보	
전제·연결고리(Warrant)	대전제	전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편타당한 이유, 원리, 원칙
		연결고리	주장과 근거와의 관련성
세부근거(Backing)	·	근거나 전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	
반박(Rebuttal)	·	주장이 틀릴 수 있는 상황	
확신정도(Qualifier)	·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로 믿는지에 대한 수준	

툴민은 주장을 건전하고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의 논증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요소들은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해리의 머리카락은 검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해리의 머리카락은 사실 붉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은 후 다시 ‘너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질문은 주장과 근거를 잇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Warrant’는 논증 구조 안에서 보편타당한 이유인 경우는 전제로, 주장과 근거를 잇는 경우는 연결고리로 볼 수 있다. 툴민은 논증에서 ‘전제·연결고리’를 주장, 근거와 함께 논증의 필수요소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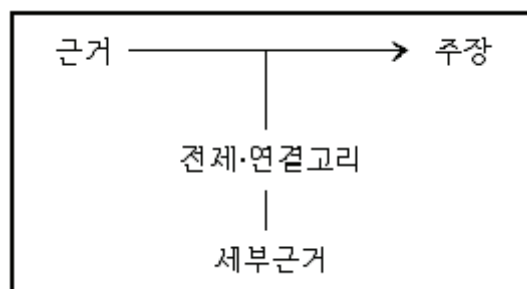
[그림 II-3] 툴민의 3단계 논증 구조¹⁶⁾

15) ‘전제·연결고리’인 ‘Warrant’는 담화 상황에 따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로 사용될 경우는 ‘전제’로, 주장과 근거가 서로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제시하는 경우는 ‘연결고리’로 보았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Warrant’를 ‘전제·연결고리’로 제시하였다.

16) 스티븐 E. 툴민, 『논변의 사용』,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p. 165.

틀민의 여섯 가지 논증에 대한 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과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상이하다. 틀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한다. 틀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서 전체인 대전제와 소전제를 전체를 지칭하는 ‘전제’와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근거’로 분리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전제’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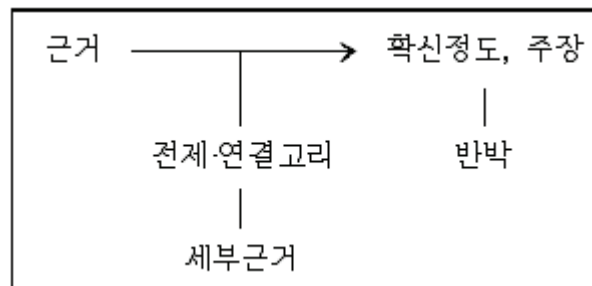
틀민의 논증 구조의 특징은 논증 요소들을 세분화하였다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략삼단논법에서 대전제를 생략하여 두 단계로 논증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틀민은 실제 담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려면 논증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논증 과정에서 논증 단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언어 사용, 시간적 측면에서 경제적일지 모르나 정확한 논증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틀민은 근거를 통해 주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제가 사용되고, 전제가 다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세부 근거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페테르손은 로마가톨릭 교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페테르손은 스웨덴인이다.’이고, 그에 대한 전제는 ‘스웨덴인은 거의 확실하게 로마가톨릭교도가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는 ‘로마가톨릭교도인 스웨덴 인의 비율은 소수이다.’가 될 것이다(틀민, 2003:179-183). 이러한 틀민의 4단계 논증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4] 틀민의 4단계 논증 구조¹⁷⁾

17) 상계서, p. 183을 참고하여 4단계 논증 구조로 제시하였다.

틀민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에 대해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통계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100%’, ‘95%’, ‘5%미만’, ‘제로’와 같은 표현들이, 법조항에서라면 ‘무조건적으로’, ‘예외적인 조건들이 없는 경우’,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어떠한 상황에서도’와 같이 대체해야함¹⁸⁾을 지적하였다. 그는 ‘필연적’, ‘결정적’이라는 용어의 다른 한 편에 있는 ‘잠정적’, ‘개연적’, ‘임시적’, ‘조건적’¹⁹⁾이라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즉, 실제 담화 상황의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100%’, ‘모든’, ‘필연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반박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림 II-5] 틀민의 6단계 논증 구조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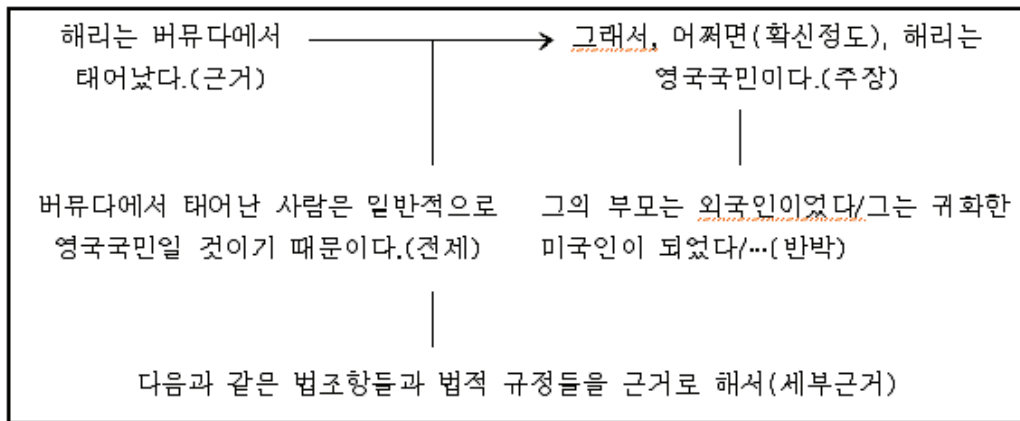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반박(Rebuttal)은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제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6단계의 논증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II-5]와 같다. 이는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주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주장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는 경우 등,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미리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틀민은 이러한 여섯 단계의 논증 구조를 증명할 다양한 예들을 제시한다.

18) 상계서, p. 185.

19) 상계서, p.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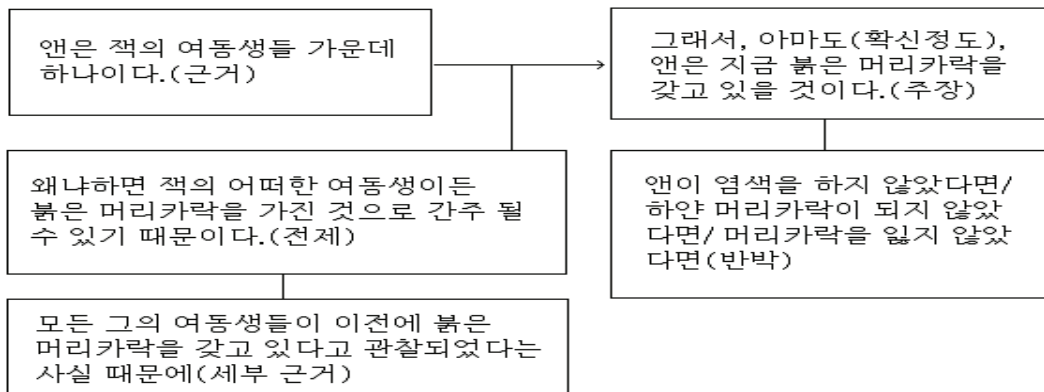
20) 상계서, p. 172.



[그림 II-6] 틀민의 6단계 논증 구조의 예시²¹⁾

이 논증 구조에서 ‘해리가 영국 국민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해리는 버뮤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전제는 ‘버뮤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영국 국민일 것이기 때문이다.’이고, 전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조항들과 법적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측의 반박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외국인이었다/그는 귀화한 미국인이 되었다/...’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강도는 ‘어쩌면’으로 100% 주장에 대한 확신을 하는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틀민이 제시한 또 다른 예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논증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1) 상계서, p. 173.



[그림 II-7] 툴민의 6단계 논증 구조의 예시²²⁾

이 논증에서는 ‘앤은 지금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앤은 책의 여동생들 가운데 하나이다.’를 제시한다. 그에 대한 전제는 ‘왜냐하면 책의 어떠한 여동생이든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를, 전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는 ‘모든 그의 여동생들이 이전에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관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를 든다.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반박은 ‘앤이 염색을 하지 않았다면/ 하얀 머리카락이 되지 않았다면/ 머리카락을 잃지 않았다면’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확신 정도는 100%라는 필연적인 경우가 아닌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툴민의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단계 논증을 세분화하여 실제 담화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논증 요소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법률 소송 과정에서의 담화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논증 구조를 밝혀냈다. 툴민의 논증은 오늘날 많은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담화를 다루는 토론에서도 유용하게 논증을 구성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툴민의 논증을 토론에 적용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논증의 방향이다. 툴민은 근거를 통해 주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논증을 전개하였는데, 토론에서의 논증은 가장 중요한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해리는 버뮤다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해리는 영국국민이

22) 상계서, p. 205.

다'가 아니라 '해리는 영국국민이다. 왜냐하면 해리는 버뮤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이다. 즉, 토론에서는 근거를 통해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근거(Data)와 세부근거(Backing)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틀민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 정보를 '근거(Data)'로 보고, 전제·연결고리(Warrant), 근거(Data)를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 정보는 '세부근거(Backing)'로 보았다. 사실, 자료, 정보라는 측면에서 '근거'는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셋째, 전제·연결고리(Warrant)에 대한 성격 규명이다. 전제·연결고리(Warrant)는 연구자에 따라 정당한 이유, 추론규칙, 보장, 보증, 전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arrant'의 성격을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편타당한 이유, 원리, 원칙인 '전제'로, 다른 하나는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잇는 '연결고리'로 본 것이다.

또한 'Warrant'를 보편타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원리, 원칙과 같이 규명할 경우, '정당한 이유', '보편타당한 이유'와 '정당한', '보편타당한'을 제외한 '이유'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양상적 한정어(Qualifier)는 대부분의 토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념 없이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으므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 '어쩌면'과 같은 한정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애매하게 펼치지 않는 것이다.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어는 토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확신정도를 논증 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반박(Rebuttal)이라는 용어 문제이다. 반박이라는 용어는 상대 토론자를 대상으로 한 논쟁 상황에 맞게 다소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반박은 논증이 상대와의 대립적 충돌과 같은 논쟁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반대 주장을 펴는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상호논쟁적'이 아닌 '상호교섭적'인 상황에서 보나온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논증 요소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조셉 윌리엄스는 그레고리 콜럼과의 공동 저서

인 『논증의 탄생 The Craft of Argument』에서 찾을 수 있다. 윌리엄스의 논증 이론은 바흐친의 ‘대화주의(dialogism)’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20세기 후반 언어학, 문학, 심리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이론을 구축한 러시아의 문예 이론가인 바흐친은 ‘언어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 타협이 아니라 모순,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 과정(김옥동, 1988:156)’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 또한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되는 영혼이나 생명과도 같이 구체적인 실체로 파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실제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논의된 초언어학은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정된 언어 체계인 ‘랑그(langue)’를 그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구체적인 발화 상황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구현되는 실체로서의 언어인 ‘파롤(parole)’을 대상으로 한다(김승중, 1995:271, 김혜진, 2014:22 재인용).

바흐친은 일상 언어의 특징을 어휘나 구조에서 찾지 않고 맥락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상적 삶의 모든 발화는 일종의 객관적인 사회적 생략 삼단논법(Bakhtin, 1987:101)’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모든 발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인 집단 문화를 그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발화는 ‘발화자’, 증인으로서의 ‘청취자’, 그리고 발화의 대상인 ‘주인공’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간주한다. 그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여 대화 주체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독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말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바흐친의 대화는 단지 화자와 청자가 안정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단일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오히려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상호침투하면서 대화참여자들이 견지했던 애초의 의미가 지워지거나 수정되는 충돌과 생성의 공간이자 새로운 관계를 맺는 무대(Joseph M. Williams · Gregory G. Colomb, 2007:521)로 본다.

바흐친의 이론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여 윌리엄스는 틀민의 논증 요소의 여러 단점을 보완한 논증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틀민의 여섯 단계 논증을 다섯 단계로 축소한다. 그는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양상적 한정어(Qualifiers)와 전제, 근거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인 보강(Backing)을 빼고,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원칙인 ‘전제(Warrant)’를 넣는다. 틀민이 사용했던 방향성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없애고 논증요소들을 묶는다. 논증 순서도 ‘근거(Data) → 주장(Claim)’이 아니라 ‘주장(Claim)-이유(Reason)-근거(Data)’로 제시한다. 또한 ‘반박(Rebuttal)’은 상대의 반론을 먼저 수용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반론수용과 반박(Acceptance of counter argument and rebuttal)’으로 바꾼다. 그의 논증 구조는 오랫동안 글쓰기 수업 지도를 통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토론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묻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²³⁾에 대한 답을 통해 논증을 만들 수 있음을 말한다.

- 주장은 무엇인가?
- 주장을 믿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이유와 주장을 연결시켜주는 원칙은 무엇인가?
- 그러면 ~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표 II-6> 조셉 윌리엄스 · 그레고리 콜럼의 논증 요소²⁴⁾

논증 요소	논증 요소에 대한 설명
주장(Claim)	이유가 뒷받침하는 진술. 주요주장.
이유(Reason)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하위주장.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으로 스스로 생각해 낸 것.
근거(Data)	바깥세상에서 가져 온 것. 객관적 사실, 자료, 정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전제(Warrant)	주장과 이유를 이어주는 보편적인 원칙. 속담처럼 독자에게 익숙함.
반론 수용과 반박 (Acceptance of counter argument and rebuttal)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인 반론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

23) 다섯 가지 질문은 다섯 가지 논증의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질문을 통해 논증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2007), 전제서, p. 84.

24) 상계서, pp. 73-84.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논증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윌리엄스의 논증 구성에는 틀민의 확신정도가 빠져 있다. 또한 세부근거(Backing)는 따로 두지 않고 근거(Data)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거와 세부 근거는 둘 다 객관적 사실, 자료,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세부 근거를 근거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제(Warrant)는 일반적인 규칙, 원리, 이론에 대해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제(Warrant)와 이유(Reason)로 나누고 있다. 그는 틀민의 'Warrant'를 '전제'로 보았고, 전제(Warrant)와 근거(Data) 사이에 주장의 하위 주장인 자신의 의견, 견해를 다룬 '이유(Reason)'를 제시하였다. 도표를 통해 다섯 가지 논증 요소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8] 조셉 윌리엄스 · 그레고리 폴럼의 논증 구조²⁵⁾

윌리엄스의 5단계 논증은 토론에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토론의 논증 과정을 보면 먼저, 자신의 주장을 한 후,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이유와 주장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의 반론을 미리 예측하여 제시한 후 이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한다. 이러한 논증 과정은 다음의 예²⁶⁾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 상계서, p. 79.

이성끼리의 결혼을 원치 않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오늘날, 동성끼리의 결혼도 결혼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전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주장) 왜냐하면 성적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유) 동성결혼 허용은 성적소수자의 인권 회복 뿐 아니라 인류의 평등권, 자유권을 확대하는 것이다.(근거) 물론 동성결혼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반론 수용) 하지만 종교, 도덕, 윤리가 개인의 행복할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는 엄격한 인권유린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사회는 허용해야 한다.(반박)

윌리엄스는 논증의 표준틀은 ‘주장+이유+근거’임을 주장하면서, ‘근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밖에 존재하는’ 세상에 있고, ‘이유’는 우리 머리 ‘속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근거’를 뜻하는 ‘evidence’라는 의미가 ‘논증의 바깥에(e-) 존재한다(-vide)’는 뜻이므로 근거는 논증 안에서 가져올 수 없다.’²⁷⁾고 하였다.

틀민의 논증 구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윌리엄스의 논증 구조는 토론이나 주장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틀민이 주장(Claim), 근거(Data), 전제·연결고리(Warrant)를 논증의 필수 요소로 본 반면, 윌리엄스는 주장(Claim), 이유(Reason), 근거(Data)를 필수 요소로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논증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전제·연결고리(Warrant)’를 틀민은 논증의 필수 요소로 본 반면, 윌리엄스는 그것이 논증에서 진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말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전제’는 주장과 이유를 이어주는 보편적인 원칙²⁸⁾으로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 내에서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코드가 담긴 속담²⁹⁾과 같은 관용어구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26) 필자의 원고를 윌리엄스의 5단계 논증 구조에 맞춰 재구성하였다.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5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 2015, pp. 101-106.

27) 상계서, pp. 519-520.

28) 상계서, p. 255.

29) 상계서, p. 260.

Ⅲ. 국어과 토론의 실태 분석

1.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이다(정구향, 2010:83).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여타 선진국들의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달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교수·학습 되고 그 내용이 평가에 반영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해당 교과교육에 관한 교육 공동체의 이념을 반영하고, 학교라는 제도 내에서 해당 교과교육을 수행할 목표와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하며, 실제 수업과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서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김창원, 2012:156). 이처럼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 방법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념을 반영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교과서, 수업, 평가와도 밀접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비해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제정된 후 2년 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탄생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을 제외한 각론 부분에서 2011년 수정 고지되었으며, 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기도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정·보급되어 교과서 제작·선정·보급은 물론 교과 교수·학습에 혼선을 일으키고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되는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 정책 변화로 인한 교육 방향 수정, 기업·대학의 요구, 교육에 대한 세

계적인 변화의 흐름 등 교육 내외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과정만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도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를 미래 사회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자 이정표인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는 토론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에 앞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각각에 대한 검토 및 두 교육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토론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요소와 방향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과 가장 밀접한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듣기·말하기 영역 토론 성취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변화³⁰⁾

구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듣기] 토론에서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5~6학년군 듣기·말하기]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6학년군 듣기·말하기]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5학년 말하기]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를 정하여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한다.		
중학교	[7학년 말하기]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3학년군 듣기·말하기]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1~3학년군 듣기·말하기]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고등학교	[10학년 듣기]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1학년 국어Ⅱ]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화법과 작문]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1학년 듣기·말하기]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화법과 작문]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신문하며 토론한다.
	[10학년 말하기]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0) 조선덕(2017:21)을 참고하여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였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년제가 학년군제로 바뀌고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영역이 통합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었던 토론을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군을 시작으로 하여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학년군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토론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듣기’, ‘말하기’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듣기·말하기’로 영역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토론 요소들의 위계화와 유기적 연계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론 요소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론 교육에 대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주장과 근거, 논제’(5학년), ‘인터넷 토론’(7학년), ‘논제, 토론 유형, 쟁점’(10학년)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5학년에서 다루었던 ‘논제’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빠져있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인터넷 토론’을 다루고 있어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습 내용의 위계화, 토론 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제에서 학년군제로 바뀐 2009 개정 교육과정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단계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방법’(초등학교 5~6학년), ‘논제, 토론의 과정과 결과 평가하기’(중학교 1~3학년), ‘토론의 본질과 원리 이해, 쟁점별 논증’(고등학교 1학년 국어Ⅱ), ‘필수 쟁점 분석, 쟁점별 논증 구성’(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을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토론 형식을 배우고 중학교 과정부터 점차적으로 토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논제에 접근하여 고등학교에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에 대해 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토론 요소들이 연합하지 않고 제각각 기능하고 있어 유기적 연계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서의 ‘토론 평가’는 ‘논증’에 대한 학습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토론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는 그전 학년 군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어 위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인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론 요소들의 위계화와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성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규칙 지키기, 근거 제시’(5~6학년군), ‘근거 들어 논박하기’(중학교 1~3학년군), ‘쟁점별 논증 구성’(고등학교 1학년), ‘반대신문’(화법과 작문)을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토론의 핵심 요소인 ‘논증’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형식만이 아닌 내용에 충실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에서 ‘반대신문’을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여 토론의 입문, 기초 단계를 넘어서서 심화 단계에서 교차질의가 포함된 CEDA 토론을 교육 현장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론 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중요도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성취기준은 복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단문으로 세분하면 하나는 토론 형식에 대한 것으로 ‘절차와 규칙을 지키며 토론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토론 내용에 대한 것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이다. 이는 토론을 이루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었던 토론 형식인 ‘절차와 규칙을 지키며 토론한다.’는 중·고등학교 성취 기준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으나 내용을 이루는 ‘근거’에 대한 논증 부분은 상급 학년군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는 ‘근거’,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근거, 논박’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쟁점별 논증 구성’ 고등학교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에서는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위계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볼 때 토론 교육에서 논증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결과를 중시하는 지식 위주의 교사 중심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 활동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평가와 토론 지식에 대한 내용, 단계별 유기적 연계와 무관하거나 정책 토론에 한정된 내용은 성취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토론 과정과 결과 평가’, ‘토론의 본질과 원리 이해’, ‘인터넷 토

론’, ‘공동체의 문제 해결’이 성취기준에서 삭제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볼 때 토론의 이론은 토론의 실재를 위한 바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토론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직접 토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론 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전에 먼저, 토론과 관련이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앞으로 토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표 III-2>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비교³¹⁾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 역량 함양 교육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역량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일부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에 6개 핵심역량 제시 · 교과별 역량 제시,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국어과 교육 과정	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교육 · 성취기준 9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교육 · 성취기준 82개
	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교육 · 성취기준 5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교육 · 성취기준 51개 (신설) 말하기 불안 대처 · 연극교육 (소단원 구성, 체험 중심의 연극 활동)
	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교육 · 성취기준 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교육 · 성취기준 26개 (신설) 문제해결을 위한 독서/작문

31) 교육부 보도 자료(2015. 9. 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를 참고하여 토론 교육과 관련된 핵심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두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했던 인재상이 ‘창의적 인재’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강화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때 역량이란 학습자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이광우 외, 2009; 소경희, 2007, 2009; 박순경 외, 2014, 서영진 2015, p. 275. 재인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6개의 핵심 역량을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향유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으로 이는 토론 학습을 통해 토론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핵심 역량은 갖출 수 있게 된다. 토론 요소와 토론 기능이 국어 교과에서 키우고자 하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셋째, 2015개정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이 2009 개정교육과정보다 축소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등 전체 183개(초등 97, 중등 55, 고등 31)였던 성취기준이 24개가 축소된 159개(초등 82, 중등 51, 고등 26)로 제시되었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워 온 지식이 실제 삶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여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을 통해 핵심 역량을 기를 것을 요구한다. 성취기준의 축소는 수업 내용, 교과서 분량 감소로 이어져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연극 교육과 독서 교육이 중시되었다. 연극 교육과 독서 교육은 토론과 연계해 통합 교육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연극 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4차시에 불과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대단원, 중등 소단원으로 신설되고, 체험 중심의 연극 활동을 제시하고 있

어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시간을 통해 연극을 배우고 무대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극 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구체화하는 학습 방법으로 토론 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극을 토론과 연계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상황을 극으로 재현하고, 그 해결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 토론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제적 독서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학생 한 명이 수업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글로 쓰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독서 활동이 가능할 것이고, 책을 읽은 후 생각 나누기를 통해 토론거리를 찾고 이에 대해 토론한 후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I’에서 다루었던 ‘말하기 불안 대처’가 중등으로 내려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작문(고등)’이 신설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을 위한 관련 성취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하기 불안 대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신장을 위해 실제 다양한 듣기·말하기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사 주도 하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학생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생 스스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연기해야 하는데 말하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말하기 불안 대처’를 통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없앤 후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작문’은 토론 전 관련 자료 읽기, 토론 중 듣고 말하기, 토론 후 쓰기에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토론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필요하다. 토론 전 문제 상황과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서 읽는 활동인 독서와, 토론 후 토론 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내용의 논증적인 글쓰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신설됨으로 토론과의 연계를 통한 영역 통합적인 교육 활동에 매우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

왔다.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육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사회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래 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국어 핵심 능력을 토론 교육을 통해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과와 이과를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인문·사회와 과학을 골고루 학습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론 교육은 교과 내 영역 통합을 넘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타 교과 간의 통합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³²⁾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토론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살펴보려고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이 초등학교 5~6학년군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로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다루게 되는 학년군 간의 위계를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득’ 담화 유형별 학년군 간 위계

학년군	토론의 위계 정도	
5-6학년군	토론	절차와 규칙, 주장과 근거
중1-3학년군		논리적 반박
고1		논증 구성

<표 III-3>을 통해서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토론을 다루게 되는 것은 5~6학년군으로 토론의 절차와 규칙, 주장과 근거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32)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있다. 이는 기초적인 토론 입문 수준의 토론 형식과 내용에 대한 습득이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학교 1~3학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룬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논증 구성에 대한 성취 기준을 제시한다.

<표 III-4>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토론 요소에 따라 토론 성취기준을 분류한 것이다.

<표 III-4> 2015 개정 교육과정 토론 요소와 토론 성취기준³³⁾

토론 요소		토론 성취기준
토론	유형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논제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논증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9국01-09]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9국01-10]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9국02-05]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태도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4-06]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1-12]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10국01-06]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토론 성취기준은 크게 토론의 유형, 논제, 논증, 태도로 나눌 수 있는데, 토론 유형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다루고 그 외에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33) 성취기준 [6국01-03]은 6학년 국어 첫 번째 영역인 듣기·말하기의 세 번째 성취기준이라는 의미이다.

논제, 논증, 태도 부분의 성취 기준이 주를 이루었다.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의 수가 가장 많은 논증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하기, 중학교 3학년에서는 타당한 근거 들기, 논박, 논증 방법 파악하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쟁점별 논증 구성, 타당한 근거를 다루고 있다. ‘논제’에 관한 성취기준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주제 파악하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논제에 따른 쟁점별 논증 구성,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찾기가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태도’ 관련 성취기준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공감하며 듣는 태도 지니기, 국어 바르게 사용하기, 중학교 3학년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하기가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다.

토론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토론 요소별로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년의 성취기준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되어 토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화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영역과 토론 관련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역과 학년(군)별 토론 요소

학년(군) 영역	학년(군)별 내용 요소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듣기·말하기	토론의 절차와 규칙/ 주장과 근거/ 추론하며 듣기/공감하며 듣기	논리적 반박/ 말하기 불 안애의 대처/ 설득전략 분석/비판하며 듣기/배 려하며 말하기	논증구성
읽기	사회·문화적 화제/ 주장이나 주제 파악 하기	사회·문화적 화제/ 논증 방법 파악/참고 자 료 활용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 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화 제/비판적·문제해결적 읽기
쓰기	주장하는 글 [적절한 근거와 표현]	주장하는 글 [타당한 근거와 추론]	설득하는 글
문학	작품의 가치 내면화하기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영역 중, 토론 관련 요소는 듣기·말하기가 가장 많

고 읽기, 쓰기, 문학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전체 영역은 크게 언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와 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언어 기능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가 토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론 과정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총체적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대의 주장을 들으면서 글로 쓴 후, 그 내용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활동은 개별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문학은 작품 속 인물 간의 갈등 문제를 토론 논제로 끌어와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역과 토론 관련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기능을 첨가하여 관련되는 내용끼리 묶어 범주화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2015 개정 교육과정 토론 내용 체계

토론 핵심 개념		토론 내용 요소	토론 기능
토론	유형	토론의 절차와 규칙	문제 발견하기, 청자분석하기, 자료 수집하기, 추론하기, 비판하기, 상호교섭하기,
	논제	사회·문화적 화제, 주제 파악하기,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화제, 작품 가치 내면화하기,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	
	논증	주장과 근거, 추론하며 듣기, 논리적 반박, 설득 전략 분석, 비판하며 듣기, 논증 구성, 논증 방법 파악, 비판적·문제해결적 읽기, 주장하는 글(적절한 근거와 표현), 주장하는 글(타당한 근거와 추론), 설득하는 글	
	태도	공감하며 듣기, 말하기 불안에의 대처, 배려하며 말하기, 참고 자료 활용	

<표 III-6>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토론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토론을 크게 네 개의 범주인 유형, 논제, 논증, 태도로 분류할 수 있다. 토론의 절차와 규칙은 토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토론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교실토론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토

론 유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군)별 내용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논제와 논증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토론 태도는 말하기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상호교섭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토론 내용으로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비합리적,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교섭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및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교과서 분석

교과서는 교육과정, 교사, 학생, 수업 상황, 사회적 필요나 요구 등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기능하는 구체적인 실체이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며, 교수·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하나의 자료로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노명완 외, 200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주도형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정부주도형 표준적 학습 매체로 보던 과거의 교과서에 대한 접근 관점이 오늘날은 교과서 편찬이 민간주도형의 검인정 제도 도입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국정이 아닌 검인정이 주된 흐름으로 교육이 획일적인 시각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서 편찬 제도도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교과서 편찬도 과거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교과서 자유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 도구 중의 하나인 교육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출판사에서 서로 다른 집필진에 의해 교과서가 편찬되다보니 현행 국어교과서 중에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정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다양한 출판사에서 다양한 집필진들이 교과서 편찬을 한다.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교과서는 교육부 주도하에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과서가 편찬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주도형의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단일한 교재로 사용하였던 교과서는 오늘날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다양한 학습 도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를 수업 현장에서 하나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을 교과서가 달성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 달성에 교과서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하는 2011년 최종 수정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는 2019년에, 중학교 3학년은 2020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는 2018년인 올해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보급되었다. 현재 토론 단원이 수록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판된 것이어서 교과서 분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개정되어 교육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과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2020년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가 개정되어 출판되면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토론 단원 분석은 본 연구에 앞서 토론 교육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게 하므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현재 교과서의 토론 단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토론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토론 교육이 분절되지 않고 단계별 위계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초등학교는 토론을 처음 접하는 입문 단계로 볼 수 있고, 중학교는 토론을 초등학교 때 접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숙한 토론의 기본 단계, 고등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 토론을 접해 토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토론의 심화 단계로 볼 수 있다. 교과서 토론 내용이 상급 학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토론 교육 내용이 토론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 교육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교과서 분석에 앞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보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목표는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다. 이에 대한 하위 목표 중 국어 사용 능력 향상과 관련된 두 번째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로 되어 있다.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토론과 관련된 '설득'을 목표로 하는 담화와 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국어 교과는 언어활동(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과 문법,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통해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 교과에 담화의 한 유형인 '설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토론 역시, 토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토론 능력을 통해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가 토론 지식, 능력,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위계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분석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주 교과서인 『국어』와 보조 교과서인 『국어 활동』으로 구성된다. 『국어』에서 공부한 내용을 『국어 활동』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어』가 공부할 내용의 이론적 측면을 주로 다룬다면, 『국어 활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적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어』, 『국어 활동』은 한 학년에 모두 8권이며, 학기별로 4권씩이다. 5학년 과정을 예로 든다면 5-1㉔ 국어, 5-1㉔ 국어 활동, 5-1㉔ 국어, 5-1㉔ 국어 활동, 5-2㉔ 국어, 5-2㉔ 국어 활동, 5-2㉔ 국어, 5-2㉔ 국어 활동 8권이 한 학년에서 배울 교과서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위 분석에 앞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한 5개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토론 성취기준

영역		내용 성취기준	토론 요소
듣기·말하기	5-6학년군	(3)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5)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논증, 토론 절차, 토론 방법

위의 내용 성취 기준을 점검해 보면, 토론 절차와 토론 방법은 5-6학년군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고, 논증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서 교수·학습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토론 단원은 5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온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토론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꺾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토론의 요소 중, ‘논제, 논증, 말하기’를 담고 있는 토론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토론의 특성으로 ‘토론 참여자에는 사회자, 찬성편 토론자, 반대편 토론자, 판정단이 있다. 토론자는 토론 주제에 대한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토론이 잘 이루어지려면 토론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와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토론의 특성에는 앞서 토론의 정의에서 제외된 토론 규칙과 판정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토론의 절차를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다지

기, ‘판정하기’와 같은 순서로 제시하고 있고, 중간에 협의 시간을 두어 다음 발언에 대한 모듈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다.

<표 III-8>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순서와 주의할 점

토론 순서	찬성 편	반대 편	주의할 점
주장 펼치기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근거는 _____	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근거는 _____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반론하기	반대 편에 질문합니다. _____	찬성 편에 질문합니다. _____	상대의 주장과 근거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본다.
주장 다시기	최종적으로 _____	최종적으로 _____	반론하기에서 인정된 근거를 살려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재구성한다.
판정하기	이번 토론은 (찬성편, 반대편)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_____		토론 단계별로 잘된 점을 중심으로 평가한 뒤에 판정한다.

초등학교 토론에서의 ‘주장 펼치기’는 중·고등학교 토론 과정에서의 ‘입론’을, ‘반론하기’는 ‘반론’을, ‘주장 다시기’는 ‘최종발언’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 주의할 점으로 ‘주장 펼치기 :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반론하기 : 상대의 주장과 근거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본다.’, ‘주장 다시기 : 반론하기에서 인정된 근거를 살려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재구성한다.’, ‘판정하기 : 토론 단계별로 잘된 점을 중심으로 평가한 뒤에 판정한다.’를 들고 있다. ‘판정하기’에서 단계별 장점을 중심으로 판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쟁점을 확인하고 어느 편의 주장과 근거가 더 타당하고 논리적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논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제를 정해야 한다. 논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논제는 토론의 핵심이며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토론에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국어활동 5-2㉔에는 논제에 대해

‘토론 주제는 토론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대립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논제의 여러 조건 중 ‘학생의 흥미’와 ‘찬반대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논제인 경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제가 늘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논제 선정 시, 흥미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논제의 조건 중 필수 조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초등학교에서는 토론 ‘주제’를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도 가능하다고 본다. 토론 주제를 정할 때 ‘……은/는 ……는가 또는 ……은/는 ……어야/여야 한지와 같은 형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한다.’라고 토론 주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 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문문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의 팽팽한 대립이 힘들고, 공정한 토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9> 초등학교 토론 단원과 토론 논제

학년		단원	토론 논제
5-2㉔	국어	3. 토론을 해요	· 급식 순서를 번호 순으로 하자. · 학습 만화는 유익하다. ·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어 활동		· 인터넷에서 줄임말을 써도 된다.
6-1㉔	국어	2. 다양한 관점	· 회사의 신발 수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 콜럼버스의 항해는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구대륙 침략이다. · 부자가 행복하다?
	국어 활동		·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6-1㉕	국어	9. 주장과 근거	· 자연 보호와 자연 개발 · 기념일은 필요한가
6-2㉔	국어	6. 타당한 주장	·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끄시다.
6-2㉕	국어	9. 생각과 논리	·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

토론 논제는 토론 단원이 들어 있는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다수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논제가 토론에 적합한 논제인지는 논제 적합성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III-10>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의 적합성을 분석한 것이다.

<표 III-10>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적합성 분석

순번	토론 논제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 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 평서문
1	급식 순서를 번호 순으로 하자.	○	×	○	○	×
2	학습 만화는 유익하다.	○	○	○	○	○
3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	○	○	○	○
4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
5	인터넷에서 줄임말을 써도 된다.	○	○	○	○	○
6	회사의 신발 수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	○	○	○	○
7	콜럼버스의 항해는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구대륙 침략이다.	○	○	○	○	○
8	부자가 행복하다?	○	×	○	×	×
9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
10	자연 보호와 자연 개발	○	○	○	×	×
11	기념일은 필요한가	○	×	○	×	×
12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끄시다.	○	×	○	○	×
13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	○	×	○	×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토론 논제를 살펴보면 논제의 적합성에 어긋난 논제들을 볼 수 있다. ‘급식 순서를 번호 순으로 하자.’,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끄시다.’와 같은 청유문의 경우는 상대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형태이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청유문의 논제는 찬성과 반대가 강하게 대립하는 논쟁을 다루는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는 문장이므로 긍정 평서문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시된 논제 중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된 것도 긍정 평서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자가 행복하다?’와 같은 주제는 문장의 종결은 평서문으로 하면서, 물음표(?)를 넣어 의문문으로 문장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아 모호하다. 이 논제는 ‘행복은 부와 무관하다.’와 같은 평서문 논제로 바꿀

수 있다. 또한 ‘기념일은 필요한가’라는 논제도 문장 안에 물음표(?)를 넣지는 않았지만 의문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고 있어서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제도 ‘기념일은 필요하다.’와 같은 평서문으로 바뀌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연 보호와 자연 개발’은 토론할 소재만 제시하고 있어서 정확한 문장으로 다듬어서 제시해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 입장을 반영하여 ‘자연 개발이 자연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수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와 같은 논제 역시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해야 공정하고 팽팽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수정

순번	수정 전 논제	수정 후 논제
1	급식 순서를 번호 순으로 하자.	급식 순서를 번호 순으로 해야 한다.
6	부자가 행복하다?	행복은 부와 무관하다.
8	자연 보호와 자연 개발	자연 개발이 자연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
9	기념일은 필요한가	기념일은 필요하다.
12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끄 시다.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꺼야 한다.
13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

초등학교 토론 단원에 제시된 13개의 논제 중 논제의 조건에 어긋난 논제는 6개였다. 부적절한 논제를 토론에 사용할 경우,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아 토론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토론자들도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논제는 토론의 처음과 끝을 관장하는 중요한 토론 요소로 토론 수업 전, 논제 다듬기 과정을 통해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다듬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논증

토론 논제가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면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의 갈등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증이 필요하다. 논증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 과연 그럴까하고 의문을 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토론 지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내용보다 중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논증에 대한 5개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표 III-12>와 같다. 토론은 국어 교과 영역 중 듣기·말하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읽기, 쓰기 영역과도 관련이 깊다. 토론 교육의 최종 목표는 토론 능력 신장이고 궁극적으로는 국어 능력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표 III-1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논증 성취기준

영역	학년군	내용 성취기준	교수·학습 내용
듣기·말하기	5-6학년군	(3)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논증
읽기	5-6학년군	(3)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6)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쓰기	5-6학년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과 전 영역에서 논증을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다루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영역 중 특히 토론과 관련된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성취 기준의 핵심어를 살펴보면 ‘설득, 주장, 타당성, 판단’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 교과서의 토론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를 다룬 표이다.

<표 III-1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논증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학년	단원명(영역)	토론·논증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5-2 ㉠	국어	3. 토론을 해요 (듣기·말하기)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원탁토론이란 찬성과 반대로 나누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토론 방식이다.	주장, 근거, 근거 자료, 반론 예측과 질문, 반론에 대한 반박	근거자료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근거자료가 믿을 만한가?
	국어 활동				
6-1 ㉡	국어	9. 주장과 근거 (쓰기)	주장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말한다. 근거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주장, 근거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가?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출처는 믿을 수 있는가?
6-2 ㉢	국어	3. 타당한 주장 (듣기·말하기)	.	주장,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6-2 ㉣	국어	9. 생각과 논리 (읽기)	.	주장, 근거	근거는 믿을만한가? 근거는 사실인가? 근거는 정확한가?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토론과 논증의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5학년 2학기 3단원 토론을 해요'에서는 '토론'과 '원탁토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는 '토론'이라고 하고, '원탁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나누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토론 방식으로 보고 있다. 원탁토론은

토론(debate)의 형식 중 가장 토의(discussion)에 가까운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토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논증 요소는 초등학교 교과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2단계 논증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에 ‘토론을 해요’ 단원에서는 찬성측 토론자의 입론이 ‘주장’, ‘근거’, ‘근거자료’로 삼 단계 논증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4> 찬성측 입론의 논증 요소³⁴⁾

구분		토론 내용
찬성측 토론자		
주장 펼치기	근거1	
	근거1의 자료	
	근거2	
	근거2의 자료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토론에서의 논증의 단계를 ‘주장’, ‘근거’,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6-1㉔ 9. 주장과 근거’ 단원에서는 ‘주장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 ‘근거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근거’와 ‘근거자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안에는 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둘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과정의 논증 요소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5>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논증 요소 수정

순번	수정 전 논증 요소	수정 후 논증 요소
①	주장	주장
②	근거	이유
③	근거 자료	근거

34) 교육부, 『국어 5-2 ㉔』, 2017, p. 82.

다음은 논증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보고, 근거자료와 근거의 구분을 두지 않고, 문장으로 제시된 평가 내용을 핵심어로 바꾼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III-16 > 초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

순번	수정 전 논증 평가	수정 후 논증 평가
①	근거자료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1.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 2. 근거의 신뢰성 3. 근거의 사실성
②	근거자료가 믿을 만한가?	
③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④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가?	
⑤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출처는 믿을 수 있는가?	
⑥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⑦	근거는 믿을만한가?	
⑧	근거는 사실인가?	
⑨	근거는 정확한가?	

교과서 분석 결과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①, ③, ④) 근거의 신뢰성(②, ⑤, ⑦)이 각각 3회 제시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적절성(⑥), 사실성(⑧), 정확성(⑨)이 한 번씩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가 사실일 경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 개의 항목은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토론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논증 평가 요소를 수정하여 세 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토론은 토론의 입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어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듯이 토론도 각각의 영역이 개별적 목표 달성이 아닌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단원별로 통일되지 않고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기준 ‘쓰기(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에서 ‘이유’와 ‘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와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거’와 ‘근거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 단원에서는 논증의 단계를 ‘원인-결과’, ‘의견-근거’, ‘주장-근거’와 같이 이분법적인 단순 논증에 머물러 있어서 이에 대한 통일된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

2) 중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분석

토론은 국어 교과 영역 중 듣기·말하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나머지 영역과도 관련이 깊다. 통합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토론은 국어 교과 전 영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 토론 교육의 최종 목표는 국어 교과의 5개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통해 토론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토론 능력 신장이 궁극적으로는 국어 교과의 목표인 국어 능력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정에서의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한 5개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토론 성취기준

영역	내용 성취기준	토론 요소
듣기·말하기	(6)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논제, 토론 평가
읽기	(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논증
쓰기	(4)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논증
문학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논증

핵심적인 내용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하여 토론 요소를 추출해보면, 논제, 논증, 토론 평가가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토론과 관련하여 교수·학습해야 할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8>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단원과 통합 영역

순서	단원명	통합영역	소단원명
1	3.설득의 힘	듣기·말하기	(2) 다양한 논제에 대한 토론
2	4.토론과 말 문화	듣기·말하기	(1) 다수결의 원칙
3	2.세상을 바꾸는 힘	듣기·말하기/쓰기	(1) 마음 열고 토론하기 (2) 주장하는 글쓰기
4	2.생각과 생각을 나누다	쓰기/듣기·말하기	(2)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3) 열린 소통, 토론
5	4.문학과 삶	문학/듣기·말하기	(3) 김반장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6	1.작가의 태도와 토론	문학/듣기·말하기	(2)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7	4.문학과 토론의 만남	문학/듣기·말하기	(3) 토론의 세계
8	4.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쓰기/듣기·말하기	(1) 주장하는 글쓰기 (2) 토론하기
9	3.토론과 소통	쓰기/듣기·말하기	(1) 글로 소통하기 (2) 소통을 위한 토론
10	3.설득이라는 창과 방패	듣기·말하기	(1)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2) 광고, 우리를 설득하다
11	5.토론과 주장	듣기·말하기/쓰기	(1) 토론하기 (2) 주장하는 글쓰기
12	2.차이를 넘어서	듣기·말하기/쓰기	(1) 차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2) 냉장고의 두 얼굴
13	6.우리가 사는 세상	듣기·말하기/쓰기	(1) 토론, 세상을 말하다 (2) 나의 생각, 너의 생각
14	3.토론의 발견	듣기·말하기	(1)착한 사마리아 인 법, 필요한가 (2)토론의 실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모두 16종이 출판되었으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박)와 대교(장)를 제외한 14종이다. 토론 단원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루어지는데, 출판사에 따라 3학년 1학기의 경우는 국어⑤에, 2학기는 국어⑥에 토론 단원이 나온다. 14종 국어 교과서의³⁵⁾ 토론 단원과 소단원, 통합 영역을 살펴보면 <표III-14>와 같다.

35) 연구대상인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순번, 출판사, 학기, 저자이다. 여기서 ⑤는 3학년 1학기, ⑥은 3학년 2학기이다. 1(동아출판⑤, 전경원), 2(교학사⑤, 남미영), 3(천재⑤, 노미숙), 4(신사고⑥, 민형식), 5(미래엔⑥, 윤여탁), 6(창비⑥, 이도영), 7(신사고⑤, 우한용), 8(비상⑤, 김태철), 9(비상⑤, 이관규), 10(비상⑤, 한철우), 11(천재⑥, 박영목), 12(지학사⑤, 방민호), 13(동아출판⑤, 이삼형), 14(천재⑥, 김종철).

(1) 논제³⁶⁾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토론 논제에 대한 엄격한 검토 없이 교과서의 논제를 토론 수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교과서의 토론 논제를 살펴보면 토론의 승패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 수업 진행을 위해서 교사는 토론 논제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여 토론 논제가 부적절할 경우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바꾸거나 새로운 논제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논제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fact) 논제, 정책(policy) 논제, 가치(value) 논제로 구분된다. 먼저 사실논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쟁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사실논제는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따지는 법정 논쟁이 대표적인 것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정책논제는 정책의 실행 가부(可否)를 가리는 토론에서 다루는 논제로 국회나 지방 의회, 학교와 같은 집단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정책논제는 주로 ‘-해야 한다’는 의무나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치논제는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의 가치 충돌 상황을 토론을 통해 풀고자 할 때 제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나 판단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이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어떤 가치가 더 바람직한지를 토론으로 평가롭게 하는 것이다. 다음 <표Ⅲ-15>의 중학교 3학년 14종 국어교과서의 논제를 살펴보면 사실 논제는 제시되지 않고 가치논제와 정책논제 중심으로만 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 증거물을 통해 가리는 사실논제는 증거 자료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론 수업에서 논제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가치논제와 정책논제는 다수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필자의 출고, ‘김혜진·송현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토론 논제 분석』, 한국언어문학, vol.101. 2017, pp. 151-174’를 수정·보완하여 게재하였다.

<표 III-19>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논제

순번	토론 논제	논제 유형
1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가치 논제
2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4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5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6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7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8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책 논제
9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하는가?	
10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11	교내에 무인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12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13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4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토론에 앞서 중학교 3학년 14종의 국어 교과서에서 다룬 논제들이 과연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논제가 토론에 적합한 논제인지를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 평서문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논제의 조건을 기준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중학교 3학년 전체 14종의 국어교과서(⑤, ⑥)에 실린 논제의 적합성을 분석해보면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적합성 분석

순번	토론 논제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 적절성	찬성 측 입장	공정 평서문
1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	○	○	○	○
2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	×	×	×	○
3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	○	○	○	○
4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	×	×	×	○
5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	×	×	×	×
6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	×	○	×	×
7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	×	○	×	○
8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	○	○	○
9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하는가?	○	×	×	×	×
10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	×	○	○	×
11	교내에 무인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	×	×	×	○
12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	×	×	×	×
13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	○	○	○
14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	×	○	○	○

논제들을 살펴본 결과, 위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논제는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논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토론 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에 대해 무조건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논제의 조건 중 첫 번째 ‘단일한 논점’은 16개의 논제 모두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토론할 때 논의의 방향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으로 토론 논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 논제에서 적절하게 지키고 있었다. 다음은 ‘찬반 대립성’으로 찬성과 반대 양측이 각자의 주장에 대해 팽팽히 대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맞서는 몇 가지의 쟁점이 형성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논제는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의 네 개의 논제들이다. 나머지 논제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쪽에 유리한 논제로 제시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논제 중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논제는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이라는 용어 안에 독재나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다수의 국민의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어서 찬성 측에 유리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좋게 만든다는 개선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찬성 측에 유리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개선’을 사전적 정의로 살펴보면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이다. 잘못된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반대 측에서 반대에 대한 근거로 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찬성 측에 유리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논제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제시되면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없고 토론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논제의 조건으로는 ‘시의적절성’을 들 수 있다. 시의적절성이란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논제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논제는 시의적절성을 잃게 되면 논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논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과거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규칙, 제도, 법이 찬성 측과 동일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그 논제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해결되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면 토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찬반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시기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가 토론 논제로 적절했으나,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더 이상 토론 논제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창 뜨거운 감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한 논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토론 논제의 네 번째 조건으로는 ‘찬성 측 입장’을 들 수 있다. 이는 논제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게 논제를 제시해야 한다. CCTV 설치, 다수결 원칙, 청소년 연예계 진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같은 논제는 오래 전부터 논제로 활용되어 왔다. 과거에 자

주 쓰였던 논제를 다시 사용하려면 현재와 다른 변화의 입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시티브이의 경우 이미 학교 내 취약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여서 논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굳이 시시티브이를 논제로 사용하고 싶다면 시시티브이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장소인 ‘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와 같이 현재 상황에 변화를 주는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조건은 논제는 토론하기에 적합한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의 결어법 체계를 보면 종결어미 사용에 따라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라체에서 먼저 평서법에는 ‘-(는)다’, 감탄법은 ‘-(는)구나’, 의문법은 ‘-(느)나’, 명령법은 ‘-(어)라’, 청유법은 ‘-자’가 쓰인다. 이들은 문장 종류의 관점에서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15:426). 다양한 문장의 종류 중, 토론 논제는 문장 종결 어미를 ‘-(는)다’로 끝내는 평서문으로 나타내야 한다. 논제가 ‘김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와 같은 의문문의 경우 김반장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 어떤 부분은 옳고 다른 부분은 그르다’와 같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론보다는 토의에 적합하다.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와 같은 청유문의 경우는 상대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역시 논쟁을 다루는 토론에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논제를 긍정이 아닌 ‘안-’, ‘못-’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표현하는 경우, 찬성이 부정 측이 되고 반대가 긍정 측이 되어 서로의 입장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논제는 긍정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논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토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토론자들이 잘못된 논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논제는 단일한 논점, 찬반대립성, 시의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평서문과 같은 논제의 조건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조건에 부합하는 논제를 제시하는 것이 토론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에도 수월하다.

논제의 조건을 적용한 논제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새롭게 제시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는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 수정

순번	수정 전 논제	수정 후 논제
2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수가 다수보다 우선해야 한다.
4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직업 선택 시 수입이 적성보다 중요하다.
5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김반장의 행동은 옳다.
6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데이 문화는 바람직하다.
7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외모가 실력보다 우선이다.
10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등교 시간을 열 시로 해야 한다.
12	청소년들의 연예계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은 바람직하다.
13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우리 마을 공항 유치 허용해야 한다.
15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구조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
9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하는가?	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11	교내에 무인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16	시시티브이, 학교 안에 설치해야 하는가?	

교과서 논제 중 논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12개의 논제에 대해 ‘논제 파악하기-조건 적용하기-논제 다듬기-논제 확정하기’의 네 단계의 ‘논제 조건을 적용한 논제 확정 과정’을 통해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로 수정하였다. 물론 수정한 논제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섯 개의 논제 조건을 적용하여 조건에 어긋난 부분을 조건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 처음보다 훨씬 다듬어진 논제가 될 것이다.

토론을 위해서 논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논제 없이는 토론도 없기 때문이다. 논제는 토론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므로 잘못 선정하여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마련된 논제를 다듬으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논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토론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논제로 담지 못하면 토론자들은 실제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수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어느 한 쪽에게

유리하지 않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제를 제시해야 공평한 입장에서 토론이 역동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논증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논증’에 대한 성취기준은 ‘읽기(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쓰기(4)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에 나타나 ‘논증’이 읽기, 쓰기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론의 주요 영역인 듣기·말하기에서는 ‘(6)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로 제시되어 ‘논증’에 대한 언급 없이 토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교과서 토론 단원에서의 논증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룬 주장과 근거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토론을 평가할 때, 주장이 명확한지, 근거가 타당한 지를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 논증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장이 명확하고, 근거가 타당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증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영역의 내용 성취기준에서 논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교수·학습되고 평가에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는 교과서 분석 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논증에 대해 읽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성취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은 흔히 주장하는 글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글의 구조와 주장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난다. 이 둘은 논증의 관계를 이루는데,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을 파악한 후,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주장하는 글에 나타나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논증 관계를 이루는데, 이에 대한 논증 방식으로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 귀납, 연역, 유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증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논증 방법이다. 문제 해결을 이들과 같은 차원에서 논증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해설은 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쳐 교과서 내의 논증에 대한 이론과 실체는 매우 소홀한 감이 있다.

(4)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은 오늘날 민주 시민으로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문제가 되는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또한 주장하는 글의 형식적, 문체적 특성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문장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쓰기 영역에서는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논증을 이용하여 글을 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위의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역시, 주장과 근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빠져 있고, 근거가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은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해설을 읽고서도 논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는 논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중학교 14종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는 논증과 관련이 있는 토론의 개념, 논증 요소, 평가에 대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토론 평가는 태도나 표현 부분을 제외하고 토론 내용인 논증에 대한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표 III-22>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순서	단원명	토론의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1	3. 설득의 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근거를 들어 내세우고, 상대의 주장이나 근거가 옳지 않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말하기 방법	주장, 근거	주장의 명확성, 일관성, 근거의 타당성
2	4. 토론과 말 문화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의견의 정당함과 상대방 의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말하기 형태	주장, 근거	쟁점 파악,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합리성, 정보의 객관성·신뢰성, 상대 논리 허점 지적
3	2. 세상을 바꾸는 힘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기측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우고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하기	주장, 근거	쟁점 파악, 근거의 타당성, 상대 논리 허점 지적
4	2. 생각과 생각을 나누다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 방식	주장, 근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상대 주장 이해비판
5	4. 문학과 삶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행위	주장, 근거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일관성, 상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근거로 주장 재구성
6	1. 작가의 태도와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청증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주장, 근거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신뢰성
7	4. 문학과 토론의 만남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증명하는 일	주장, 근거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 상대 주장의 부당성과 논리적 허점 부각
8	4. 나는 이렇게 생각해	.	주장, 근거, 근거자료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반론의 적절성
9	3. 토론	.	주장,	주장의 명확성 쟁점

	과 소통		이유, 근거	과학
10	3. 설득이라는 창과 방패		주장, 근거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적절성, 논리적 반론
11	5. 토론과 주장	어떤 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주장, 근거	근거의 타당성, 상대 주장의 문제점 논리적 지적
12	2. 차이를 넘어서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편을 나누어 각각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기 측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며 논의하는 것	주장, 근거	주장의 명확성, 객관적 논거 제시
13	6.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논제에 대하여 긍정이나 부정으로 대립하는 양편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말하기 방식	주장, 근거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
14	3. 토론의 발견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타당하고 충분한 논거를 뒷받침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주장, 이유, 근거, 근거 자료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

먼저 토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14종의 교과서 중 3종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토론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토론은 ‘① 말하기이다.(주장하는, 설득하는, 반박하는, 의사소통 행위) ② 논제/문제가 있다. ③ 양측이 있다.(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④ 증명한다.(자신의 주장이 옳음/정당함/타당함, 상대 주장이 옳지 않음/부당함) ⑤ 근거/논거를 제시한다.(논리적인, 타당한, 충분한) ⑥ 규칙이 있다. ⑦ 청중, 상대방이 있다.’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토론의 개념 중 논증과 관련된 요소는 ‘④ 증명한다.(자신의 주장이 옳음/정당함/타당함, 상대 주장이 옳지 않음/부당함) ⑤ 근거/논거를 제시한다.(논리적인, 타당한, 충분한)’이다.

다음으로 논증 요소를 살펴보면, ‘주장, 근거’를 제시하는 교과서가 11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장, 이유, 근거’, ‘주장, 근거, 근거 자료’, ‘주장, 이유, 근거, 근거 자료’를 논증 요소로 보는 교과서가 각각 1종씩이 있었다. 여기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 근거, 근거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어서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토론에 대한 평가는 논증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토론에 임하는 자세인 태도, 표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면 토론 과정에서 토론 내용이 적절한 지를 묻는 논증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과서 토론 단원에서 토론 내용인 논증에 대한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주장, 근거, 쟁점, 반론, 상대논리, 정보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다.

<표 III-23>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평가 항목 점검

평가 항목	점검 사항	교과서	합계	총합
주장	명확성	1,6,7,8,9,10,12,13,14	9	12
	일관성	1,5	2	
	합리성	2	1	
근거	타당성	1,2,3,4,5,7,8,13,14	9	14
	합리성	2	1	
	객관성	4,12	2	
	신뢰성	6	1	
	적절성	10	1	
쟁점	파악하기	2,3,9	3	3
반론	적절성	4	1	2
	논리성	10	1	
상대 논리	논리 허점 지적	2,7	2	9
	주장 이해·비판	4,7,14	3	
	주장 논리적 반박	5,11	2	
	문제점 근거로 주장 재구성	5	1	
	주장의 부당성	7	1	
정보	객관성	2	1	2
	신뢰성	2	1	

표를 통해서 볼 때 토론 평가의 총합은 ‘근거> 주장> 상대논리> 쟁점> 반론·정보’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증 평가 항목의 점검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장의 명확성과 근거의 타당성이 같은 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쟁점 파악하기와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같은 순위이다.

주장의 명확성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논증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주장은 토론에서 토론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의견으로 논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발언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 형성도 어렵게 된다. 토론에서 찬성 측 입론에서의 주장은 토론의 논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논제의 부적절한 요소를 제거하여 논제의 조건을 충족시켜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로 다듬는 과정은 주장의 명확성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4>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1 - 주장의 명확성

주장의 명확성
1. 두괄식(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는 나중에 제시) 구성인가?
2. 이유는 쪼개서 제시하고 있는가? 첫째, 둘째, 셋째
3. 주장이 논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명확성은 ‘명백하고 확실한 성질’을 뜻한다. ‘명백하다’를 다시 찾아보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주장이 명확성을 지니려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토론자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주장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주장이 명확하려면, 첫째, 논증 구성을 두괄식으로 해야 한다.³⁷⁾ 가장 중요한 주장을 맨 먼저 말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주장에 대한 이유는 쪼개서 분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첫째, 둘째, 셋째라는 차례를 제시하는 것이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다. 셋째, 주장은 논제를 반영해야 한다. 논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토론자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논제와 일치되는 주장을 했을 때라야 주장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논증 평가요소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근거의 타당성’을 든다. 국립국어

37) 토론을 다룬 대부분의 교재에서 토론자들은 두괄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핵심인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는 나중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원(2000:16~17), 이정숙(2008:63), 신광재 외(2011:106~107), 정문성·황연성(2012:372), 강치원(2013:104), 윤치영(2009:54), 글쓰기 교재에서도 글쓰기 기본 원칙으로 주장-이유-근거의 순인 두괄식을 제시한다.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2008:161~299), 브랜던 로열(2015:13), 탁석산(2005:100) 유시민(2015:7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타당성’을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이라고 정의한다.

<표 III-25>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2 - 근거의 타당성

근거의 타당성
1. 사실성 : 용어 정의, 주장·이유·근거는 사실인가? 정확한가?
2. 관련성 : 주장·이유·근거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제시한 사실들은 서로 모순이 없는가? 추론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가?
3. 충분성 : 제시된 사실들이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가? 주장에 대한 이유·근거가 일반적인 것들인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광재 외(2011:93-94)에서는 타당한 논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근거의 사실성으로, 논증의 근거가 참이거나 수용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근거의 관련성으로, 논증의 근거가 주장과 연관되어야 한다. 셋째는 근거의 충분성으로, 논증의 근거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카헤인(Howard Kahane)이 처음 제시하고, 존슨(Ralph A. Johnson)과 블레이어(J. Anthony Blair)가 명확하게 정리한 이론으로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의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근거와 주장의 연관성(relevance), 근거의 충분성(sufficiency)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Johnson & Blair 1993:49, 최훈 2016:181 재인용)³⁸⁾.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 측 제1토론자는 입론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근거를 세 가지 정도 제시한다.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반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고 토론 쟁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토론의 쟁점 파악은 치열한 양측의 공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38) 인용 논문에서는 ‘전제’와 ‘결론’에 관한 설명이었으나 토론에 관한 본 논문의 특성 상 ‘전제’는 ‘근거’로 ‘결론’은 ‘주장’으로 바꿔서 표기하였다.

<표 III-26>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3 - 쟁점 파악하기

쟁점 파악하기
1.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이유나 근거에 대한 반박을 반대 측에서 제대로 하였는가? 2. 찬성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측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는 지점이 형성되었는가?

토론의 흐름은 쟁점의 진행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찬성 측이 주장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반대 측이 어떤 근거로 반대했는지를 파악해보면 충돌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어느 편이 쟁점에 대해 더 강한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해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단원 토론 평가 항목을 점검한 후, 토론 단원의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과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다. 교과서 점검 결과, 전체 세 영역의 8개의 세부 평가 요소 모두를 충족시키는 교과서는 없었다. 관련성(12)>사실성·반대 측 반박(9)>논제 반영(7)>대립 지점(5)>두괄식(3)>쪼개기·충분성(2)의 순으로 근거의 타당성에서 주장과 이유·근거와의 관련성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지키고 있었으나, 주장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두괄식 구성, 이유에 대해 첫째, 둘째와 같은 순서를 제시하는 쪼개기, 충분한 근거 제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개별 교과서를 대상으로 점검 했을 때, 8개의 세부 평가요소를 충족시키는 교과서는 한 권도 없었고, 5~6개 충족(3개 교과서), 3~4개 충족(3개 교과서), 1~2개 충족(8개 교과서)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토론 평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 토론 단원 토론 평가 부분의 논증 관련 평가 요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의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대부분은 토론 단원의 토론 내용이 토론 능력을 길러주기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7>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위 찬성·반대 입론의 논증 평가

순번	토론 논제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쟁점 형성	
		두괄식	쫓개기	논제 반영	사실성	관련성	충분성	반대 측 반박	대립 지점
1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	×	○	×	○	×	○	○
2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	×	×	○	○	×	×	×
3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	×	○	×	×	×	×	×
4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	×	×	○	○	×	×	×
5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	×	×	×	○	×	○	○
6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	×	×	×	×	×	○	×
7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	×	△	○	×	×	×	×
8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	○	○	○	○	○	○
9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하는가?	○	○	○	×	○	○	×	×
10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	×	×	○	○	×	×	×
11	교내에 무인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	○	○	○	○	×	×	×
12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	×	○	○	×	×	×	×
13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	×	○	○	×	×	×
14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	×	×	○	○	×	×	×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위의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 내용을 통해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쟁점 형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논증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입론 부분을 문장 별로 번호를 붙인 후, 주장의 명확성에서는 논증 구성이 주장-이유-근거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첫째, 둘째와 같은 순서를 붙여서 쫓개고 있는지, 주장에 논제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근거의 타당성에서는 용어 정의, 주장·이유·근거는 사실인지, 정확한지, 주장·이유·근거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제시한 사실들은 서로 모순이 없는지, 추론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제시된 사실들이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지, 주장에 대한 이유·근거가 일반적인 것들인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 형성에서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이유나 근거에 대한 반박을 반대 측에서 제대로 하였는지, 찬성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측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는 지점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III-28>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3. 설득의 힘 (2) 다양한 논제에 대한 토론		
논제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교과서	동아출판 ⑤	저자	전경원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저희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어 인간이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② 로봇은 ‘어떤 작업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기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③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등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기들이 모두 로봇에 포함됩니다. ④ 이러한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 요리를 하고,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야구 도시도 건설합니다. ⑤ 과거에는 당연히 인간이 해야 한다고 믿었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⑥ 로봇 덕분에 인간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만약 이러한 로봇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⑧ 이런 이유로 저희는 로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데 찬성합니다.</p>		<p>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② 오히려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줄수록 실업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③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 효율성이 높은 로봇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④ 로봇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를 말합니다. ⑤ 저희는 이러한 로봇이 인간에게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⑥ 인간은 정신적인 만족감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⑦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자식이 훌륭하게 커 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⑧ 이것은 자식의 모습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⑨ 계획된 시스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로봇이 이러한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줄 수 있을까요? ⑩ 저희는 로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p>	

<표 III-28>은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29>와 같다.

<표 III-29>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로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데 찬성한다.(⑧)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반대한다.(①, ⑩)
용어 정의	로봇은 어떤 작업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기계이다.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등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기들이 모두 로봇에 포함된다.(②, ③)	로봇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이다.(④)
이유1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어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①, ⑤, ⑥, ⑦)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줄수록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다.(②)
근거1	로봇이 요리를 대신하고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한다.(④)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 효율성이 높은 로봇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③)
전제2	.	인간은 정신적인 만족감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⑥)
이유2	.	계획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은 인간에게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다.(⑤⑧)
근거2	.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지만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다.(⑦,⑧)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과 반대의 ‘로봇’에 대한 정의가 달라 토론의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찬성 측에서는 ‘로봇은 어떤 작업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기계로,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등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기들이 모두 로봇에 포함된다’

다.’라고 정의 내리는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로봇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찬성 측이 로봇에 대해 광의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면, 반대 측은 협의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용어 정의는 입증의 책임이 있는 찬성 측에서 하는 것으로 반대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거나 불리한 용어 정의가 아니라면 수용하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정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토론 수업에서 교과서 예문은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토론을 배울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반대 측 1토론자처럼 토론에서 상대의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친다면 토론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진다.

둘째, 이 토론은 논증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해 매우 혼란스럽다. 찬성 측 1토론자의 입론을 보면 이유가 용어 정의보다 앞에 나오다가 다시 근거 뒤에서 이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반대 측 역시 용어 정의가 이유1과 근거1 뒤에 나오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반대 측의 두 번째 논증에는 이유2와 근거2 사이에 전제2가 들어 있어서 두 논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만 제시하고 있어 상대를 설득하기에 미흡하다.

<표 III-30>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4. 토론과 말 문화 (1) 다수결의 원칙		
논제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교과서	교학사 ⑤	저자	남미영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① 다수결의 원칙은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 즉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② 무엇보다도 다수결의 원칙은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③ 멀리서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에서	①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② 과연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일까요? ③ 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④ 왜냐하면 다수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⑤ 또 다수의 결정에서 소외된 소수의 의	

<p>부터, 가깝게는 현재의 간접 민주 정치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④ 오늘날 흔히 행해지고 있는 선거나 투표가 모두 다수결의 원칙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⑤ 이렇게 오랫동안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⑥ 다수결의 원칙이 없었다면 과연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⑦ 따라서 저는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p>	<p>사는 과연 그대로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⑥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의견 이외에 소수의 의견들은 모두 무시되는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⑦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소수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⑧ 이런 이유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⑨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이 지니는 한계점을 알아보고, 더 나은 제도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

<표 III-30>은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다’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31>과 같다.

<표 III-31>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다. (⑦)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①)
용어 정의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①)	.
전제1	다수결의 원칙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지금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⑥)	.
이유1	다수결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오랫동안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수결의	다수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칙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았다. (②, ⑤)	
근거1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에서부터, 현재의 간접 민주 정치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었고, 오늘날 선거나 투표 모두 다수결의 원칙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③,④)	
전제2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⑥)
이유2		소수의 의사는 무시해도 괜찮은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소수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한다. (⑤,⑦)
근거2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 1토론자의 입론은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주장이 명확하려면 주장을 먼저 제시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입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용어정의, 이유, 근거, 전제, 주장의 순서로 주장을 맨 마지막에 말하는 미괄식 구성으로 입론을 하고 있어서 주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주장을 먼저 말한 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전제, 이유, 근거 순으로 체계적으로 논증을 펼쳐야 상대를 설득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둘째,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은 찬성 측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근거도 부족하다. 찬성 측에서는 다수결이 역사가 깊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사용되고 있음을 말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다수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대 측 1토론자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여, 찬성과 쟁점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반대 측 1토론자는 찬성 측의 이유를 잘 듣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한다. 또한 이유1만을 제시하고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설득력이 약하다. 반대 측에서는 전제와 함께 이유2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제와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관적인 의견만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표 III-32>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2. 세상을 바꾸는 힘 (1) 마음 열고 토론하기		
논제	논제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교과서	천재 ⑤	저자	노미숙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최근 학업 이외의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시로 하는 일’로서 ○ ○중학교에서 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명 중 3명꼴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③ 청소년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특히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등 경제관념이 생기고,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제관념이 생기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9.4%가 ‘용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했습니다. ③ 더 많은 용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④ 결국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낭비를 부추길 뿐입니다. ⑤ 경제관념은 집안일을 도와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⑥ 더구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⑦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p>	

<표 III-32>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33>과 같다.

<표 III-33>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지 않다. (⑦)
용어 정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시로 하는 일이다. (②)	.
이유1	청소년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③)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낭비를 부추길 뿐이다. (④)
근거1	○○중학교에서 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명 중 3명꼴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②)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9.4%가 ‘용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했다. (②)
이유2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제관념이 생기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경제관념은 집안일을 도와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⑥)
근거2	.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 1토론자는 이유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과 경제관념이 생기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찬성 측 근거1인 ○○중학교에서 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자료로는 효과가 있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반대 측 1토론자는 찬성 측 1토론자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찬성 측 1토론자의 첫 번째 제시한 청소년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한 반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유인 경제관념과 진로 결정에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찬성 측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반대 측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셋째, 반대 측 1토론자의 이유에 대한 근거가 부적절하다. 반대 측 1토론자는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낭비를 부추긴다’는 것을 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설문에서 79.4%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료와 반대 측에서 내세운 ‘낭비를 부추긴다’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옷이나 화장품 구입, 게임비, 오락비 등 소모적인 것에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야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와 근거 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4>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2.생각과 생각을 나누다 2)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논제	논제 :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교과서	신사고 ⑥	저자	민형식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저는 소득이 낮더라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때 즐겁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처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일도 재미있고 능력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① 제 생각은 다릅니다. ② 아무리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도, 소득이 낮으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소득이 적다면,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④ 직업에서 보수는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 ⑤ 그러므로 보수가 높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인정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p>	

	것입니다. ⑥ 따라서 적성에는 맞지 않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을 것입니다.
--	---

<표 III-34>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35>와 같다.

<표 III-35>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소득이 낮더라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생각이 다르다. (①)
이유1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②)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도, 소득이 낮으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②)
근거1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때 즐겁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처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일도 재미있고 능력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보수가 높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인정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⑤, ⑥)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 측 1토론자는 토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찬성 측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유만을 반박하고 있어 찬성 측과는 서로 다른 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찬성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적성이다’에 대해 토론한다면 반대 측에서는 ‘적성에는 맞지만 소득이 낮은 직업보다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소득이 높은 직업이 만족도가 높다’라는 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반대 측에서 찬성 측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이 생긴 원인은 논제 자체에 있다.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적성이다.’라는 논제에 대한 쟁점 형성이 적성과 소득으로 양분되지 않고 다양한 다른 기준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결국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이다.’라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표 III-36>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찬성·반대 입론

단원	4.문학과 삶 (3) 김 반장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논제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교과서	미래엔 ⑥	저자	윤여탁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저는 김 반장의 행동에 찬성합니다. ② 김 반장은 스물여덟 살의 청년으로 네 명의 어린 동생과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 팔순의 할머니 등 일곱 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인물입니다. ③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가 김포 슈퍼와 싱싱 청과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먹고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④ 제가 김 반장이었더라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⑤ 김 반장의 행동이 약간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그건 많은 식구를 부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p>		<p>① 기본적으로 김 반장의 형제 슈퍼와 경호 네의 김포 슈퍼가 동맹을 맺은 일은 공정 거래를 막는 담합 행위입니다. ②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싱싱 청과물을 마을에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③ 그러나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것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 김 반장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④ 김 반장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적절한 가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⑤ 아무리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표 III-36>은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37>과 같다.

<표 III-37>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김 반장의 행동에 찬성한다.(①)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⑤)
용어정의	김 반장은 스물여덟 살의 청년으로 네 명의 어린 동생과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 팔순의 할머니 등 일곱 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다.(②)	.
이유1	김 반장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먹고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③)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것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 김 반장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③)
근거1	내가 김 반장이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김 반장의 행동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식구를 부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④⑤)	김 반장의 형제 슈퍼와 경호 네의 김포 슈퍼가 동맹을 맺은 일은 공정 거래를 막는 담합 행위이다. 김 반장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적절한 가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했다.(①④)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 1토론자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 찬성 측 1토론자는 논제에 대한 주장인 ‘김 반장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에 대한 찬성을 해야 하는데, 김 반장의 행동에 찬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결과, 주장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다. 주장에 대한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 근거로 단지, 자신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로 타당한 근거 제시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반대 측 1토론자는 주장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어 주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토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맨 앞에 강하고 선명하게 제시되었을 때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다. 토론을 듣는 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문으로 문장 제시를 하는 것이 좋다. 미괄식 문장에, 문장의 길이도 길어서 토론을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자신의 얘기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간결하게 끊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III-38>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찬성·반대 입론

단원	1.작가의 태도와 토론 (2)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논제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교과서	창비 ⑥	저자	이도영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① 저는 데이 문화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우리의 일상은 늘 같은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③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지요. ④ 이런 데이들이 우리 삶에 활력소가 되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⑤ 데이 문화 덕분에 즐거워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⑥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 문화에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지요.		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② 과연 각종 데이들이 우리 삶에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나요? ③ 밸런타인데이를 예로 들어 봅시다. ④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⑤ 하지만 초콜릿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겐 오히려 쓸쓸함을 더하는 날입니다. ⑥ 일부 몇 사람에게만 삶의 활력소가 될 뿐, 더 많은 사람들에게겐 소외감만 안겨 주는 날인 것이지요.	

<표 III-38>은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39>와 같다.

<표 III-39>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데이 문화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①)	생각이 다르다.(①)
이유	데이 문화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재미있게 살게 해 준다. 데이 문화 덕분에 즐거워할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④⑤⑥)	데이 문화는 일부 사람에게만 삶의 활력소가 될 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안겨 주는 날이다.(⑥)
근거	.	밸런타인데이를 예로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겐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초콜릿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겐 쓸쓸함을 더하는 날이다.(③④⑤)
--	--	---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번 토론의 논제는 논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논제이다. 이로 인해 찬성 측 1토론자의 주장이 불분명해졌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입론에서 논제와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논제가 적절하지 않다보니 찬성 측 주장도 불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고 있지 않아 논증의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찬성 측 1토론자는 데이 문화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재미있게 살게 해준다는 이유를 들어 데이 문화가 좋은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가 없다. 객관적 정보나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반대 측 1토론자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해야 하는데,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데이 문화가 좋은 현상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 반대해야 하는데, 데이 문화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준다는 이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반대하고,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반박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은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 모두 토론 내용이 부실하고 논증 구조도 탄탄하지 못하여 쟁점 형성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표 III-40>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4.문학과 토론의 만남 (3) 토론의 세계		
논제	논제 :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교과서	신사고 ⑤	저자	우한용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① 외모 가꾸기는 타인에게 보이는 외적인 면을 보기 좋게 다듬고 가꾸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정의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옷이나 장신구 등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키를 크게 하기 위한 각종 노	① 찬성 측에서는 외모 가꾸기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계십니다. ②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③ 우리는 외모 가꾸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p>력, 다이어트, 성형 수술 등도 포함됩니다. ③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꾸는 노력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④ 하지만 그 노력이 외모에 집중되고 있는 요즘의 분위기는 우려할 만합니다. ⑤ 유행을 좇아 특정 상표 혹은 특정 디자인의 옷을 너도나도 사 입고, 키 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⑥ 이렇게 외모 가꾸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내면적 성숙이나 진정한 능력 쌓기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⑦ 따라서,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수 있습니다. ④ 이는 우리의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⑤ 또한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⑥ 즉, 외모 가꾸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⑦ 이러한 점에서 외모 가꾸기는 자기 관리의 하나로, 삶의 내실을 쌓아 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⑧ 따라서, 외모 가꾸기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장려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p>
--	--

<표 III-40>은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41>과 같다.

<표 III-41>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⑦)	외모 가꾸기는 개선이 아니라, 장려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⑧)
용어 정의	외모 가꾸기는 타인에게 보이는 외적인 면을 보기 좋게 다듬고 가꾸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키를 크게 하기 위한 각종 노력, 다이어트, 성형 수술 등도 포함된다.(① ②)	

이유	외모 가꾸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내면적 성숙이나 능력 쌓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⑥)	외모 가꾸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①②⑥)
근거	유행을 좇아 특정 상표 혹은 특정 디자인이 옷을 너도나도 사 입고, 키 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⑤)	외모 가꾸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한다.(③④⑤)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 1토론자의 이유에 대한 근거는 적절하지 않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외모 가꾸기에 집중하다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내면적 성숙이나 능력 쌓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유행을 좇거나 키 키우기에 열을 올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모습이 내면적 성숙이나 능력 쌓기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근거는 찬성 측이 제시한 이유에 대한 근거이기보다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반대 측 1토론자는 논제와는 무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측 1토론자는 논제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지 않고, 외모 가꾸기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양측의 쟁점 형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찬성 측 근거에 대한 반박이 아닌 전혀 무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 내세운 내면적 성숙, 능력 쌓기에 대한 반박을 한 후,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 한다.

<표 III-42>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4.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2) 토론하기		
논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과서	비상 ⑤	저자	김태철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사형 제도는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으로, 비인간적인 제도입니다. ② 헌법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가 살인을 합법화하여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사형입니다. ③ 과연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④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한 것입니다. ⑥ 따라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p>	<p>① 아니, 그게 아니죠. ② 사형 제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③ 지난 1996년 헌법 재판소는 사형 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④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와 다릅니다. ⑤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⑥ 가해자는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⑦ 당연히 그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⑧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온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p>	

<표 III-42>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43>과 같다.

<표 III-43>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⑥)	반대한다.(①)
용어 정의	사형 제도는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으로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국가가 살인을 합법화하여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사형 제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②)

	이 사형이다. (①②)	
전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한 것이다. (⑤)	
이유1	사형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③)	사형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와는 다르다.(④)
근거1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④)	지난 1996년 헌법 재판소는 사형 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므로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③⑥⑦)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사형이 살인인가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한 것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살인이라는 이유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10조를 들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흉악범을 사형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 근거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고 있다. 이번 논증은 비교적 그 구조가 탄탄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4>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찬성·반대 입론

단원	3.토론과 소통 (2) 소통을 위한 토론		
논제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교과서	동아출판 ⑤	저자	전경원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① 학교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 시시 티브이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증거물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② 시시 티브이는 원래 호텔과 같은 건물에서 우선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① 찬성 측에서는 시시 티브이의 긍정적 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사실 시시 티브이 설치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② 그리고 시시 티브이로 인한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③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방식을 말하던 것인데 지금은 의료용, 교육용, 감시용 등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 그만큼 시시 티브이의 쓸모가 많다는 뜻인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④ 첫째, 교내 시시 티브이 설치하는 학교 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⑤ 폭력이나 일탈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시자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⑥ 따라서 시시 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시시 티브이를 의식해 이런 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⑦ 둘째, 혹시 사건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시 티브이를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⑧ 교내 범죄는 주로 사각지대에서 행해져 증거물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⑨ 그러나 이와 같은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 놓으면 행위의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어 교내 범죄를 적발하기가 쉬워집니다. ⑩ 셋째, 학교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할 경우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⑪ 학생들은 학교의 도서관이나 체육관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교의 사각지대를 통행할 때도 불안감을 다소 적게 느끼게 됩니다. ⑫ 이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티브이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④ 첫째, 학교에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⑤ 교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⑥ 또한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⑦ 둘째, 취약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그 지역의 폭력 및 범죄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면에서도 폭력 행위와 범죄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⑧ 다시 말해, ‘풍선 효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치 풍선 한 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교내 한 부분의 범죄율은 감소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교내 범죄율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교외의 범죄가 증가하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⑨ 셋째, 시시 티브이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내 치안 유지 방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⑩ 우선 범죄 예방 기능을 하려면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모니터 화면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인력이 있으면 차라리 교내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⑪ 또한 대부분의 시시 티브이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시시 티브이는 그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문

	제점이 있습니다. ㉔ 이와 같은 근거로 저희는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표 III-44>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45>와 같다.

<표 III-45>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③)	시시 티브이 설치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시시 티브이로 인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아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②③⑫)
용어 정의	시시 티브이는 호텔과 같은 건물에서 유선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식을 말하던 것으로 의료용, 교육용, 감시용 등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②)	.
이유1	학교 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④)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④)
근거1	폭력이나 일탈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시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시 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시시 티브이를 의식해 이런 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이다.(⑤⑥)	교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⑤⑥)
이유2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⑦)	전체적으로 폭력 행위와 범죄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⑦)
근거2	교내 범죄는 주로 사각지대에서 행해져 증거물을 찾기가 매우 힘든데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 놓으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어 교내 범죄를 적발하기가 쉬워진다.(⑧⑨)	‘풍선 효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마치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교내 한 부분의 범죄율은 감소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교내 범죄율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교외의 범죄가 증가하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⑧)
이유3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 준다. (⑩⑫)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내 치안 유지 방법이다.(⑨)
근거3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체육관과 같은 시설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교의 사각지대를 통행할 때도 불안감을 적게 느끼게 된다.(⑪)	범죄 예방을 하려면 실시간 누군가가 모니터 화면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인력이 있으면 교내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성능이 좋은 시시티브이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 (⑩⑪)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 1토론자가 입론에서 밝힌 시시티브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 찬성 측에서는 시시티브이를 ‘호텔과 같은 건물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식을 말하던 것’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아서 부적절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시티브이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 송신 화상에서 수신 화상까지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대상 이외의 일반 대중이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로 나와 있다. 시시티브이에 대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찬성 측 1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반대 측 1토론자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시시티브이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찬성한다. 반대 측에서는 시시티브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도 전체적으로 범죄가 줄지는 않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내 치안 유지 방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표 III-46>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찬성·반대 입론

단원	3. 설득이라는 창과 방패 (1)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논제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교과서	동아출판 ⑤	저자	전경원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우리나라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지역이나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오전 8시 30분 이전입니다. ② 대부분의 학교에서 9시를 전후해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③ 특히, 중·고등학생은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율 학습이나 보충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⑤ 이른 아침에 등교하다 보니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 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도 멍한 상태로 수업을 받거나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아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⑦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추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⑧ 따라서 저는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p>		<p>① 등교 시간은 학생들의 일과 전체를 고려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②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수면 부족을 가져올 만큼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③ 물론 청소년기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④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른 등교 시간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⑤ 오히려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개인적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⑥ 단순히 등교 시간을 늦추어서 아침에 잠을 많이 자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 일과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⑦ 그러므로 저는 일찍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표 III-46>은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47>과 같다.

<표 III-47>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⑧)	등교 시간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⑦)
이유1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⑦)	등교 시간이 수면 부족을 가져올 만큼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②)
근거1	이른 등교 때문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하며, 멍한 상태로 수업을 받거나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아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④⑤⑥)	수면 부족의 원인은 등교 시간 때문이 아니라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개인적 생활 습관 때문이다. 등교 시간을 늦추어서 아침에 잠을 많이 자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 일과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④⑤⑥)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과 반대 모두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주장에 논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어 무엇을 주장하는 지가 불분명하다. 논제는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는 것인데, 주장은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말하고 있다. 이전 문장에서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추자는 내용이 제시되지만 결론을 뜻하는 ‘따라서’ 다음에 정확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 측 1토론자도 주장을 맨 뒤에 말하는 미괄식 구성을 하고 있어 양측 모두 분명한 주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여 주장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둘째,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를 못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만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찬성 측에서는 등교 시간을 늦추면 건강을 지키고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 반대 측도 마찬가지이다. 수면부족의 원인이 등교 시간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면, 그와 관련하여 개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수면을 방해하는 관련 근거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쟁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 토론의 쟁점은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춰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측과 수면 부족의 원인이 등교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습관 때문이므로 등교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어서 양측의 대립 지점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못해 효과적인 쟁점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III-48>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5. 토론과 주장 (1) 토론하기		
논제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교과서	동아출판 ⑤	저자	전경원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저희는 찬성합니다. ② 그 이유는 첫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나 절도 사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③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폭력이나 절도 사건의 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④ 무인 방법 카메라를 교내에 확대 설치한다면 감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줄어들 것입니다. ⑤ 둘째, 교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⑥ 사건이 발생한 후에 무인 방법 카메라에 찍힌 영상 자료를 보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따라서 저희는 교내 사건의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무인 방법 카메라를 교내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① 저희는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②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무인 방법 카메라는 학생들 개인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녹화해서 저장합니다. ④ 자신의 생활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한다면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⑤ 둘째,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나 범죄자로 간주하는 비교육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⑥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입니다. ⑦ 따라서 무인 방법 카메라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나 범죄자로 간주하는 비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무인 방법 카메라의 확대 설치를 반대합니다.</p>	

<표 III-48>은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49>와 같다.

<표 III-49>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한다.(①⑦)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한다.(①⑦)
이유1	그 이유는 첫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나 절도 사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②)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②)
근거1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폭력이나 절도 사건의 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다. 무인 방법 카메라를 교내에 확대 설치한다면 감시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줄어들 것이다.(③④)	무인 방법 카메라는 학생들 개인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녹화해서 저장한다. 자신의 생활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한다면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③④)
이유2	둘째, 교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⑤)	둘째,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나 범죄자로 간주하는 비교육적인 일이기 때문이다.(⑤)
근거2	사건이 발생한 후에 무인 방법 카메라에 찍힌 영상 자료를 보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⑥)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이다.(⑥)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 토론은 양측의 팽팽한 쟁점 없이 평행선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토론은 상대의 발언을 잘 듣고 그에 대한 반박을 통해 쟁점이 형성되는데 찬성 측이 사건 예방과 해결에 무인 방법 카메라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면 반대 측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와 비교육적인 면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양측의 대립 지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둘째,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유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지,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토론은 자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측 모두 믿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III-50>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찬성·반대 입론

단원	2. 차이를 넘어서 (1)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논제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교과서	지학사 ⑤	저자	방민호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우리 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② 최근 이웃 마을에서는 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을 작은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③ 그리고 이 공원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④ 이처럼 우리도 그 땅에 주민을 위한 ‘자투리 공원’을 만들면 주민들이 편히 쉴 곳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저는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p>		<p>① 저는 그 땅을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② 현재 우리 마을에 있는 자투리땅의 위치나 크기를 생각하면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③ 먼저 그 땅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전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④ 또한 그곳은 공원으로 만들기에 땅의 크기도 작은 편입니다. ⑤ 따라서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은 공원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p>	

<표 III-50>은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51>과 같다.

<표 III-51>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⑤)	땅을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에는 반대한다.(①)
이유	‘자투리 공원’을 만들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①④)	자투리땅은 공원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②⑤)
근거	최근 이웃 마을에서는 도로 주변의 자투리땅을 작은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 공원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②③)	그 땅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전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또한 그곳은 공원으로 만들기에 땅의 크기도 작은 편이다. (③④)

‘우리 마을의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들자’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 1토론자의 이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을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을 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웃 마을의 예를 들고 있다. 이웃 마을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이 이유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자투리땅이 공원을 조성하기에 알맞은 위치에 있거나 규모가 적당하거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장소라거나 하는 마을 자투리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웃 마을의 성공 사례만으로 주장을 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대 측 1토론자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반대 측 1토론자는 찬성 측이 내세운 이유나 근거를 반박하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 찬성 측에서 내세운 휴식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휴식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거나 자투리땅이 아닌 다른 곳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등 찬성 측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어야 한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입론에서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쟁점 형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토론 전개를 하고 있다.

<표 III-52>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6. 우리가 사는 세상 (1) 토론, 세상을 말하다		
논제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교과서	동아출판 ⑤	저자	이삼형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저희 측에서는 응원 단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② 응원단은 말 그대로 선수들이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을 돋우어 열띤 응원을 펼치기 위해 조직된 집단입니다. ③ 즉, 응원 단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즐겁게 응원을 할 수 있게 기획하는 능력과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움직이게 하는 지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응원단원 모집 기준을 같이 볼까요? ⑤ 외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⑥ 결정적으로 응원단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즉 응원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력과 지도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⑦ 이런 이유 때문에 외모를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금의 응원단원 모집 기준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① 응원 단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능력은 지도력과 기획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신명나게 움직이게 하는 끼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이런 끼와 매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되지요. ③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제시한 응원단원 모집 기준은 외모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를 묻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④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응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입 단원을 모집하려 한 것입니다.</p>	

<표 III-52>는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53>과 같다.

<표 III-53>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외모를 선발 기준으로 하는 응원단원 모집 기준은 폐지되어야 된다.(⑦)	.
용어 정의	응원단은 응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을 돋우어 열띤 응원을 펼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②)	.
이유	응원 단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기획력과 지도력이다.(③)	응원 단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능력은 지도력과 기획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신명나게 움직이게 하는 끼와 매력이다.(①)
근거	우리 학교 응원단원 모집 기준은 외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응원단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즉 응원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력과 지도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④⑤⑥)	끼와 매력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응원단원 모집 기준은 외모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를 묻고자 한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응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입 단원을 모집하려 한다.(②③④)

‘외모를 응원단원 모집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반대 측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대 측 주장이 명확해지려면 찬성 측의 ‘외모를 선발 기준으로 하는 응원단원 모집 기준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외모를 선발 기준으로 하는 모집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이 잘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이 토론의 쟁점은 응원 단원에게 필요한 능력이 과연 외모인가 하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끼와 매력, 자신감을 말하다가 나중에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한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보다 뒷받침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서 자칫 반대 측 주장의 핵심을 흐릴 수 있고 주장에 대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

<표 III-54>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3. 토론의 발견 (1) 착한 사마리아 인 법, 필요한가		
논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교과서	천재 ⑥	저자	김종철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주택가 골목에서 40여 분 동안이나 강도에게 폭행당하며 “살려 달라.”라고 외쳤는데 끝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② 폭행 장면을 보거나 비명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람이 3명이나 되는 걸 보면 많은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직접 도움을 주지는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③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④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없애려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이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⑥ 만약 이런 법이 이미 있었다면, 아까 말한 가정주부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p>		<p>① 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정합니다. ② 이런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③ 또 법을 어기면 그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④ ‘전과’라고 알고 계시지요? ⑤ 따라서 범죄 사실이 분명할 경우만 법으로 정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⑥ 그러데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줍니다. ⑦ 위험에 처한 사람들 돕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⑧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무관심한 행동이 잘못인지 몰라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⑨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으로 범죄 유무를 결정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p>

<표 III-54>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55>와 같다.

<표 III-55>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④)	‘착한 사마리아 인 법’으로 범죄 유무를 결정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⑨)
이유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다.(⑤)	범죄 사실이 분명할 경우만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⑤)
근거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주택가 골목에서 40여 분 동안이나 강도에게 폭행당하며 “살려 달라.”라고 외쳤는데 끝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폭행 장면을 보거나 비명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람이 3명이나 되는 걸 보면 많은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직접 도움을 주지는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법이 있었다면, 가정주부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①②③⑥)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준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관심한 행동이 잘못인지 몰라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⑥⑦⑧)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이 서로 다른 논제로 토론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으로 범죄 유무를 결정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법을 제정하자는 쪽이라면 반대 측에서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들고 그 법으로 범죄 유무를 결정하기에 모호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논제로 토론이 진행되다보니 팽팽하게 대립되는 쟁점이 형성 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논증 분석을 하였다. 논증 평가 요소는 크게 주장이 명확한지, 근거가 타당한지, 쟁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주장의 명확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주장의 위치가 전제, 이유, 근거보다 뒤에 위치하는 미괄식 구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 측 토론자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가 어렵고 강한 인상도 줄 수 없다. 토론에서는 주장을 이유나 근거보다 앞에 제시하는 두괄식 문단 구성이 강한 인상을 주어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유를 제시할 때는 분석적으로 쪼개서 첫째, 둘째와 같은 순서로 제시했을 때 귀에 잘 들어오고, 정리하기도 쉽다. 주장은 논제를 반영하여 명확하게 논제에서 쓰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에 대해 찬성을 하는지, 반대 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논제와는 무관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처럼 찬성 측, 반대 측 대부분의 입론에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교과서 토론 본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근거의 타당성은 찬성 측 입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거의 타당성은 사실성, 관련성, 충분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사실성은 주장, 이유, 근거가 사실인지, 정확한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출처가 정확한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통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증된 것을, 전문가의 견해는 논제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 속해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제시하거나 논제와 무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논제 ‘로봇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에서는 로봇에 대해 ‘작업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기계’로 용어 정의를 내리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어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세탁기와 진공청소기를 들고 있다. 세탁기나 진공청소기를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로봇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1」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인조인간 「2」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로봇은 다의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1」은 단어 본래의 뜻인 중심 의미를, 「2」는 본래의 뜻과 관련은 있으나 파생된 주변 의미를 지닌다. 찬성 측 입론자는 로봇의 뜻풀이 중 주변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세탁기나 진공청소기를 로봇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에서 찬성 측 제1토론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시로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 이를 하나의 용어로 처리한 것도 문제이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한 근거도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소년’을 찾아보면 ‘1.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법률」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3.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나와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논제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인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토론보다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논제이니 ‘중학생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고 범위를 좁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토론에서 용어 정의는 토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짓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용어 정의에 대해 반대 측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잘못된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토론이 전개되어 토론 전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는 논제 ‘교내 취약 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하는가?’에서 시시티브이에 대한 정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시시티브이’에 대해 ‘원래 호텔과 같은 건물에서 유선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식을 말하던 것. 의료용, 교육용, 감시용 등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는 시시티브이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정의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출처도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시시티브이는 감시용으로 쓰지 의료용, 교육용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시티브이는 폐회로텔레비전으로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 송신 화상에

서 수신 화상까지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대상 이외의 일반 대중이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교통, 공장, 그 밖의 산업 분야에 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무위키 백과에서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흔히 감시 카메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논제에서 의미하는 CCTV는 무인방법카메라를 뜻하는 것으로 찬성 측 1토론자가 내리는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찬성 측 1토론자는 용어 정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 논제와 가장 가깝고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어 정의를 선택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용어 정의 중 논제와 무관하고 출처도 모호하며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정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팽팽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논제 ‘원미동 사람들의 김 반장이라는 인물의 행동은 옳은 찬성 측 입론에서 김 반장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먹고 살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내가 김 반장이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된 미래에 대한 추측이고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근거가 사실성을 띠다고 볼 수 없다.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찬성 측 입론에서 데이 문화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재미있게 살게 해 주어서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 있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증명은 되지 않고 있다.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에서 찬성 측 토론자가 사건예방에 효과적이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근거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의 타당성에서 관련성은 주장, 이유, 근거, 연결고리는 서로 관련이 있는지, 제시한 사실들은 서로 모순이 없는지, 추론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에서 찬성 측 1토론자는 청소년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중학교 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청소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 결과가 아르바이트라는 사회 경험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거의 타당성에서 충분성을 들 수 있다. 충분성은 제시된 사실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부족한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찬성 측 입론에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증 평가 요소 마지막으로 쟁점 형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토론에서 찬성 측은 입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반론을 통해 찬성 측의 입론을 반증해야 한다. 이렇게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펴며 갈등이 생기는 충돌 지점이자 논쟁의 핵심 부분을 쟁점이라고 하는 데 이러한 쟁점이 생김으로써 토론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찬성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반대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토론은 상대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찬찬 토론이 될 수 있다. 토론에서 쟁점 형성은 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상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논증 평가 요소를 통해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토론 단원의 찬성 측 입론과 반대 측 입론을 분석한 결과 논증 평가 요소인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쟁점 형성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논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이 전개한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논증 평가 요소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찬성과 반대 측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주장이 명확해야 하는 측면, 교과서 한정된 지면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거가 사실이고 관련이 있는 것 정도는 교과서 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분석

토론 관련 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³⁹⁾은 공통 교육과정인 ‘국어 I’와 선수 과목의 성격을 띤 ‘국어 II’, ‘화법과 작문’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56>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 성취기준과 토론 요소

구분	내용 성취 기준	토론 요소
국어 I [화법]	(1)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 (2)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토론 태도
국어 II [화법]	(1)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2)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	토론의 본질과 원리, 논증, 비판적 듣기
화법과 작문	(15) 논증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17)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이해하고 내용의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을 파악한다. (20)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21)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논증, 논리적 오류, 논제, 필수 쟁점, 반박

‘국어 I’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 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법’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감적 듣기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기르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국어 II’는 ‘국어 I’와 연계된 선수 과목으로 대학 진학 후 학

39)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10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문 활동이나 사회 진출 후 직업 활동에 필요한 고차원적 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심화된 교양 수준의 국어 생활을 목표로 한다. ‘화법’에서는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공적인 맥락의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의 본질과 특성을 전문적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화법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선수 학습을 통해 관련된 학문과 직업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 성취 기준을 토대로 고등학교 국어 과목을 통해 학습해야 할 토론 요소를 추출해 보면, 토론 태도, 토론의 본질과 원리, 논증, 논증 평가, 논리적 오류, 논제, 필수 쟁점, 반박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 토론과 관련하여 교수·학습해야 할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7>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단원

순서	단원명	통합영역	소단원명
1	7. 합리적인 문제 해결	화법	(2)토론으로 해결하기
2	5. 글의 힘, 말의 힘	독서, 화법	(2)누리소통망의 규제, 필요한가
3	2. 설득과 문제 해결	독서, 화법, 작문	(2)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가
4	6. 우리가 꿈꾸는 소통	화법, 작문	(2)투표, 바른 참여는 무엇인가
5	4. 주장과 근거가 어우러진 설득의 광장	화법, 작문	(1)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
6	4. 생각이 통하는 시간	화법	(2)토론과 논증
7	3. 합리적인 토론, 책임 있는 비판	화법, 작문	(1)문제 해결은 함께
8	6. 말과 글이 지닌 힘	작문, 화법	(2)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토론
9	4.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화법, 문학	(1)토론으로 풀자
10	5. 토론과 발표	화법	(2)토론과 문제 해결
11	3. 생각과 생각의 만남	화법, 작문	(1)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교과서 중 ‘국어Ⅱ’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토론 단원이 개별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토론 교육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⁴⁰⁾를 살펴보면 위의 <표Ⅲ-57>과 같다.

(1) 논제⁴¹⁾

다음 <표Ⅲ-58>의 고등학교 국어Ⅱ 11종 교과서의 논제를 살펴보면 사실 논제와 가치논제는 없고 정책논제 중심으로만 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58>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논제와 논제 유형

순번	토론 논제	논제 유형
1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책 논제
2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3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4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5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	
6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7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8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9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10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11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정책논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의 도입, 유지, 폐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논제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사실논제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가치논제와는 다르다. 정책 논제는 현 상황에서의 제도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제

40)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순번, 출판사, 저자는 다음과 같다. 1(교학사, 김중신), 2(동아출판, 신동훈), 3(미래엔, 윤여탁), 4(비상교육, 우한용), 5(비상교육, 한철우), 6(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7(지학사, 이삼형), 8(창비, 문영진), 9(천재교육, 김종철), 10(천재교육, 박영복), 11(해냄에듀, 노철).

41) 논제 부분은 본 저자의 줄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토론 논제 분석』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제하였다.

시하고 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과 현 상황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찬성 측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이익보다 손해가 큼을 주장하는 반대 측이 팽팽하게 쟁점을 형성하며 토론이 전개된다. 정책 논제는 정책 시행 여부를 묻는 논제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쟁점을 형성하며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의 조건에 맞게 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논제의 조건을 기준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국어Ⅱ 11종 교과서에 실린 논제의 적합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59>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논제 적합성 분석

순번	토론 논제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 적절성	긍정 측 입장	긍정 평서문
1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	×	○	×	○
2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	×	○	×	○
3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	○	○	○
4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	○	○	○
5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	○	×	×	○	×
6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	○	○	○	○
7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	×	×	×	○
8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	○	○	○	○
9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	×	○	○
10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	×	○	○	○
11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	○	○	○	○

논제의 조건인 ‘단일한 논점’은 대부분의 논제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위한 러닝메이트인지,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을 위한 러닝메이트인지 논점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학생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회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나의 논점이 되어 혼란 없이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찬반대립성’은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룰 수 있도록 쟁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해서는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찬성 측 명분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찬성 측에 유리할 수 있다. 이 논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는 수식어구를 생략하고 구체적인 시간대인 ‘심야’를 넣어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로 수정할 수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고지한 바가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는 긍정적 입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와 기업의 반발이 있는 상태여서, 두 입장의 차이로 인해 쟁점 형성이 가능하다. 정부 측에서는 탈 원전, 탈 석탄을 위해 산업용 심야 전기 요금 할인을 축소하며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최저 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 시간 단축으로 힘들어진 기업에서 심야 전기료 인상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양측의 팽팽한 접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는 논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원래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 타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 절약 시간제(DST-Daylight Saving Time)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세계적으로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과거에 사용했다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 폐지된 정책으로 시의 적절성에 맞지 않는다. 이 논제는 ‘~~하자.’는 청유문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결 구도 속에서 논쟁하는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다.

만약, 이 논제로 토론하고자 한다면, 청유형 문장을 평서형 문장으로 전환하고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일광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제 역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원자력 발전소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탈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시의 적절성에 맞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기보다는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탈 원전에 대한 논제로 논의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논제는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수정할 수 있다.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와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같은 대상에 대한 규제와 규제 폐지를 다루고 있다. ‘누리소통망’은 우리말 다듬기에서 ‘Social Network Service’를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고, 이에 대한 줄임말이 SNS이다. 오늘날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으로 누리소통망은 현실 세계와 연계되어 매우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이때, 논제의 용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규제’라는 용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 부정적인 용어는 심리적으로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누리소통망의 정보 제공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와 같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의 논제로 수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는 성서의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위협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을 정해서라도 돕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논제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명칭은 상징적인 것이어서 법의 명확성을 해치고, 수식어 ‘착한’이라는 어감은 심리적으로 찬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버몬트 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불이행과 관련한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구조불이행법’, ‘불구조처벌법’은 입법 계류된 상태로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 도덕을 법으로 강제화할 수 있을지 여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이 논제는 구조 의무를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달라 팽팽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논제가 찬성과 반대의 공평한 대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논제를 ‘구조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 ‘불구조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다.

<표 III-60>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논제 수정

순번	수정 전 논제	수정 후 논제
1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산업용 심야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2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누리소통망의 정보 제공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5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7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
9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회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10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구조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
		불구조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논제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새롭게 제시한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논제는 <표 III-60>과 같다.

(2) 논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Ⅱ』와 『화법과 작문』의 논증과 관련된 내용 성취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Ⅱ』

(1)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토론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정책 토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제에 따라 필수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별로 체계적으로 논증하도록 한다.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논제의 쟁점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이해하고 조정해 가는 토론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내용 성취기준(1)은 정책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체

계적인 논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용 성취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논증 요소, 논증 구조, 논증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에서 논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먼저 한 후, 쟁점별 체계적 논증을 바탕으로 한 토론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비판적 듣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판적 듣기를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신뢰성,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타당성,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공정성 등의 평가 기준을 익힐 필요가 있다. 다양한 내용과 양식의 설득적 담화를 평가 기준을 고려하며 수용함으로써 비판적 듣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내용성취기준(2)에서는 비판적 듣기의 기준으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에서 찬성 측 입론에 대해 반대 측은 비판적 듣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평가 요소로, 승패를 정해야 하는 토론의 특성 상, 승패에만 연연해 주장이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주장을 하는지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화법과 작문』

(15) 논증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설득에 필요한 논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입증 책임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는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무책임하게 자신의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대안의 실현 가능성 및 유익함 등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논증 구성 요소와 기본적인 논증 방법을 익히고, 입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길러 민주 사회에 필요한 설득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토론에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논제에 대해 입론을 하게 된다. 이때, 입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토론에서 논점이 흐려지게 되고 전체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인 입증의 책임이 있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정책 논제의 경우, 찬성 측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 방안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보다 이익이 크므로 문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해결 방안이 효과가 없으며 이익보다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논증인데, 논증의 구성 요소, 논증 방법에 대해 무엇을 교수·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7)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이해하고 내용의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을 파악한다.

설득하는 담화나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과도하게 많은 오류 유형에 대한 지식보다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비판적 이해의 판단 기준인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설득 담화나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오류는 논증에서 잘못된 논증을 말한다. 논증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오류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 많은 오류의 명칭을 알고 그것을 상황에 맞춰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보다는 자신의 논증이든, 상대의 논증이든 그 논증이 어떤 이유로 잘못된 논증인지를 알고 이를 풀어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취기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 내용의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논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등학교 국어Ⅱ 11종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는 논증과 관련이 있는 토론의 개념, 논증 요소, 평가에 대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토론 평가는 태도나 표현 부분을

제외하고 토론 내용인 논증에 대한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표 III-61> 고등학교 국어II 교과서 토론 단원의 토론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순서	단원명	토론 개념	논증 요소	논증 평가
1	7. 합리적인 문제 해결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	주 장, 근거	논제 적절성, 문제의 명확성, 쟁점 형성,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신뢰성, 주장의 공정성
2	5. 글의 힘, 말의 힘	어떤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근거를 들어 자기주장의 정당함과 합리성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옳지 않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화법의 한 형태.	주 장, 근거	쟁점 도출,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일관성, 상대 논증 반박, 주장의 논리성
3	2. 설득과 문제 해결	어떤 쟁점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양측의 토론자가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측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말하기 형식.	주 장, 근거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4	6. 우리가 꿈꾸는 소통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진영이 각각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함을 논증하는 화법의 한 형태.	주 장, 근거	쟁점 파악, 근거의 신뢰성,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공정성, 상대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지적
5	4. 주장과 근거가 어우러진 설득의 광장	어떤 논제에 대해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운 후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화법의 한 유형.	주 장, 근거	쟁점 포착, 근거의 신뢰성,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공정성, 상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6	4. 생각이 통하는 시간	대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논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부당성을 증명하는 담화.	주 장, 근거	근거의 신뢰성,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공정성
7	3. 합리적인 토론, 책임 있다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주 장, 근거	논제 이해, 근거의 적절성, 반박의 논리성, 적절한 결론

	는 비판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옳지 않음을 논증하는 화법의 한 형태.		도출
8	6. 말과 글이 지닌 힘	어떤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화법의 한 형태.	주 장 , 근거	주장의 명확성, 주장의 일관성, 근거의 타당성, 논리적 오류, 상대 논리 허점 반박
9	4.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진영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함을 논증하는 화법의 한 형태.	주 장 , 근거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상대 주장 비판, 반론 근거의 타당성, 본인 주장의 타당성
10	5. 토론과 발표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주 장 , 이 유 / 근거	개념 정의, 논제 분석, 논리적 입론, 타당한 근거 제시, 합당한 결론 추론, 상대 주장 논리적 반박
11	3. 생각과 생각의 만남	어떤 논제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을 나눈 뒤에 찬반으로 대립해서 논리적으로 겨루는 말하기의 한 형태.	주 장 , 근거	입론의 타당성, 반론의 적절성, 교차 질문의 질문 수준, 교차 질문의 답변 수준

먼저 토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11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토론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중학교 교과서와 달라진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토론을 ‘말하기’라고 본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토론을 ‘화법’의 한 형태로 본 교과서들이 많았고, 중학교에서 토론 개념으로 제시한 ‘규칙’, ‘청중, 상대방’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토론은 ‘① 화법(말하기, 담화, 의사결정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의 한 형태이다.(논증하는, 증명하는 명백하게 밝히는, 논리적으로 겨루는) ② 논제/문제/쟁점이(가) 있다.(대립하는, 공동의) ③ 양측이 있다.(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자기와 상대방, 개인이나 집단,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 ④ 논증(입증, 증명)한다.(자기주장의 정당함과 상대 주장의 부당함, 합리적 결론, 합리적 문제 해결) ⑤ 근거/논거를 제시한다.(논리적)’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논증 요소를 살펴보면, ‘주장, 근거’를 제시하는 교과서가 10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장, 이유/근거’를 논증 요소로 보는 교과서가 1종이 있었다. ‘주장, 이유/근거’를 제시한 교과서에서는 ‘이유’, ‘근거’를 분리하지 않고 ‘이유/근거’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고, 두 요소에 대한 개념 정의 또한 빠져 있어서 두 요소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주장, 이유, 근거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토론에 대한 평가 중 논증에 대한 평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쟁점 파악하기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나와 있다.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단원은 논증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I-62>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증 평가 항목 점검

평가 항목	점검 사항	교과서	합계	총합
논제	적절성	1	1	3
	이해	7, 10	2	
개념	정의	10	1	1
쟁점	형성	1, 2, 4, 5	4	4
입론	논리성	10	1	2
	타당성	11	1	
주장	명확성	1, 8, 9	3	12
	공정성	1, 3, 4, 5, 6	5	
	일관성	2, 8	2	
	논리성	2	1	
	타당성	9	1	
근거	신뢰성	1, 2, 3, 4, 5, 6	6	15
	타당성	2, 3, 4, 5, 6, 8, 9, 10	8	
	적절성	7	1	
상대	논증 반박	2, 5, 7, 10	4	7
	논리적 허점·오류지적	4, 8	2	
	주장 비판	8	1	
반론	근거의 타당성	9	1	2
	적절성	11	1	
결론	적절한 결론 도출	7, 10	2	2
교차질문	질문 수준	11	1	2
	답변 수준	11	1	

표를 통해서 볼 때 토론 평가의 총합은 ‘근거> 주장> 상대> 쟁점> 반론·결론·교차질문’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4개 이상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증 평가 항목의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근거의 타당성(8)>근거의 신

뢰성(6)>주장의 공정성(5)>쟁점 파악·상대 논증 반박(4)>주장의 명확성(3)’이었다. 이는 중학교의 논증 평가와 관련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학교 토론 단원의 논증에 대한 평가에서는 주장의 명확성과 근거의 타당성이 같은 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쟁점 파악하기와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같은 순위였다. 평가 순위가 바뀌기는 했으나 중요하다고 보는 논증 요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논증 평가 항목에서는 주장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고등학교 국어Ⅱ의 토론 관련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1)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필수 쟁점 도출, 쟁점별 논증을 통한 서로 다른 주장 이해·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한 토론 능력 신장에 대해 언급한다. 두 번째 성취 기준인 ‘(2)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비판적 듣기를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신뢰성,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타당성,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공정성 등의 평가 기준을 익힐 필요가 있다.’를 제시한다.

이러한 토론 관련 성취 기준은 교과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토론에 대한 논증 평가에서 반영되고 있다. 앞서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논증 평가에서 도출한 근거의 타당성(8), 근거의 신뢰성(6), 주장의 공정성(5), 쟁점 파악(4)은 토론 관련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판적 듣기의 세 가지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에 대하여 세부 항목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3>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1 - 근거의 신뢰성

근거의 신뢰성
1. 정보나 자료는 정확한 것인가?
2.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3. 정보나 자료는 최신의 것으로 내용이 정확한가?

근거의 신뢰성은 중학교 논증 평가에서 다룬 근거의 타당성에서의 ‘용어 정의, 주장, 이유, 근거는 사실인가? 정확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제기한 근거의 사실성

과 관련이 있다. 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의 사실성은 결국 상대에게 믿음을 주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상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가 관련되는 것들 중에서 최신의 것을 선택해서 내용이 정확한 것을 상대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낡은 정보나 자료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여서 그 당시에는 정확한 정보의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잘못된 정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I-64>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2 - 근거의 타당성

근거의 타당성
1. 주장과 근거는 관련이 있는가? 2. 근거는 충분한가? 3.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 합리적인가?

근거의 타당성에서는 주장과 근거는 서로 관련이 있는지, 제공되는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근거의 타당성은 중학교 논증 평가에서의 근거의 관련성, 근거의 충분성이 하나로 묶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 합리적인가를 묻고 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추론’이란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냄.’을 뜻한다. 또한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이고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는 뜻이다. 즉,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판단 과정이 기준에 꼭 알맞게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표 III-65>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3 - 주장의 공정성

주장의 공정성
1.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전하고 있는가? 2. 특정 대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주장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토론 단원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내용으로 주장을 하거나, 편파적인 주장,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공정하지 않은 주장으로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주장의 공정성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펴고, 상대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고등학교 토론 과정에서는 중요한 논증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I-66> 고등학교 논증 평가 요소4 - 쟁점 파악하기

쟁점 파악하기
1. 상대 논증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였는가? 2. 찬성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측이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 측 반론에 찬성이 재반박하면서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는 지점이 형성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대립 지점으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반박을 하게 되고, 반대 측의 반박에 대해 찬성 측에서 재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토론 쟁점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증 평가 요소들을 참고하여 중학교 논증 평가 요소에 새로 추가된 요소들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III-67>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토론 단위 찬성·반대 입론의 논증 평가

순번	토론 논제	주장				근거				쟁점	
		공정성	명확성			신뢰성	타당성			상대 반박	대립 지점
			두괄식	쫓개기	논제 반영		관련성	충분성	합리적 추론		
1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	×	×	×	×	×	×	×	○	○
2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	×	×	○	×	○	×	×	×	△
3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	×	○	×	×	×	×	×	×
4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	×	×	×	×	×	×	×	×
5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	○	×	×	×	×	○	×	×	○	△
6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	×	×	○	×	○	×	○	○	○
7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	○	○	○	×	○	×	×	×	×
8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	×	×	×	×	○	×		×	△
9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	×	×	×	×	×	×	×	×
10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	○	×	○	×	×	×	×	×	×
11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	○	○	○	×	○	×	×	×	×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단위 토론 평가 항목을 점검한 후, 토론 단위의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과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다. 교과서 점검 결과, 11개의 교과서 중 전체 세 영역의 10개의 세부 평가 요소 모두를 충족시키는 교과서는 없었다. ‘타당성(관련성)·명확성(논제 반영)(6)>공정성·명확성(두괄식)(5)>쟁점(대립지점)(3.5)>쟁점(상대 반박)(3)>명확성(쫓개기)(2)>타당성(합리적 추론)(1)>신뢰성·타당성(충분성)(0)’의 순으로 주장과 이유·근거와의 관련성, 주장의 명확성(논제 반영)은 그런대로 지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논증 평가 요소에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토론 단위의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증 평가를 각 단원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68>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7. 합리적인 문제 해결 (2) 토론으로 해결하기		
논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교과서	교학사	저자	김중신 외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지금 우리가 전력난을 겪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입니다. ② 따라서 현재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여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③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산업용 전기가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반 전기 요금보다 훨씬 싸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④ 산업용 전기가 이렇게 싸다 보니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쉽게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과소비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⑤ 이렇게 볼 때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여 전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p>		<p>① 전력난이 문제될 때마다 마치 산업계가 주범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산업계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제조업 분야의 지난 10년간의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을 정도로 전기를 덜 쓰고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③ 전력 과소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④ 또 지난여름 전력 수요가 급증했을 때 많은 산업체에서 휴가를 실시하여 가동을 중단했음에도 전력난은 여전했습니다. ⑤ 이는 현재의 전력난이 산업계의 전력 과소비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⑥ 따라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여 전력난을 해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p>	

<표 III-68>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69>와 같다.

<표 III-69>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여 전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②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여 전력난을 해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⑥)
이유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싸다. 산업용 전기가 싸다 보니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쉽게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과소비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①④)	현재의 전력난은 산업계의 전력 과소비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⑤)
근거	③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산업용 전기가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반 전기 요금보다 훨씬 싸게 공급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지난 10년간의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을 정도로 전기를 덜 쓰고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내고 있다. 또 지난여름 전력 수요가 급증했을 때 많은 산업체에서 휴가를 실시하여 가동을 중단했음에도 전력난은 여전했다. (②③④)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주장의 명확성, 공정성,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이 떨어진다. 찬성 측에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의 과소비에 대한 근거로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반 전기 요금보다 훨씬 싸다는 것을 들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 얼마나 싼지,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과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지난 10년간의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을 정도로 전기를 덜 쓴 근거 부분은 전력 사용량과 생산량을 비교하고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산업체 휴

가에도 전력난이 여전했다는 근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찬성과 반대 모두 주장의 명확성, 공정성,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이 떨어지고 단지, 쟁점은 전력 과소비의 주범을 산업계로 보아야 할지말지에서 서로 대립되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70>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5. 글의 힘, 말의 힘 (2) 누리소통망의 정보 규제, 필요한가		
논제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교과서	동아출판	저자	신동훈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먼저 누리소통망의 개념부터 정의하겠습니다. ② 누리소통망이란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③ 이러한 누리소통망은 인맥을 관리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유용합니다. ④ 하지만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통해 불법·유해 정보들이 급속하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⑤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누리소통망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⑥ 누리소통망에서 정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되며, 과거와는 달리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⑦ 이렇게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매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람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⑧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누리소통망의 정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① 누리소통망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과는 달리 온라인에서 인맥을 통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② 관계를 맺은 친구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는 사적인 의사소통 공간인 누리소통망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또한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한 규제 방침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④ 개인은 자신의 공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만약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누리소통망에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⑥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p>	

<표 III-70>은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71>과 같다.

<표 III-71>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누리소통망의 정보를 규제해야 한다. (⑧)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⑥)
용어 정의	누리소통망이란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②)	누리소통망은 온라인에서 인맥을 통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다.(①)
이유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매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람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⑦)	사적인 의사소통 공간인 누리소통망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②)
근거	청소년의 경우 누리소통망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누리소통망 정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되며,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⑤⑥)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누리소통망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③④⑤)

‘누리소통망의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인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데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용어 정의-이유-근거-주장’의 순서로 설명하듯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상대를 설득하기에 비효율적이다.

둘째, 반대 측이 ‘누리소통망’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새롭게 용어

정의를 하고, 찬성 측에서 내세운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반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쟁점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누리 소통망인 에스엔에스(Social Network Service)를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가,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적 영역으로 보는 찬성 측에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적 영역으로 보는 반대 측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근거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성,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표 III-72>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2. 설득과 문제 해결 (2)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가		
논제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교과서	미래엔	저자	윤여탁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저는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투표는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는 민주적인 절차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③ 국민들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성원으로서 당연히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④ 투표는 국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⑤ 투표의 의무는 국민의 많은 의무 가운데 가장 이행하기 쉬운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① 저는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② 투표 참여 여부는 국민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③ 또한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국민들이 기권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막게 됩니다. ④ 기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⑤ 따라서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p>	

<표 III-72>는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73>과 같다.

<표 III-73>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①)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①)
이유1	투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②)	투표 참여 여부는 국민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막을 수 없다.(②)
근거1	국민들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성원으로서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
이유2	투표는 국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④)	국민들이 기권할 수 있는 권리를 막게 된다. 기권은 유권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③④)
근거2	투표의 의무는 국민의 많은 의무 가운데 가장 이행하기 쉬운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⑤)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⑤)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토론의 쟁점은 투표를 국가를 위한 것으로 볼 지,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볼 지에 있다고 하겠다. 찬성 측은 투표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이고 국민의 의무이므로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투표 참여는 국민의 자유이고, 기권도 국민의 권리이므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토론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 측에서 제시한 근거가 신뢰성,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 찬성 측에서는 투표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전혀 없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여러 수단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투표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표가 국민의 의무 가운데 가장 이행하기 쉬운 의무여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이행하기 쉬워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가 매우 중요한 의무

여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서 내세운 이유에 대한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이 제시한 국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수단이 투표라는 이유에 대해 투표가 아닌 다른 수단을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III-74>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6. 우리가 꿈꾸는 소통 (2) 투표, 바른 참여는 무엇인가		
논제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과서	비상교육	저자	우한용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② 우리는 투표를 통해 우리의 대표인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회장은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학생회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이지요. ③ 따라서 투표는 우리들의 의사를 학생회 사업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하지만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 투표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학생회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지도도 있었지만, 현재의 투표율을 보면 그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⑥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⑦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각종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⑧ 이 제도를</p>		<p>① 투표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② 또한 투표율이 점점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학생회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④ 하지만 무조건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학생회를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권하는 것 또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⑥ 즉, 유권자들은 기권을 할 때의 기대 효용보다 투표를 할 때의 기대 효용이 더 높지 않기 때문에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⑦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불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⑧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투표율만 높이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p>	

<p>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그동안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이 투표하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떨어진 투표율을 즉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⑨ 이렇게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p>	<p>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⑨ 또한 투표를 강제하게 되면 학생회 사업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투표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p>
---	--

<표 III-74>는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75>와 같다.

<표 III-75>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용어정의	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학생들의 대표이다.(①)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각종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⑦)	
이유1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⑥)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학생회를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④)
근거1	이 제도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투표하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떨어진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⑧)	투표를 기권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선택 중의 하나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⑤⑥⑦)
연결고리1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도 높아지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표율만 높이게 되면 문제를 해

	될 것이다.(⑨)	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⑧)
이유2		투표를 강제하게 되면 투표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⑨)

이번 토론의 논제는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이다. 토론 논제로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찬성과 반대 양측의 1토론자들의 입론을 보면,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토론 내용으로 볼 때 논제와는 무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의 논제인 ‘학생회장 선거에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고, 두 토론자 모두 ‘학생회장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 논제에 대한 선명한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혀 다른 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토론의 목적을 학생들을 대표할 학생회장을 잘 뽑는 데 두지 않고, 투표율 향상에 두고 있다. 이는 잘못된 목표를 향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 측도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 향상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어 찬성 측에서 제시한 이유에 대한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장의 공정성, 명확성,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쟁점 형성 모두 문제가 있는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76>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 찬성·반대 입론

단원	4. 주장과 설득이 어우러진 설득의 광장 (1)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		
논제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		
교과서	비상교육	저자	한철우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①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중의 하나입니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		①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② 하지	

<p>의 상승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③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광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일광 절약 시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선선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일몰 시간이 한 시간 늦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과 중의 조명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⑥ 또한 서늘한 아침을 활용하면 냉방용 전력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⑦ 에너지 자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만 여름철에 조명 시설보다 더 큰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입니다. ③ 현재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 시설은 벌써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④ 따라서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어차피 냉방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⑤ 결과적으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전력 사용의 감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⑥ 그리고 일광 절약 시간제가 오히려 자동차 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⑦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이 길어진다면 퇴근 후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⑧ 이때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일광 절약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추가적으로 수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⑨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반대합니다.</p>
--	---

<표 III-76>은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77>과 같다.

<표 III-77>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자’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우리나라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③)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반대한다.(⑨)
용어정의	일광 절약 시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선선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④)	
이유1	에너지 자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 때문이다.(⑦)	경제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⑩)
근거1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일몰 시간이 한 시간 늦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과 중의 조명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서늘한 아침을 활용하면 냉방용 전력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⑤⑥)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냉방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아 전력 사용의 감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②~⑤) 오히려 자동차 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⑥~⑧)

이번 토론의 논제는 ‘일광 시간을 도입하자’이다. 논제가 ‘~~하자’는 청유형 문장으로 제시되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토론 논제로는 부적합하다. 상대에게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제안하는 청유형 문장보다는 ‘일광 시간을 도입해야 한다.’와 같은 확고한 신념이 담긴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토론 논제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의 입론을 보면 주장과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주장과 이유를 분리하여 찬성 측에서는 ‘일광 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를 주장으로 ‘에너지 자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를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 측의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 역시, ‘경제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가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쟁점은 일광 시간제 도입이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될 것이다.

찬성에서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몰 시간이 한 시간 늦어져 조명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서늘한 아침을 활용하면 냉방용 전력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첫째, 냉방 수요는 크

게 줄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자동차 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반대한다. 냉방용 전력 소비와 조명 수요, 자동차 연료 소비 모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의 논증을 재구성한다면 이와 같은 면을 고려하여 주장과 이유를 분리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대를 설득하기에 좋을 것이다.

<표 III-78>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4. 생각이 통하는 시간 (2) 토론과 논증		
논제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	좋은책 신사고	저자	이승원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② 서머 타임제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최근 여름철 전력 소모가 급증하여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④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 증가율은 4.8퍼센트를 기록하였으며 전력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⑤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문제는 계속되어 대정전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⑦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유난히 깁니다. ⑧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⑨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p>		<p>①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② 찬성 측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실내 온도를 규제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가정이나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③ 현재와 같이 에너지 수급을 관리하면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④ 또한 최근 들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 의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성과도 나타나 에너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⑥ 그리고 개인의 여가 시간도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⑦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근로 시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⑧ 따라서 서머 타임제와 같은 단순한 시간 앞당기기 제도로 가정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⑨ 찬성 측에서는 서머 타임</p>	

<p>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성 측에서는 서머 타임제 시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⑪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전력 소비량이 0.13~0.25퍼센트 감소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있습니다. ⑫ 또한 퇴근 시간이나 하교 시간이 한 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저녁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⑬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⑭ 서머 타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⑮ 하지만 서머 타임은 실시 전날만 한 시간 빠르게 시간을 맞춰 두고 이후에는 그 시간에 맞춰 활동하면 되므로 어려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⑯ 또한 서머 타임제는 날씨가 무더워지는 4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⑰ 그러므로 서머 타임제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⑱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큼니다. ⑲ 우선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여 연간 약 341억~653억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의 분산,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808억~919억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⑳ 또한 낮 시간을 이용한 교육, 건강,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어 연간 2조 원대에 달하는 내수 소비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㉑ 이를 고려</p>	<p>제 도입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⑩ 연구 결과 서머 타임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⑪ 그러므로 서머 타임제 도입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⑫ 그리고 서머 타임제는 간단하게 집 안의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⑬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휴대 전화와 같은 통신 체계, 금융거래시스템, 열차나 항공기와 같은 교통 시스템 등 국가 기간 시설의 운영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⑭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⑮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⑯ 오히려 서머 타임제로 출근 시간만 앞당겨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⑰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교통, 통신, 국제 항공 일정 조정, 금융 전산망, 행정 정보망 등 각종 전자 시스템 변경 비용으로 약 200억 원이 듭니다. ⑱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 종료 시점부터 연장 근무 시간으로 산출되어 야근 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요인이 됩니다. ⑲ 또한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어 질병 발병률이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㉑ 국민의 심리적 혼란 역시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이 매</p>
---	--

<p>하면 약 200억 원의 전산 시스템 수정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큼니다. ㉓ 따라서 서머 타임제는 비용이나 부작용보다 장점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p>	<p>우 큼니다. ㉔ 따라서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훨씬 크므로 서머 타임제 시행은 불필요합니다.</p>
---	--

<표 III-78>은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79>와 같다.

<표 III-79>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㉓)	서머 타임제 시행은 불필요하다.(㉔)
용어정의	서머 타임제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를 말한다.(㉕)	
이유1	전력소비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㉖)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㉗㉘)
근거1	전력 소비량이 0.13~0.25퍼센트 감소한다.(㉙)	정부 차원에서 실내 온도를 규제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가정이나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 의식도 개선되고 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머 타임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㉚㉛㉜㉝㉞)
이유2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㉟)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㊱)
근거2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유난히 길다.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 계발을 할	개인의 여가 시간은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크게 늘었다.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근로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퇴근 시간이나 학교 시간이 한 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저녁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⑦⑧⑨⑫)	로 시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머 타임제와 같은 단순한 시간 앞당기기 제도로 가정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출근 시간만 앞당겨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⑥⑦⑧⑮⑯)
이유3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⑱)	이익보다 부작용이나 피해가 훨씬 크다.(㉑)
근거3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여 연간 약 341억~653억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의 분산,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808억~919억의 이익이 발생한다. 낮 시간을 이용한 교육, 건강,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어 연간 2조 원대에 달하는 내수 소비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약 200억 원의 전산 시스템 수정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⑲⑳㉑)	통신 체계, 금융거래시스템, 열차나 항공기와 같은 교통 시스템 등 국가 기간 시설의 운영을 모두 변경해야 하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각종 전자 시스템 변경 비용으로 약 200억 원이 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야근 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다. 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어 질병 발병률이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의 심리적 혼란 역시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이 매우 크다.(⑫⑬⑭⑰⑱⑳)
재주장	서머 타임제는 비용이나 부작용보다 장점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㉒)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훨씬 크므로 서머 타임제 시행은 불필요하다.(㉑)

이번 토론의 논제는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이다. 쟁점은 찬성 측이 제시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반대 측이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형성된다. 첫 번째 쟁점은 서머 타임제 시행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삶의 질이 향상될지, 세 번째는 이익이 클지, 부작용이나 피해가 클지에 대해 양 측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양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로서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이유와 근거(찬성⑩), 주장과 이유(반대㉑)가 혼재되어 있어, 분석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때 어려움을 준다.

<표 III-80>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3. 합리적인 토론, 책임 있는 비판 (1) 문제 해결은 함께		
논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교과서	지학사	저자	이삼형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우리나라는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전력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③ 에너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④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적합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⑤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더라도 석탄은 90원, 수력은 143원, 경유는 1,330원인 데 비해, 원자력은 36원입니다. ⑥ 둘째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⑦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가격이 저렴한 데다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⑧ 따라서 우라늄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⑨ 앞의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찬성합니다.</p>		<p>①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②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③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알고 계시죠? ④ 당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⑤ 또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죠. ⑥ 이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⑦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체르노빌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⑧ 이제 체르노빌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거대한 핵 폐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⑨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원자력 발전소 개발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표 III-80>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81>과 같다.

<표 III-81>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①)
이유1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④)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②)
근거1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더라도 석탄은 90원, 수력은 143원, 경유는 1330원인데 비해, 원자력은 36원이다.(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다. 또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체르노빌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체르노빌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거대한 핵 폐기장이 되어 버렸다.(③~⑧)
이유2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⑥)	.
근거2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가격이 저렴한 데다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 따라서 우라늄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⑦⑧)	.
연결 고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찬성한다.(⑨)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원자력 발전소 개발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⑨)

이번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이다. 찬성과 반대 양측이 모두 주장-이유-근거의 순서로 논증을 제시하고 있어 핵심적인 주장이 앞에 나오는 두괄식 구성을 하고 있다. 주장에 논제가 반영되어 있고, 찬성 측 입론에서는 첫째, 둘째로 분석적으로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서 주장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쟁점 형성에 있어서는 찬성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측에서 찬성 측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서 상대 논증에 대한 반박이 없다보니 대립 지점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제시한 가격 경쟁력과 원료 확보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한 후에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상대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 무책임한 토론자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표 III-82>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6. 말과 글이 지닌 힘 (2) 에스엔에스이 법적 규제에 관한 토론		
논제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교과서	창비	저자	문영진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에스엔에스는 여러 사람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맥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이런 에스엔에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③ 에스엔에스는 친구나 이웃끼리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사적인 놀이터 성격이 큰 공간인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④ 또한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쓴 글을 심의하면 에스엔에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됩니다. ⑥ 에스엔에스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⑦ 이용자들 스스로 에스엔에스를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p>		<p>① 에스엔에스는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고 받는 공적 영역입니다. ② 따라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③ 수만 명과 인터넷 인맥을 맺고 있는 유명인의 에스엔에스는 말 한마디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④ 유명인의 에스엔에스에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이 올라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⑤ 또한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에스엔에스 규제는 필요합니다. ⑥ 에스엔에스가 포털 사이트보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⑦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초등학생들마저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⑧ 따라서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p>	

<표 III-82>는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83>과 같다.

<표 III-83>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에스엔에스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⑥)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⑧)
용어정의	에스엔에스는 여러 사람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맥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이다.(①)	.
이유1	에스엔에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②)	에스엔에스는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공적 영역이다.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①②)
근거1	에스엔에스는 친구나 이웃끼리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사적인 놀이터 성격이 큰 공간이다.(③)	수만 명과 인터넷 인맥을 맺고 있는 유명인의 에스엔에스는 말 한마디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명인의 에스엔에스에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이 올라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③④)
이유2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④)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에스엔에스 규제는 필요하다.(⑤)
근거2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쓴 글을 심의하면 에스엔에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⑤)	에스엔에스가 포털 사이트보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갈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마저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⑥⑦)

이번 토론의 논제는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주장에서는 ‘에스엔에스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논제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측도 ‘에스엔에스의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폐지와는 다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측은 법적 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법적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의 쟁점은 에스엔에스를 사적 공간으로 보고 규제를 폐지해야 할 지, 공적 공간으로 보고 규제해야 할지이다. 사적 공간으로 보는 근거는 친구나 이웃끼리의 놀이터와 같은 공간으로 보았고, 공적 공간으로 보는 근거는 유명인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 측에서는 불법·유해 정보를 막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먼저 찬성 측이 제시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에스엔에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론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 반대 측의 주장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할 것이다.

<표 III-84>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4.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1) 토론으로 풀자		
논제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	천재교육	저자	김종철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① 저희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②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면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각각 자신의 선거 공약을 마련하는 등 선거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선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③ 또한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회장과 부회장의 의견 충돌 없이 일관성 있게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저희는 학생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② 피선거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③ 그런데 팀을 이룬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입후보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피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④ 또한 투표자의 관점에서 팀을 이룬 두 후보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이처럼 러닝메이트 방식은 출마자와 투표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선거 방식입니다.	

<표 III-84>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85>와 같다.

<표 III-85>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도입을 찬성한다.(①)	학생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①)
전제	.	피선거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②)
이유1	선거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선거가 가능해질 것이다.(②)	팀을 이룰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입후보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피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③)
근거1	.	.
이유2	회장과 부회장의 의견 충돌 없이 일관성 있게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투표자의 관점에서 팀을 이룬 두 후보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④)
근거2	.	.
연결고리	.	러닝메이트 방식은 출마자와 투표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선거 방식이다.(⑤)

이 토론의 논제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 시,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이다. 찬반 토론의 제1토론자들의 입론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이유만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상대를 설득하기에 미흡하다. 러닝메이트 방식이 효율적인 선거 운영에 도움이 되고, 일관성 있는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관련 사례나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반대 측도 이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찬성 측이 내세운 이유에 대한 반박 없이 출마자와 투표자의 권리 제한이라는 자기 측 주장을 하고 있어서 쟁점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

<표 III-86>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5. 토론과 발표 (2) 토론과 문제 해결		
논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	천재교육	저자	박영목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최근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다친 한 시민이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② 만약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119 구조대에 신고를 했더라면 그 시민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③ 저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인간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⑥ 비난하거나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⑦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법을 통해 개인의 도덕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⑧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만큼,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p>		<p>① 저희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법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②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면,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법률 만능주의가 생겨날 것입니다. ③ 또한 법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④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p>

<표 III-86>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87>과 같다.

<표 III-87>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③)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법의 도입을 반대한다.(①)
용어 정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인간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⑤)	.
이유1	법을 통해 개인의 도덕의식을 제고해야 한다.(⑦)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면,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법률 만능주의가 생겨날 것이다. (②)
근거1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비난하거나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다.(④⑥)	.
이유2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인만큼,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⑧)	법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③)
근거2	.	개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④)

이 토론의 논제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이다. 논제에서 수식어 ‘착한’이라는 어감은 심리적으로 찬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의 공평한 대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논제를 ‘구조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 ‘불구조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다.

찬성 측에서는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대해 ‘인간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찬성 측에서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도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으로 통해 도덕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반

대 측에서는 이에 대해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법률 만능주의가 생겨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덕과 법이 어떻게 다른지, 법으로 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 제시, 설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찬성 측이 내세운 두 번째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다. 반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아닌 새로운 이유인 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서 쟁점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논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도덕을 법으로 강제화할 수 있을지 여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팽팽한 쟁점 형성이 될 수 있다. 교과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표 III-88>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단원	3. 생각과 생각의 만남 (1)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교과서	해냄에듀	저자	노철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p>①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보통 10대인 시간제 근로자 혹은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③ 이를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p> <p>④ 그 근거로 첫째, 현재 청소년 근로 환경에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⑤ 고용주들은 청소년을 싼 값에 부리고, 손해가 나면 쉽게 해고합니다.</p>		<p>①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② 저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규제를 반대합니다. ③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은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④ 아르바이트는 여러 가지 세상을 경험하고 인생의 다양한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공부입니다. ⑤ 우리는 청소년의 모든 생활을 ‘학생’이라는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⑥ 그래서 학생이</p>	

<p>⑥ 또 지각을 하면 월급을 삭감하거나, 사고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⑦ 이처럼 청소년 근로 임금 체불 문제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⑧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의 가치를 경험하기보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시달릴 뿐입니다. ⑨ 따라서 청소년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합니다.</p> <p>⑩ 둘째, 청소년들은 현재의 돈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⑪ 바람직한 근로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⑫ 그러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유희비나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진로와 연계된 일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⑬ 오히려 현재 노동 환경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⑭ 늦게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 날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⑮ 이는 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⑯ 진로와 연계된 근로 경험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근로를 통해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것에 머무는 현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규제해야 합니다. ⑰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p>	<p>일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⑦ 하지만 학생이기 이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삶 속에서 일, 노동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⑧ 따라서 돈을 버는 목적이 생계형이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형이든 그 목적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좋은 노동 경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p> <p>⑨ 둘째,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⑩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는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면 음성적으로 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의 인권은 더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⑪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일하려는 청소년들이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⑫ 인터넷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라고 입력하면 많은 홈페이지들이 검색됩니다. ⑬ 양성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을 음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⑭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음성화는 청소년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⑮ 이상으로 반대 측 입론을 마치습니다.</p>
---	---

<표 III-88>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입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찬성 측 1토론자와 반대 측 1토론자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표 III-89>와 같다.

<표 III-89>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찬성·반대 입론 논증 구조 분석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반대 측 1토론자 입론
주장	청소년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③⑨)	청소년 아르바이트 규제를 반대한다.(②)
용어정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보통 10대인 시간제 근로자 혹은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②)	.
이유1	첫째, 현재 청소년 근로 환경에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④)	첫째, 청소년은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③)
근거1	고용주들은 청소년을 싼값에 부리고, 손해가 나면 쉽게 해고한다. 지각을 하면 월급을 삭감하거나, 사고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청소년 근로 임금 체불 문제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노동의 가치를 경험하기보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시달릴 뿐이다.(⑤~⑧)	아르바이트는 여러 가지 세상을 경험하고 인생의 다양한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공부다. 우리는 청소년의 모든 생활을 ‘학생’이라는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이 일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규정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삶 속에서 일, 노동이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좋은 노동 경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④~⑧)
이유2	둘째, 청소년들은 현재의 돈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⑩)	둘째,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⑨)
근거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유흥비나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진로와 연계된 일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진로와 연계된 근로 경험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근로를 통해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것에 머무는 현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규제해야 한다.(⑪~⑯)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는다 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면 음성적으로 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의 인권은 더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양성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을 음성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음성화는 청소년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⑪~⑭)

이번 토론의 논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한다’이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보통 10대인 시간제 근로자 혹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용어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용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10대인 시간제 근로자’를 일컫는 말도, ‘10대인 시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 토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그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청소년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공부하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도 인생 공부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동 인권 침해와 좋은 사회 경험은 아르바이트가 갖는 양면성일수는 있지만, 반대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반대 측에서는 먼저, 찬성 측이 제시한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난 후에 자기 측의 이유를 내세워야 제대로 된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도 찬성 측이 제시한 현재의 돈보다 미래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규제하면 풍선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이유를 들고 그에 대한 근거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규제하면 음성화되어 노동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 근거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으로 찬성 측과 동일하게 첫 번째 이유와 근거에서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의 토론 단원 토론 평가 항목을 점검한 후, 토론 단원의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과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 논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증을 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증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잘못 구성된 논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논증 구성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IV. 국어과 토론 지도의 실제

토론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토론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토론 지도는 토론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토론은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 후나 토론 동아리 활동에서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과 수업을 위한 토론은 토론이 국어 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는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교실에서 다인수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⁴²⁾으로 이러한 토론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육과정·교과서 분석과 함께 학습자, 교실 환경, 토론 유형과 같은 다양한 토론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교실토론 지도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실토론 지도의 원리는 영역 통합의 원리, 범 교과의 원리, 학습자 중심의 원리를 추출하여 이에 대해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교실토론의 전략에서는 다양한 토론의 유형 중, 학습자의 토론 경험 및 토론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원탁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디베이트 기본, 세다 토론에 대해 다룰 것이다. 또한 입론, 반론, 교차조사, 최종발언, 판정과 같은 토론 과정을 다루고, 교실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제, 논증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마친 후 교실토론의 설계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 볼 것이다. 현재 토론 단원이 수록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편찬되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새로운 교과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지도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론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추출할 것이다. 또한 영역통합의 원리에

42)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이 교실이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토론에 대해 ‘교실토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 문학, 비문학,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연극에 토론을 접목하여 토론을 활용한 영역 통합 수업 모형과 이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고찰도 병행하고자 한다. 이는 토론이 학습자 중심의 국어 교과 내 영역 통합 및 타교과와의 범교과적인 통합에 유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에서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1. 교실토론의 원리

교실토론의 원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핵심 역량을 근거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섯 가지 ‘국어’ 핵심 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향유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을 신장시켜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학습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실토론의 원리로 첫 번째는 영역 통합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토론은 국어의 하위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들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 둘째, 범 교과의 원리이다. 토론은 국어 교과 외의 다양한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원리이다. 토론은 교사보다는 학습자를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학습자를 학습 맥락 안에서 평가한다.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도는 토론에서 핵심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1) 영역 통합의 원리

토론은 ‘국어’의 하위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대해 통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영역 통합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과 같은

국어 교과 영역 간 통합을 뜻한다.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볼 때 실제 언어활동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Dewey(1938)는 ‘학생들의 삶은 통합적이지만 전통적인 학교는 분절적인 교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영향을 주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경험 중심 통합 교육을 주장하였다(김성수, 2016:5). 그는 참된 교과는 과학, 수학, 역사, 지리 등이라기보다 학생⁴³⁾의 사회적 활동이다. 교과의 주된 구실은 사회활동 전반을 의지적이고 목적적이고 호기심 있고 능동적인 학생과 공유하는 데 있다(성태제 외, 2007:209-210)고 하였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 학습자는 특정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분절적 지식만으로는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 교육은 학습자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교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실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상황맥락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함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유사 상황을 만났을 때를 대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어 교육도 지식 전달 위주의 교과 영역 간의 차이를 중시하는 분절적인 교과 교육에서 벗어나 영역 통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실생활에 유용한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활동을 계획한다면 ‘문학/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의 영역을 통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설이나 동화, 그림책과 같이 이야기가 있는 책을 읽고, 토론 논제를 추출하여 논제에 대해 토론한 후,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습을 담은 문학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문학의 갈래 중 특히 소설의 경우, 인물들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문학 작품 속 갈등은 토론의 대립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물들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순간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 인물들의 사고는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작품 속 최고조에 이르는 갈등 순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인물들 간의 대립에서 어

43) 본문에서는 ‘아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학생’으로 표기하였다.

는 쪽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⁴⁴⁾를 보면, 어린 제재가 길거리에서 음반을 파는 아리 오발두 아저씨에게 배운 야한 가사의 탱고를 아빠를 위해 부르자, 실직자인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 아빠가 제재를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교육적 차별은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를 추출한 후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토론 전,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교육적 차별의 역사, 의미, 효과, 부작용, 국내 사례, 국외 사례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그 자료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여 정리한 후 토론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후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쓰인 학생의 글 중 몇 편을 선정해 고쳐쓰기 수업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오자, 탈자, 문장 표현, 문단 구성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처럼 토론 과정에서의 문학, 언어 기능, 문법 영역의 통합 교육은 학습자에게 총체적으로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매체를 활용하여 토론한 후 글쓰기를 통해 마무리 하는 영역 통합 교육도 가능하다. 영상매체는 EBS 지식e 채널, 영화, 공익 광고를, 문자매체는 신문을 활용할 수 있다. 매체 활용 교육은 매우 유용하게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토론 수업을 하면서 논증의 중요성에 대해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 ‘어썬 굿 맨’, ‘12인의 성난 사람들’, ‘변호인’과 같은 영화나 법정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검사와 변호사의 진실공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EBS 지식 e채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서 토론 전 동기 유발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때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영상은 토론 전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해 토론이 불공정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드라마를 활용하여 토론을 해보면 학생들이 매우 흥미 있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특정 회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논제를 찾아서 논제에 알맞은 형식의 토론을 전개하면 된다. 인상적인 장면이나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등장인물의 성격, 드라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

44) J. M. 바스콘셀로스, 박동원 옮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동녘주니어.

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등과 같이 중립적인 이야기 거리가 될 만한 것을 논제로 삼아서 찬반 논쟁을 하면 좋다. 드라마는 전체를 학생들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드라마 전체의 맥락에 합당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허준’을 본 후,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마을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한 허준의 행위에 대해 ‘허준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할 수 있다. 이 논제는 현실적인 출세를 추구하는 유도지의 삶과 아픈 사람을 뿌리치지 못해 그들을 치료하느라 과거에 늦어서 낙방한 허준의 삶을 통해 현실과 이상 중에서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관련되는 도서에는 ‘꺼삐딴 리’가 있고,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줬다 누명을 쓰게 된’ 신문 기사와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제정’과 관련하여 토론을 확장할 수 있다.

문자 매체인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인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토론을 접목하여 영역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신문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담긴 양 측의 관점을 담은 자료를 미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제로 토론할 경우,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측 논리를 담은 신문 기사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측 논리를 담은 신문 기사를 공평하게 제시한 후, 논제에 대한 양면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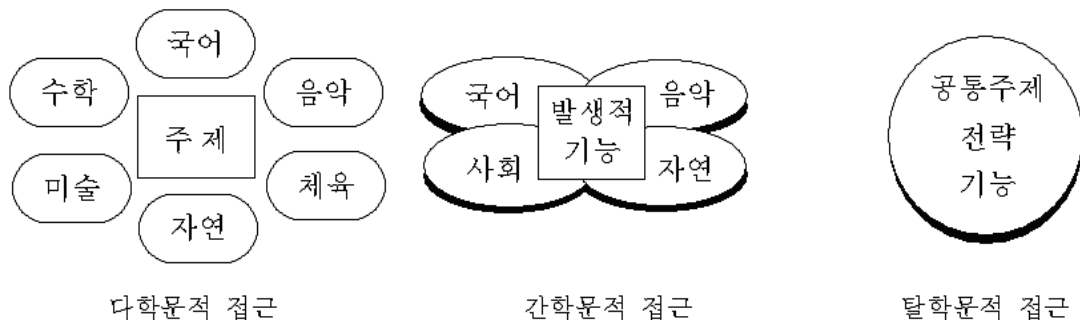
영상·문자 매체를 토론과 접목하여 총체적 언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 현장이 과거와는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학습자들은 재미가 있어야 학습에 흥미를 느낀다. 이러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체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토론 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기능, 문법 영역의 통합 교육은 학습자에게 총체적으로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2) 범 교과외의 원리

범 교과외의 원리는 토론이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인 도덕, 사회, 과학,

수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과거 지식 중심의 교과 구분에서 탈피하여 문제 중심, 흥미 중심, 제재 중심 등으로 교과 간 연계를 통해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횡적인 교과 간 연계만이 아니라 학년을 초월하여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국어 교과와 타교과목과의 연계인 교과 간 통합, 초·중·고등 교육의 유기적 통합에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학습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한 범 교과 수준의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학문 간의 교과 통합은 교과 간의 경계가 어느 정도 유지 되었는가에 따라 ‘다(多)학문적 통합’, ‘간(間)학문적 통합’, ‘초(超)학문적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Drake, 1998). 다학문적 통합은 기본적으로 교과 간 경계는 유지하고 각 교과 교육 안에서 타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한다. 간학문적 통합은 각 교과의 경계는 유지하지만 통합적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각 교과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초학문적 통합은 교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주제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다(김성수, 2016:6). 이들 유형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IV-1]과 같다(박정화, 2004:13).



[그림IV-1] 학문간 연계 형태에 의한 통합교육과정 모형⁴⁵⁾

듀이(J.Dewey)는 교사와 학생의 일상적인 삶을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면서 과학, 수학, 역사, 지리와 같은 분절적 교과목을 가르치는

45) *Planning Integrated Curriculum: The Call to Adventure*(p.46), by S. M. Drake, 1993,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것이 참된 교과가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 관심, 발달 단계, 일상 경험에 맞춰서 교과를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였다(성태제 외, 2007:210).

인터넷의 발달로 넘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학습자들은 지식의 팽창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사는 교과라는 기존 지식의 틀을 과감히 깨고 주제 중심, 화제 중심, 교과 내용 중심, 핵심 원리 중심 등으로 지식을 재구성하여 통합교육을 통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로 학습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기 위해 서로 관련이 있는 교과에서 다각적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부양, 저출산, 소득양극화, 왕따, 학교 폭력, 청년 실업, 통일,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교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기술·가정 1학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을 학습한 후, 국어 교과에서 ‘청소년기 다이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가족의 이해’ 단원을 학습한 후, 이 수업과 연계하여 국어 교과에서 ‘노부모 부양은 자녀가 해야 한다.’, ‘집안 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책임이다.’와 같은 논제로 토론을 한 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단원을 공부한 후, 국어 교과에서 ‘소비가 생산보다 중요하다.’라는 논제로 토론할 수 있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 시간에 평등권에 대해 학습한 후, ‘중등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할 수 있고, 자유권에 대해 학습한 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한 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도덕 4단원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단원을 학습한 후, 국어 시간에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하고, 미술 시간에는 ‘통일 현장 그림에 담기’, 음악 시간에는 ‘통일 노래 부르기’로 통합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토론 과정에서의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문 범 교과 통합 교육은 학습자에게 총체적 언어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습자 중심의 원리

학습자 중심의 원리는 교수·학습이 교사 중심,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뜻한다. 과거 전통적 수업 방식인 교사 중심의 강의식, 암기식 수업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잃게 하여 학습자를 수동적 방관자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수업 방식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오늘날 교육의 패러다임은 고정적 지식을 중시하는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에서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작용을 중시하는 구성주의(46)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 학습자 중심 수업(47)에서의 교사는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교수자가 아닌 학습을 돕는 안내자, 보조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거 피교육자에 머물렀던 학생 또한 수업의 능동적 주체이자 중심인 학습자로서 학습의 각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습자 중심의 원리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학습 맥락 안에서 학습자를 볼 것을 요구한다.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습 목표, 학습 과정, 학습 전략과 같은 인지적 · 메타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호기심, 학습 동기 유발, 흥미, 목표 의식 등과 같은 정의적 요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중시(48)한다.

토론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메타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신장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시한 학

46) 구성주의란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환경,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학습 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강인애, 1997:5-6).

47) 권낙원(2001:30)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다.
2.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3. 학습자의 자유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4. 학습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다.
5. 교사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이다.
6. 내용과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7. 방법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8. 학습자 중심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심리 발달 과정과 일치하며 평생 교육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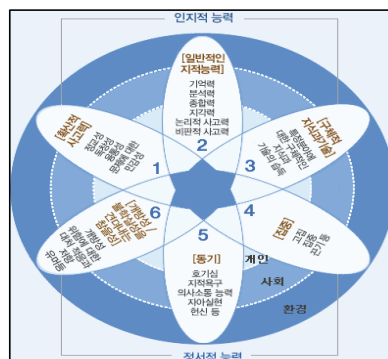
48) 미국 심리학 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학습자와 학습 과정에 적용되는 심리학적 원리를 제시하였다. 인지와 메타 인지적 요인, 동기와 정의적 요인, 발달과 사회적 요인, 개인차 요인의 네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14개의 원리들을 제시한다. <http://www.apa.or/ed/governance/bea/learner-centered.pdf> 의 'Learner-Centered Psychological Principles : A Framework for School Reform & Redesign(1997)' 참고하였다.

습자와 학습 과정에 적용되는 심리학적 원리는 국어 교과의 핵심 역량과 매우 유사하다. 국어 교과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 비판적 사고 역량은 인지적·메타 인지적 요인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정의적 요인으로,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은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토론은 이러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비판적 사고는 지금까지 전통적 교육에서 지식, 개념을 주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지식, 개념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판적 사고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의 발언에 오류가 없는지 의심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반론을 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릴리는 토론과 논증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갖게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학의 논증과 토론 강좌가 표준화 검사에서 비판적 사고 점수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논증 집단 학생이 통제 집단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증된다. 콜버트(Kent R. Colbert)는 CEDA나 NDT 토론에 1년간 참여한 토론자는 비토론자보다 비판적 사고 검사에서의 의의 있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보여주었다(Freeley, 1996:270).

이를 통해서 볼 때 토론을 위한 논증 훈련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역량과 관련되는 토론 요소로는 사실과 의견, 주장과 근거, 논박, 논증, 추론, 오류, 예측, 다양한 관점 보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IV-2] 창의성 구성모델⁴⁹⁾

창의적 사고는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다. 위의 그림은 독일 하노버 대학의 클라우스 우어반 교수의 '창의성 구성 모델(Components model of creativity)'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창의성은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의 결합체로 인지적 능력에는 확산적 사고력, 일반적인 지적 능력, 구체적 지식과 기술이, 정서적 능력에는 집중, 동기, 개방성/불확실성을 견뎌내는 참을성이 해당된다. 이 중, 토론에서 중시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에,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확산적 사고력에 해당된다. 새롭고 가치 있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은 인지와 정서가 함께 융합했을 때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민감하게 끌어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역량이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점·조정하는 능력이다.

1965년 Noam Chomsky는 *Aspects of Theory of Syntax*에서 언어를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 수행(linguistic performance)으로 구분하면서, 언어 능력이란 완전히 동질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그 언어를 완전무결하게 이해하는 이상적인 화자, 청자가 지니는 언어 능력이라고 규정했고, 언어 수행은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이라고 정의했다.⁴⁹⁾

츨스키의 이론에 대한 반발로 나온 개념이 의사소통 능력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관계,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은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다르거나 대립되는 갈등의 지점에서 시작된다. 토론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49) <http://www.nowmesa.org/MesaScholea/scholea.asp>(2018.1.23.) 참고하였다.

50) N. Chomsky., "Aspects of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MIT Press, 1965, p.4.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이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이와 관련되는 토론 요소로는 토론 팀워크, 배려하며 말하기, 공감하며 듣기, 감정조절하며 말하기, 상호교섭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토론에서의 상호교섭적 태도는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상호 교섭적(transaction) 관점은 Barnland(1970)에서 논의된 것으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단순한 상호 작용 이상을 추구한다. 서로를 원인이자 결과, 자극이자 반응, 발신자이자 수신자로 파악하고,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교섭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관점에서 화자와 청자라는 분리된 역할 개념은 ‘참여자’라는 개념으로 바뀐다.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상황을 동시에 규정하며 양 방향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이다. 의사소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의사소통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어떤 화제에 대한 의사소통의 전개 방향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서영진, 2012:36). 토론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며, 토론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토론 과정에서 교사나 텍스트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원리는 학습자의 총체적 언어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실토론의 전략

토론이 교과 학습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교실 상황이 토론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이다. 다인수 학급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실 환경은 교과 교실과 달라서

매번 토론을 위한 토론 모형으로 공간 배치를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실 토론은 교과 수업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교실에서의 토론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판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자들의 활동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어서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교실토론의 전략에서는 교실토론의 유형과 교실토론의 과정, 교실토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제와 교실토론에서 맞게 구조화된 논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실토론의 유형

교실토론은 교육토론의 한 유형이다. 교육 토론(academic debate)은 토론 교육을 위해 만든 토론 방식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게 대립되고, 발언 시간, 순서와 같은 규칙과 형식이 엄격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된다. 토론 결과에 따라 승패의 판정을 내린다. 교육 토론에는 토론대회식 토론과 교실토론이 있다. 교육 토론의 유형으로는 링컨-더글라스 토론, 의회식 토론, CEDA 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칼 포퍼식 토론⁵¹⁾ 등이 있다. 교실토론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 토론 유형 중 필요한 토론 형식을 선택한 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론 단원이 수록된 중학교 3학년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교차질문 없이 입론과 반론만을 제시하는 고전 토론 형식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교차질문이 들어 있는 CEDA 토론 형식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실 상황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토론 유형이 있음에도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토론 유형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실토론의 상

51) 아래 표의 토론 유형은 대부분의 토론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링컨 더글라스 토론’, ‘의회식 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CEDA 토론’, ‘칼 포퍼 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수, 논제 유형, 입증책임, 토론 전략, 교차질문, 준비 시간 등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토론 유형	인원수	논제 유형	입증책임	토론 전략	교차 질문	준비 시간	시간 (분)
링컨-더글라스 토론	1:1	가치	양측	수사전략 > 증거제시	○	×	32
의회식 토론	2:2	가치·정책	찬성	수사전략 > 증거제시	×	×	40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2:2	가치·정책	양측	수사전략 = 증거제시	○	○	37
CEDA 토론	2:2	정책	찬성	수사전략 < 증거제시	○	○	70
칼 포퍼 토론	3:3	가치·정책	양측	수사전략 = 증거제시	○	○	60

황에 맞게 적절한 토론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다양한 토론 유형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교실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 교실토론 유형

유형	원탁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디베이트 기본 ⁵²⁾	CEDA 토론
인원수	4명~6명	4:4(8명)	4:4(8명)	4:4(8명)
논제	모든 논제 가능	모든 논제 가능	모든 논제 가능	정책 논제
교차 조사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작전 회의	없음	있음	있음	있음
특징	토의식 토론. 초보단계의 학 생들에게 유용. 토론 규칙과 판정에 대한 부담감 없음.	동전던지기로 찬/ 반, 순서 정함. 찬 성과 반대 정당성 입증. 교차질의 ⁵³⁾ 있음.	교차조사가 없 고 토론 시간도 짧아 토론을 처 음 접하는 학생 에게 유용함.	교차조사토론. 토론 순서가 복잡하고 토론 시간도 길어 서 토론 심화 단계 에서 사용하는 것 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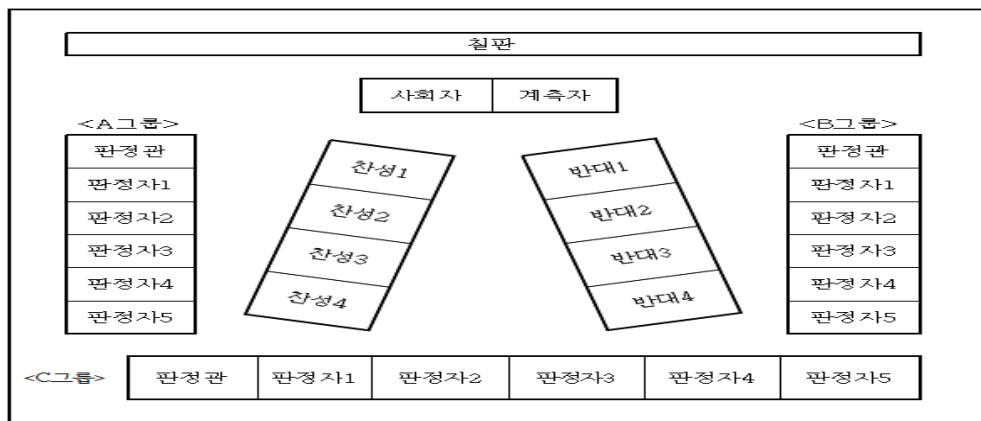
교육토론의 유형 중, 실제 교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론 모형을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수, 다루는 논제, 교차조사 유무, 작전타임 유무에 따라 분류한다면 <표 IV-1>과 같다. 교실토론의 경우, 교육토론의 모형을 변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탁토론과 디베이트 기본 모형은 교육토론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교실토론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서, 교실토론 유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참여 인원도 늘렸다. 교실토론에서는 다인수 학급에 맞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한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4:4 토론으로 8명의 학생

52) 디베이트 기본 토론 모형은 대부분의 교육 토론 유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으나, 본 저자가 오랫동안 토론 현장에서 사용해 본 결과, 토론 기본 단계의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교실 토론 유형의 한 형식으로 취급하였다. 이 모형은 2011년 한국토론교육연구회가 제1회 서귀포 교사토론 아카데미에서 '민사식 모형'으로 보급한 후, 2014년 서귀포시 청소년토론아카데미 기본 모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현재 서귀포시토론아카데미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53) CEDA 토론의 교차조사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교차질의를 양측 토론자가 서로 쌍방 질문하는 형식이다.

이 참여할 수 있는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은 다인수 학급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대한 토론하는 인원을 늘리고, 나머지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회자, 계측자, 판정단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급 정원이 30명인 경우,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은 찬성 4명, 반대 4명, 사회자 1명, 계측자 1명, 나머지 20명의 학생들은 판정에 참여하게 한다. 판정단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서 한 명의 판정관을 두게 한다. 판정관은 자기가 속한 그룹의 판정지를 수합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판정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그룹을 대표하여 발표한다. 교실 토론을 위한 교실 자리 배치는 대표토론자 8명이 판정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팔(八)'자 형태로 배치하고 판정자들은 'U'자 형태로 열을 지어 토론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림 IV-3] 교실토론 자리 배치도

모든 학습자들이 대표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정을 한 눈에 지켜볼 수 있고 대표토론자들도 판정단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면서 토론을 한다면, 토론 과정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이다.

토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대립토론 형식인 디베이트 토론이 낯설고 힘들 수 있으므로 토론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토의식토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탁토론을 수업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1) 원탁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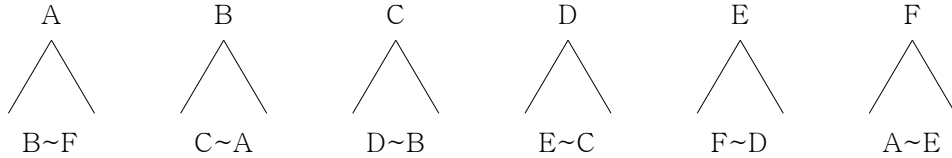
토론의 속성은 논제, 찬반대립, 설득, 규칙, 판정의 순서로 그 엄격성이 강해진다. 토론의 요소로 논제를 선택할 경우, 토론은 넓은 의미의 토론으로 토의와 가까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탁토론은 논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가장 토의에 가깝다. 토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토론 규칙과 판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토론을 어렵다고 느껴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초보 단계의 학생들을 위해 토론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원탁토론은 교실토론에서 적용하기에 유용하다. 토의의 성격이 강해 원탁토의라고도 불리며 본격적인 토론 유형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원탁토론은 보통 4~6명 정도의 토론 참여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방식이다. 형식이 뚜렷한 논쟁형 토론에 비해 별다른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경쟁하는 토론 방식이 아니어서 토론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다. 처음 토론을 접하거나, 토론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자기주장을 발표하기 때문에 토론에서 발언권을 독점한다거나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골고루 발표할 수 있다.

원탁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자는 토론 참여자들이 공평하게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고, 발언 기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 원탁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교사가 사회를 맡을 수도 있고, 학생이 사회를 맡을 경우 사회를 맡은 학생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원탁토론의 진행 방법이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원탁토론 방법>⁵⁴⁾

- ① 토론자들은 자기소개를 한다.(각 1분)
- ② 입론 : 토론자 모두 돌아가면서 자기주장을 발표한다.(각 2분)
- ③ 질의응답 : 입론자에게 돌아가면서 질의응답을 한다. (각 2분)



- ④ 최종발언 : 토론자 모두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한다.(각2분)

원탁토론에 여섯 명(A~F)의 학생이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소요 시간은 42분이다. 토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판정지를 작성하면 토론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질의응답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원탁토론을 위한 토론 판정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 원탁토론 판정지

찬성팀		반대팀					판정관
논제 :							
	입론	질의응답					
A		B	C	D	E	F	
B		C	D	E	F	A	
C		D	E	F	A	B	
D		E	F	A	B	C	
E		F	A	B	C	D	
F		A	B	C	D	E	

54) 원탁토론 방법은 필자가 강사로 참여했던 '2018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에서 강사들의 협의 하에 마련된 토론 방식이다.

토론 판정지는 B4 용지를 활용하여 한 눈에 토론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원탁토론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토의식 토론이므로 시간과 장소, 토론 참여 인원수에 맞게 형식을 정해서 하면 될 것이다.

(2)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토론에 처음 입문하는 기초 단계의 토론자들에게는 접근이 용이하고 토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토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2:2 토론으로 네 명이 토론을 하게 된다. 교실토론에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모형을 활용한다면 많은 학생이 토론할 수 있게 4:4 토론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의 장점은 교차질의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 참가자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토론 모형에는 없는 전원교차질의가 있어 토론에 참여한 전체 토론자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최종발언을 들로 쪼개어 요약과 마지막 초점을 두고 있다. 요약은 앞서 토론자들이 내세운 주장과 반박에 대한 내용을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때 자기 팀 주장의 장점을 강조하고, 상대 팀 주장의 약점을 드러내어 말한다. 마지막 초점에서는 토론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주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하게 부각하여 제시한다.

<표 IV-3> 교실토론을 위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모형

먼저 발언팀(찬성/반대)	나중 발언팀(찬성/반대)
A : 입론(3분)	A : 입론(3분)
준비 시간 (1분)	
A 토론자 간 교차질의(3분)	
B : 반론(3분)	B : 반론(3분)
준비 시간 (1분)	
B 토론자 간 교차질의(3분)	
준비 시간(1분)	
C : 요약(3분)	C : 요약(3분)
준비 시간(1분)	
전원 교차질의(3분)	
D : 마지막 초점(3분)	D : 마지막 초점(3분)
총 소요 시간 37분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에 필요한 토론 판정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 판정지에는 토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V-4>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토론 판정지

찬성팀		반대팀		판정관
논제 :				
	먼저 발언팀(찬성/반대)		나중 발언팀(찬성/반대)	
입론				
교차질의				
반론				
교차질의				
요약				
전원 교차질의				
마지막 초점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에서는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혹은 먼저와 나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미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논쟁형 토론과는 달리 반대 측도 찬성 측과 동일한 입장에서 입론할 수 있어서 찬성과 반대 모두 입증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 외의 토론 모형과는 다른 점이다.

(3) 디베이트 기본 모형⁵⁵⁾

디베이트 기본 모형은 교차조사를 넣지 않은 단순 모형으로 토론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토론 과정을 익힐 수 있다. 토론을 처음 접하는 입문 단계에서는 토론 단계가 단순한 기본 모형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토론자들이 토론 형식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토론에 임할 수 있게 한다. 교차조사가 들어 있는

55) 디베이트 기본 모형과 CEDA 토론 모형은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의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 사용했던 모형이다.

CEDA 토론 모형의 경우 토론 시간이 길고 토론 과정도 복잡하여 토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토론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디베이트 기본 모형은 교차 조사 과정을 뺀 단순모형으로 토론 시간이 짧고 순서도 단순해 토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형이다.

<표 IV-5> 교실토론을 위한 디베이트 기본 모형

논제 :	
① 찬성 1토론자 입론 (3분)	② 반대 1토론자 입론 (3분)
작전 회의(2분)	
③ 찬성 2토론자 1차 반론 (3분)	④ 반대 2토론자 2차 반론 (3분)
작전 회의(2분)	
⑤ 찬성 3토론자 2차 반론 (3분)	⑥ 반대 3토론자 2차 반론 (3분)
작전 회의(2분)	
⑧ 찬성 4토론자 최종 발언 (3분)	⑦ 반대 4토론자 최종 발언 (3분)
총 소요 시간 : 30분	

디베이트 기본 모형은 4:4 토론 모형으로 입론-반론1-반론2-최종발언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작전회의를 두어 팀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베이트 기본 모형에 필요한 토론 판정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 판정지에는 토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V-6> 디베이트 기본 모형 판정지

찬성팀		반대팀		판정관
논제 :				
	찬성		반대	
입론				
반론1				
반론2				
최종발언				

디베이트 기본 모형으로 몇 차례 토론을 하면서, 토론에 익숙해지게 되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교차조사를 넣어서 상대의 토론을 좀 더 경청하고, 질문 과정을 통해 고등의 집중력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게 하는 CEDA 토론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4) CEDA 토론

CEDA 토론은 교차조사를 넣어서 만든 토론 형식이다. 토론자는 상대의 주장을 잘 듣고 반박하고자 할 때 그 주장에 근거하여 질문한다. 토론자가 질문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주요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 그것을 근거로 질문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가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토론 모형이라면, 교차조사가 들어 있는 CEDA 토론에서는 반대 측은 입증이 아닌 찬성 측의 입증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반증의 책임을 갖게 된다. 반대 측은 찬성 측 입론에서 제시한 논증에 대해 반박하되, 반박 과정에서 관련 논증에 대해 확대해 나간다. 찬성 측은 입증을, 반대 측은 반증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표 IV-7> 교실토론을 위한 CEDA 토론 모형

논제 :	
① 찬성 1토론자 입론 (3분)	② 반대 1토론자 입론 (3분)
작전 회의(2분)	
③ 찬성 2토론자 1차 반론 (2분)	④ 반대 3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
⑥ 찬성 2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	⑤ 반대 2토론자 1차 반론 (2분)
작전 회의(2분)	
⑦ 찬성 3 토론자 2차 반론 (2분)	⑧ 반대 2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
⑩ 찬성 3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	⑨ 반대 3 토론자 2차 반론(2분)
작전 회의(2분)	
⑫ 찬성 4토론자 최종 발언 (3분)	⑪ 반대 4토론자 최종 발언 (3분)
총 소요 시간 : 34분	

이 모형은 교차조사가 들어 있는 4:4 방식의 CEDA 토론 모형이다. 전체 8명의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고, 입론과 최종발언을 하는 학생은 각각 한 번의 발언 기회가 있으며 3분을 발언하게 된다. 반론과 교차조사를 하는 학생은 두 번의 발언 기회가 있으며 4분을 발언하게 된다. 입론-반론1-반론2-최종발언을 하는 중간에 작전회의가 있다. 작전 회의 시간은 전체 6분이며 매번 2분씩 주어진다. 교차조사가 들어 있는 CEDA 토론 모형에 필요한 토론 판정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 판정지에는 토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V-8> CEDA 토론 판정지

찬성팀		반대팀		판정관
논제 :				
	찬성		반대	
입론				
반론1			<교차>	
	<교차>			
반론2			<교차>	

	<교차>	
최종발언		

CEDA 토론은 교차조사가 있어서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본격적인 CEDA 토론으로 진행하기 전, 교차조사가 들어 있지 않은 디베이트 기본 모형으로 토론을 먼저 익히고 난 후, 교차조사를 넣은 CEDA 토론 모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실토론의 과정

교실토론의 과정은 토론 절차에서 다루는 각 단계들로 입론, 반론, 교차조사, 최종 발언, 작전회의, 판정이 이에 해당한다. 입론과 반론은 고전 토론에서 오늘날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론 유형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토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에게 질문하는 교차조사는 의회식 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토론 유형에서 다룬다. 최종 발언은 재판의 최후 변론과 유사한 것으로 양측의 마지막 발언자가 마지막 반론과 함께 자기 팀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토론 유형에서는 입론과 반론으로 끝나 최종 발언을 두지 않지만 교실 토론에서는 입론, 반론과 함께 최종 발언 단계를 두어 차별화하는 경우가 많다. 작전회의는 토론 중 각 팀이 팀원들끼리 작전을 짜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시간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토론 유형에 들어 있다. 판정은 토론을 마친 후 토론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홀수로 판정관을 두어 판정하게 한다.

(1) 입론

토론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입론이다. 입론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정당화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세운 입론에 대한 상대 반론에 대비해 미리 튼튼하게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증거를 통해 이유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다. 찬성 측 입론에서는 논제가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 논제의 용어 중 핵심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한다. 입론 준비 과정에서 토론자는 완벽한 입론을 구축하고자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증을 통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스나이더와 슈누러(2015:173-174)에 따르면 입론자는 논제의 유형에 따라 입증하는 과정⁵⁶⁾이 다를 수 있다. 먼저, 사실 논제의 경우 여러 가지 형식의 증거를 통해 사실임을 증명하고, 가치 논제의 경우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 논제의 경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특정한 방안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입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찬성 측 토론자는 입론에서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밝힌 후, 논제에 포함된 용어 중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때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한 입장에서 용어 정의를 하는 게 좋다. 만일, 찬성 측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용어 정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용어 정의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부당한 용어 정의에 대해 반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론이 진행될 경우 토론이 찬성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공정한 토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불편부당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용어 정의에는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을 이용한 사전적 정의, 관련 법률을 인용

56) 이에 대해 강태완 외(2013:40-41)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예를 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검사는 피고에 대한 현 상태의 변화(무죄에서 유죄로의)를 바라는 입장이므로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토론에서의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 원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One who asserts must prove)'는 규칙에 다른 아닌 것이다.

한 법률적 정의, 관련 전문가의 논문, 저서, 학계에서 내린 전문가 정의, 찬성 측이 임의로 내린 정의 등이 있다.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 용어 정의를 한 후,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인 논증을 구성한다. 찬성 측 입론은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 용어 정의, 주장, 이유, 근거, 전제·연결고리, 반론예측과 같은 토론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탈(脫)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이다. 찬성 측 입론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 전 해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번 지진으로 탈 원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회적 배경)** 탈(脫) 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탈(脫)은 ‘그것을 벗어남’이라는 뜻이고, 원전(原電)은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용어 정의)** 우리 팀에서는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한다. **(주장)** 그 이유는 첫째 원전은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유)** 우리나라 원전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 해안가에서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이고, 그 전 해인 9월 경주 지역 지진 규모는 5.8이다. 최근에 역대 1, 2위 규모의 강진이 이웃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로 더욱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규모 9.0 정도의 강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단했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다. **(근거)** 물론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들어 지진이 일어나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반박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가까운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하여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반론 수용 및 반박)** 이처럼 지진, 해일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로 인해 원전이 위험하다면 탈 원전을 해야 한다. **(연결고리)**

이러한 구성으로 둘째, 셋째의 이유와 근거, 반론 수용 및 반박, 전제·연결고리

를 사용하여 입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내세운 입론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한 후 논제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펴면 된다. 찬성 측이 제시한 첫 번째 이유인 ‘원전은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해 위험하다’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원전이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해 붕괴될 위험은 없다. 원전은 안전하다. 지진, 해일 등에 대한 대책도 있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반박할 수 있다.

(2) 반론

반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 상대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 명확하게 논박할 수 있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분명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라 힘든 경우, 반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다면 상대방의 잘못된 논리를 꺾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찬성 측이 증명의 부담이 있다면, 반대 측은 반증에 대한 부담(burden of rebuttal)이 있을 것이다.

‘탈(脫)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에 대해 반대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우리 팀에서는 탈 원전을 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한다.(주장) 찬성 측에서는 원전이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탈 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팀에서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찬성 측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이 안전하기 때문이다.(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원전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특위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내진 설계를 보강한 원전 21기는 ‘0.3g(규모 7.0)’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따르면 국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으로 정의되는 오는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경우 원전 지역의 최대지반가속도는 0.18~0.2g 수준으로 정의돼 있으며 이는 원전의 내진설계 수준인 0.3g보다 낮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약진 지역으로 평가되는 미국 중동부 90여개 원전들의 설계지반가속도는 0.2g 이하로 우리 원전과 비슷하거나 낮다. 현재 원전 내진설계는 선진

국수준에 뒤쳐지지 않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는 단층조사를 실시해 보다 큰 지진이 예측되는 경우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 업그레이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근거) 이처럼 원전이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면, 탈 원전을 해서는 안 된다.(연결고리)

찬성 측에서는 원전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의를 들어 탈 원전을 주장하였으므로, 반대 측에서는 원전이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충분히 견딜 만큼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반론이란 상대측의 논증 구조, 즉 주장이나 이유, 근거, 연결고리의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를 찾아 공격하는 것이다. 찬성 측 입론이 성을 굳건히 쌓는 것에 비유한다면, 반론은 굳건히 쌓은 성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다.

반론은 상대측 논증에 드러난 약점을 비판함으로써 상대측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자기 측의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반론을 할 때에는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 이유, 근거 등을 메모하며 짧은 시간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상대를 공격해야 하므로 다른 어떤 단계보다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반론을 부담스러워한다. 반론⁵⁷⁾을 잘 하기 위해서는 토론 전 논제 해석 단계에서 상대측이 내놓을 쟁점이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미리 예측하여 반론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을 토론에서 활용한다면 반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에 임하면서 토론자가 상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상대 토론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토론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57) 프리리리는 반대 측이 논리를 펼쳐나가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① 논제 관련성(topicality) :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필수 쟁점과 관련한 논의가 본 토론의 논제에서부터 벗어났거나 논제로부터 유추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② 일반화(generalization) :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몇 가지 사례들이 전체 논지(whole resolution)를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 ③ 비전형성(atopicality) :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이 논제를 입증하는 어떤 특성도 담고 있지 않은 비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함으로써 앞서 지나친 일반화의 경우를 보다 정교화하고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개념 정의 : 찬성 측에서 제시한 개념 규정이 합리적인 경우 반대 측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 측은 개념 규정 자체를 논박할 수 있다. ⑤ 판단 기준 : 가치 토론의 경우 찬성 측이 제시한 기준과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설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가치 판단의 타당성(application) : 가치 토론의 경우 반대 측은 찬성 측에서 제시한 가치나 유사 정책이 이 논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박할 수 있다. ⑦ 필수 쟁점(stock issues) :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필수 쟁점 가운데 중요성이나 지속성을 공박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가운데 해결 가능성을 놓고 그 불이익을 따지면,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놓고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 더 나은 대체 방안(counterplans)을 제시할 수 있다(Freeley, 1996:259-279).

(3) 교차조사

교차조사⁵⁸⁾는 교차 질문, 확인 질문, 상호 질문, 교차 질의, 확인 심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교차조사는 입론이나 반론에서 상대 토론자가 제시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상대측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상대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차조사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대 신문(反對訊問, cross examination)과 유사하다. 신문(訊問)은 법정에서 피의자, 증인 등을 상대로 하는 질문으로 법정신문(訊問)은 주신문과 반대 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주신문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된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 증인 진술의 증명력 등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해진다. 주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문청구자에게 유리한 증언이 진술되는데 이를 뒤집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반대 신문인 것이다. 이러한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방식은 토론과정 중에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상대 측 논증의 논리적 오류나 결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교차조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토론에서의 질문은 답을 이미 아는 상황에서 상대 토론자를 향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경우에는 답을 알려주면서 토론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가 질문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통해 자신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상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토론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상대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해주는 것보다 추가 질문을 통해 상대를 힘들게 하다가 교차조사 마지막 순간에 질문의 의도를 설명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차조사에서의 질문⁵⁹⁾은 상대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는 개방형 질문보다는

58) 교차조사는 상대의 논증적 오류를 공격함으로써 심사위원이나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권투시합의 '치열한 공방전'과 같은 역동성을 지닌다 (이두원, 2008:77-86).

59) 이경희(2009:78)는 교차조사의 질문 요령에 대해 '첫째, 짧게 질문하고 짧은 답변을 요청하며 질문의 목적을 암시한다. 둘째, 개방형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셋째, 질문은 입론에서 주장한 자신의 논쟁 속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상대에게 발언 기회를 적게 주는 수렴형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상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삼가야 한다. 그보다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라는 근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 모릅시다로 답해주세요.”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토론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짐으로써 주도적으로 교차 질문 시간을 자신의 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탈(脫)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제2토론자는 반대 측의 반론을 듣고 다음과 같이 교차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측 1토론자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자료에 따르면 규모 7.0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또한 정부가 큰 지진이 예측되는 경우 기존 원전의 내진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원전에 ‘안전’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게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고 내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도 강력한 자연 재해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안전을 예단하다가 규모 9.0의 대지진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고 없이 들이 닥치는 게 재앙입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지 않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 원전을 해야 합니다.”

교차조사⁶⁰⁾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 토론자의 주장을 잘 듣고 그에 대한 논증을 구조화하여 간략히 메모할 줄 알아야 한다. 허점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이 다른 펜을 이용하여 별표를 하거나 특정 표시를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질

60) 교차조사의 요령에 대해 미국의 변호사 윌리엄스(Edward Bennett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교차조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인의 입에 재갈을 물려 오히려 그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끔 절묘하게 다루는 기술이다. ... 따라서 교차조사 시에는 결코 탐색하거나 실험하려 들지 말라. 다시 말해 이미 상대방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코 묻지 마라. 당신이 대답을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대답하기를 거부할 때 상대방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당신이 쓰러질 수 있다.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코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더라도 결코 이를 상대방에게 주지시키지 마라. 그냥 조용히 계속 추가 질문을 던져라. 교차 조사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판사에게 이 점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면 된다(Freeley, 1996:343-344).”

문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노트를 반으로 나눠 양측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다. 교차 조사는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쉽지 않지만 진정한 토론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토론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최종발언

최종발언은 토론 마지막 단계에서 각 팀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최종발언은 최종 변론, 정리 발언, 최종 입장 정리, 최종 결론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토론 과정에서 자기 팀이 상대의 공격에 대해 미처 반론하지 못하였거나 재반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론을 하고, 그리고 난 후 자기 팀이 왜 논제에 대해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토론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최종발언을 맡은 토론자들은 그동안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접근했던 논제에 대해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화, 명언, 비유, 인용 등을 통해 판정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그들의 마음을 자기 팀에 유리하게 움직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토론의 최종발언은 검사나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하는 최후 변론과 유사하다. 다음은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석궁 교수로 알려진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담당 변호사가 한 최후 변론의 내용이다.

“최후변론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증거 자료를 살펴봐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재판장님은 100여 년 전 프랑스 군사재판에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 드레퓌스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진범이 잡혔는데도 당국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채 드레퓌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요. 그런데 100년도 더 지난 21세기에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억지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중략)”

- 영화 ‘부러진 화살’ 중에서 -

법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100년 전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예로 들어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비판한다.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은 모든 진술의 마지막으로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완성하고 마무리한다. 최후 변론은 법정에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최후 변론을 통해 검사나 변호사는 서로 각자의 주장이 상대 주장보다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음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최종발언에서 토론자는 첫째, 남은 이유나 근거에 대한 반론을 한다. 상대측 주장에 대해 아직 반론할 거리가 남아 있다면 철저히 반론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길게 되면 최종발언이 아닌 반론이 되므로 요점만 간단히 한다. 둘째, 자기 팀의 주장과 이유, 근거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강조한다. 입론에서부터 최종발언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던 자기 측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요약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강조한다. 이때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기 좋게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해야 한다. 셋째, 쟁점을 정리하여 알린다. 토론 과정에서 양측은 논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함으로써 쟁점을 형성하게 된다. 토론 과정에서 자기 팀이 내세운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 상대방이 성실히 반론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팀이 내세운 논증에 대해 상대 팀이 이를 놓침으로 인해 그 논증이 아직 살아 있음을 판정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발언에서는 예화, 비유, 인용, 명언 등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판정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소 독서를 통한 폭넓은 배경지식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5) 작전 회의

작전 회의는 숙의 시간, 작전 타임, 작전 시간, 준비 시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토론 유형에 따라 작전 회의 시간을 쓰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작전 회의 시간이 전체 토론 과정에서 일정하게 정해져서 토론자들이 의무적으로 작전 시간을 쓰는 경우와 토론자들이 필요할 때 요청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작전

시간은 매회 2~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토론 모형 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찬성1 토론자와 반대1 토론자의 입론 후, 찬성2 토론자와 반대2 토론자의 반론 후 작전 회의의 시간이 주어지거나, 찬성1 토론자의 입론이 끝나면 반대1 토론자가 입론하기 전에 작전회의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찬성 측이 입론을 듣고 반대 측에서 바로 반박하기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 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전 회의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작전 회의 시간에는 팀원들끼리 토론을 자기 팀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작전을 짜는 시간이므로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작전 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은 토론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 팀 토론자의 논증에 대한 허점과 오류를 찾아서 작전 회의가 끝난 후 발언할 자기 측 토론자에게 공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여 넘겨줄 필요가 있다. 또한 먼저 발언한 자기 팀 토론자가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다음 토론자가 그 내용을 교정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짧은 작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여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자기 팀의 주장을 일관되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상대 팀에서 어떻게 반박하는지 상대 팀 논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여 오류나 허점에 대해 공격하면 된다. 작전 회의 시간을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 보내서는 토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팀원들끼리의 단합이 필요한, 팀원들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6) 판정

토론은 제 3자에 의한 판정⁶¹⁾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박보영, 2013, 312). 판정이란 토론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발언⁶²⁾이 끝난 후 토론의 승패를 결정해 주

61) 제임스 밀턴 오닐(1931:242)은 토론에서 판정이 없었던 사례를 들면서 때로는 판정 없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적절한 판정이 토론을 생산적이고 교육적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62) 정문성은 '최종변론'이라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최후변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일관된 논지 전개를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최종발언'으로 제시하였다.

는 것을 말한다(정문성, 2012, 406). 오늘날의 토론은 대립되는 양측이 논리와 규칙의 틀을 준수하면서 판정관에 의해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이두원, 2014, 17-18).

토론이 끝나면 토론 판정자들은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고 토론자와 청중들에게 승패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이처럼 토론 후 찬반 양측의 토론 결과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승패를 가리는 과정을 ‘판정(judgement)’이라고 한다. 판정자는 토론에서 어느 팀이 더 나은 토론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간혹, 자신의 팀이 토론에서 이겼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의 결과를 듣고 판정에 불복하여 토론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론의 전 과정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논증 구조 파악을 통해 승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은 토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판정관은 판정 결과를 발표할 때, 토론에 임한 토론자에게 격려하는 말을 한 후, 쟁점 중심으로 승패의 요인을 설명하고, 토론자들에게 조언과 건설적인 비판을 해 줄 수 있다. 어떤 점을 잘 했는지? 타당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판정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토론자들이 다음 토론에서 단점을 보완하여 한 단계 향상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판정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판정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토론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의 내용이다. 찬성 측에서는 논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 연결고리를 써서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각자의 주장에 대한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쟁점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어느 쪽이 자신들의 주장을 잘 살려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찬성 측은 주장에 대한 이유, 근거, 연결고리의 논증 세트를 세 개 정도 제시한다. 여기서 반대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면 세 개의 쟁점이 형성된다. 판정자는 이때, 찬성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 세트에 대해 반대 측에서 반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주장과 이유, 근거,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할 것이다. 판정자는 찬성에서 세운 입론이 잘 쌓은 성처럼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남아 있는지, 반대에서 반론을 통해 찬성이 쌓은 성을 무너뜨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판정자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판정에 앞서서 토론자의 외모, 자세, 말투, 옷차림 등으로 토론자의 토론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논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논제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자신과 같은 입장의 토론 팀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열렬히 반대하는 판정자가 원전 건설 찬반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과 같은 편에게 심정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다. 토론은 이러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편견이나 사심을 버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평한 잣대로 토론을 평가해야 한다. 토론자들이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평가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찬성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판정자는 토론 형식, 주최 기관 등에 따라 판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논쟁형 토론에서는 반대 측 1토론자는 찬성 측 1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했느냐가 승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나 칼 포퍼 토론에서는 반대 측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찬반 토론이 아닌 찬찬 토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 유형에 따라 토론 판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토론 주최 기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토론자 개별 점수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팀원들 모두의 점수를 합산하여 토론을 평가할 수도 있다. 최우수 토론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토론 팀으로만 판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토론 판정은 토론 내용인 논증을 가장 중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 목소리, 발표 태도 등을 논증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판정에 대한 기준은 토론 형식이나 주최 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정자는 그 기준을 숙지하고 토론 판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판정자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토론은 복잡

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판정자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토론의 전 과정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해야 한다. 토론 판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여 토론을 듣고 핵심 내용은 빠지지 않게 메모해야 한다. 판정자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A4 용지를 반으로 나누고 토론 참여 인원수만큼 다시 구분하여 토론 과정을 메모할 수 있다. 이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과 같은 색깔 볼펜을 이용하여 토론 내용은 검정색 볼펜으로 쓰고, 파란색 볼펜은 토론 내용에 대한 판정자의 의견을 쓰며, 빨간색 볼펜을 이용해서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찬반 양측의 상대 논증을 어떻게 깨고 있는지의 흐름을 표시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별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토론은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말하기이다. 말하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 토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상의 집중력으로 토론자가 하는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동료 판정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판정자는 토론의 과정을 엄정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토론의 전 과정에 걸쳐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확한 토론 판정을 위해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캠코더나 녹음기,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토론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 토론 전 과정을 집중하여 메모하고 판정을 했다하더라도 장 시간 토론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토론 후에 토론 과정을 복기하면서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토론 복기는 토론에 대한 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논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토론 승패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판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다음 토론을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토론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캠코더나 녹음기, 휴대 전화 등을 사용하여 토론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

3) 교실토론의 논제

교실토론을 위해서는 먼저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를 정해야 한다. 토론을 통

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논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쟁점에서 나온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선정된 논제는 팽팽한 대립각을 이루며 찬성과 반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 반면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유리한 논제는 토론의 승패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논제는 시종일관 토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논제를 선정하거나 개발할 때는 최종 결정까지 신중해야 한다.

현재 토론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하나의 단원으로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의 토론 논제를 살펴보면 토론의 성공과 실패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논제가 적지 않다. 질 높은 교실 토론을 위해 교사는 교과서를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과서의 토론 논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여 토론 논제가 부적절할 경우 실제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바꾸거나 새로운 논제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 논제의 적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논제를 실제 토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다듬을 줄 알아야 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논제를 직접 개발해 보는 과감성도 필요하다.

교실토론을 위해 교사는 교과서의 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논제를 개발할 수 있다. 본격적인 교실토론을 하기에 앞서 토론 논제 찾기, 논제 다듬기, 자료 찾고 정리하기의 과정을 통해 토론논제를 확정하고 토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1) 논제 찾기

논제는 교실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관련되는 자료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의 토론 논제를 살펴보면 시사성 있는 논제는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서 특성 상 한 번 검정을 통과하고 나면 5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태여서 매해 시사성 있는 논제로 바꾸기란 쉽지 않다. 교사는 교과서에 의존하여 시대 상황과 무관한 논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시사성 있는 논제를 찾아 논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토론하기에 적절한 논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 먼저,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담은 방송, 신문,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을 통해 토론 논제로 사용할만한 시사성 있는 논제를 찾아본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박하며 회자되는 문제는 토론 논제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과 함께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의 내용 속에서 토론거리인 논제를 찾는다. 이때, 시기적으로 오래된 논제가 아니라 되도록 최신 것을 찾아야 한다. 오래된 논제는 이미 논란 속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정책 논제인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지, 그것이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따져 논제로 선택할 수 있다.

토론 논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면 논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표IV-9>는 교실토론 논제에 대한 예시이다.

<표IV-9> 교실토론 논제 예시⁶³⁾

논제 유형	논제 예시
가치 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미래보다 우선한다. ·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 · 내 뜻보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 · 갈대보다 참나무의 삶의 방식이 더 가치 있다. · SNS는 유용하다. · 유전자조작먹거리(GMO)는 유익하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 개미보다 벼지이의 삶이 더 행복하다. · 환경보전이 환경개발보다 우선이다.
정책 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의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 ·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형사 처벌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 GMO 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국회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63) 논제의 예시들은 필자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토론 강사로 참여했던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에서 사용했던 논제들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 ·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 ·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	--

2012년에 있었던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 이후 올레길 안전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면서 ‘제주 올레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지금은 더 이상 토론 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가, 2015년 10월에 있었던 ‘캣맘 사건’이 있고 난 후, ‘형사 처벌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가,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 후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논제로 채택됐었다. 토론은 이렇게 시사성 있는 논제를 택해서 하면 관련 자료를 찾기도 쉽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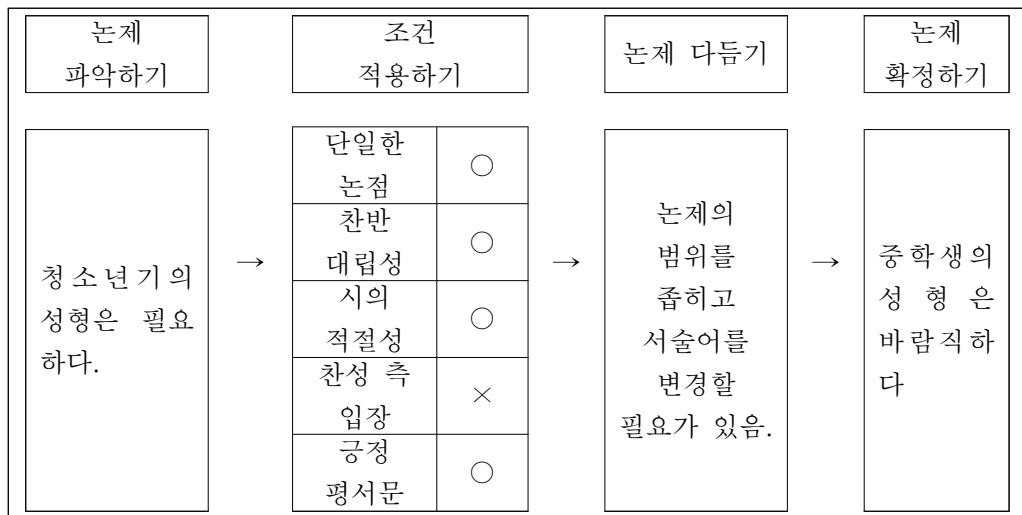
토론 논제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토론도 활발히 전개된다. ‘중학생의 색조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중고생의 교복을 자율화해야 한다.’와 같은 논제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쟁점도 팽팽히 맞설 수 있어서 토론 논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2) 논제 다듬기

잘 다듬어지지 않은 논제를 조건에 맞는 논제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를 개발할 수 있다. 먼저, 토론 전, 학생들과 토의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양측이 대립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 토론해보고 싶은 것을 브레인 스토밍의 기법으로 제시하게 한다. 교사는 칠판에 학생들이 제시한 논제

를 모두 쓴다. 여러 개의 논제 중 논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논제는 하나씩 지워간다. 마지막으로 3개 정도의 논제가 남았을 때 학생들의 거수를 통해 하나의 논제로 의견을 모아간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논제에 모두 손을 들게 해서 가장 많은 손을 얻은 논제를 선택하면 별 무리가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논제는 아직은 미완의 상태로 잘 다듬어지지 않았으므로 논제의 조건을 대입하여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생들이 토론을 위해 처음에 제시한 논제들⁶⁴⁾로 논제의 조건에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논제들이다. 논제 조건을 적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논제 다듬기를 통해 논제를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논제를 확정지었다. 그 과정을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 청소년기의 성형은 필요하다.
- ㉡ 학생들의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 ㉢ 이성교제는 학력향상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
- ㉣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 ㉤ 구급차, 응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림 IV-4] 교실토론 논제 확정 과정에 대한 예시

64) 논제 ㉠, ㉡, ㉢은 연구자가 재직 중인 서귀포여자중학교에서 2015년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토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시한 논제이고 ㉣, ㉤은 2017년 서귀포 청소년 토론아카데미 논제 수업 시간에 심화반 학생들이 제시한 논제이다.

논제 ㉑ ‘청소년기의 성형은 필요하다.’에 대해 논제의 조건을 적용해보면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적절성, 긍정평서문의 조건은 지키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 입장’을 논제가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논제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도중의 시기’이다. 아동과 성인의 중간 시기로 볼 때 청소년기는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걸쳐게 된다. 논제의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는 서술어 역시 문제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필요하다’는 ‘(~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성형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 청소년에게 성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제는 학생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중학생의 성형은 바람직하다’로 수정하였다.

논제 ㉒은 ‘학생들의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이다. 논제 ㉑도 논제 ㉑과 같이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적절성, 긍정평서문의 조건은 만족하나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 입장’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라는 넓은 논제의 범위를 중학생으로 제한하고,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초화장이나 선크림, 비비크림과 같은 정도의 화장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담은 ‘중학생의 색조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논제 ㉓은 하나의 논점이라는 조건에 어긋난다. 이성교제가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를 선택해서 논제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는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로 바꾸면 될 것이다.

논제 ㉔은 문장 안에 ‘~위해서라면’은 ‘위하--+여서+-라면’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위해서라면’은 어떤 대상에게 이롭게 하거나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통일을 위하다’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두 문장의 결합으로 ‘통일을 위해서라면’이 부사절로 뒤에 오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단문이 아닌 경우여서 논제로 다루기가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엇이든 해야 한다.’에서 ‘무엇이든’은 ‘어떤 경우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라는 의

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위배되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반대 측에서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 논제는 반대 측에 매우 유리한 논제로 논제 다듬기를 통해 토론하기 좋게 선명한 단문인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논제 ㉔은 ‘구급차, 응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제로 이 논제는 ‘하나의 논점’이라는 논제의 조건을 어기고 있다. 두 가지의 경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구급차’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차’이다. 구급차, 응급차를 포함한 긴급 차량에는 그 외에도 소방차, 경찰차 등이 있다. 이러한 긴급 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너무 약해서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살인미수죄는 그 간극이 매우 크다. 현행 과태료 수준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긍정 측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제를 다듬으면 ‘긴급차량에 대한 고의적인 진로 방해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논제 ㉕~㉗을 논제 조건을 적용하여 다듬는 과정을 통해 수정한 논제를 살펴보면 <표IV-10>과 같다.

<표 IV-10> 수정 전 논제와 수정 후 논제

순번	수정 전 논제	수정 후 논제
㉕	청소년기의 성형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성형은 바람직하다.
㉖	학생들의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중학생의 색조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
㉗	이성교제는 학력향상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

㉞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
㉟	구급차, 응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긴급차량에 대한 고의적인 진로 방해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논제의 조건에 어긋난 논제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하기에 적절한 논제로 바꿀 수 있다. 논제를 수정할 때는 어떤 이유로 논제가 부적절한지 분명히 짚고 난 후에 논제의 조건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스스로 논제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논제 자료 정리하기

논제가 정해지면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논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팽팽히 대립될 경우 채택되기 쉽다. 한창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를 토론 논제로 정한 경우, 책,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 찾기가 수월하다.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 논제에 사용된 개념에 대한 정의 내리기, 찬성과 반대의 대립되는 쟁점 찾기 등 항목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실제 토론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활발하고 역동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토론자들이 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풍부한 배경지식은 깊이 있는 독서력이 바탕이 된다. 책, 논문, 신문, 잡지 등 활자 매체를 통한 꾸준한 독서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독서과정에서 저자와의 내밀한 대화를 통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 논문을 통해 논제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경우, 저자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지, 문제를 객관적인지 관점에서 기술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최근 저서인지, 출판사는 믿을 만한지 등을 살펴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 공신력 있는 언론 기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믿을만한 언론사의 기사라 하더라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에서 쓴 기사인지, 흥미 위주나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는 아닌지 비판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성향이 다른 두 언론사가 논제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의 사실을 실었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토론 전 양측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인쇄매체를 통해 출판물을 읽기보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영상물로 보는 데 익숙하다. 인터넷 정보인 경우 맹신하기보다 확실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정확하고 사실인 정보인지를 확인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익을 위해 생산되는 가짜 정보도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어서 인터넷 자료의 경우 반드시 사실의 진위여부를 살핀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논제에 대한 자료를 찾은 후, 수집한 자료를 항목 별로 정리해 두면 실제 토론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때 자료를 정리할 때는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 개념 정의, 쟁점 찾기로 나누어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찬성 측 제1토론자는 입론에서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증을 펼치게 된다. 논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시하는 것이 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하계 서귀포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다루었던 ‘제주 올레 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는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 이후 범죄 예방 및 안전과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올레 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토론 논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자연 탐방과 휴식이라는 올레길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의 대처가 너무 즉흥적이고 안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었다.

2014년 6월 4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선거 열풍이 불었다. 이와 관련한 논제로 ‘국회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가 하계 청소년 토론아카데미의 논제로 채택되었다. 이 논제는 현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 이어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청소년이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

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감 및 정당 후보들이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 복지에 대한 공약도 내세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찬성 측 의견에 반대 측에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부작용을 들어 반론을 전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언어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판단을 성립시키기도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토론 논제에 나타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후 토론에 임해야 같은 방향으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다.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면 토론은 하나의 합일점을 향해 가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같은 목표로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 논제에 나타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의는 찬성 측 입론자가 하게 되는데 만약 찬성 측 입론자가 개념 정의를 잊고 하지 않았다면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이에 대해 지적한 후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토론에서 반대 측이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논제 ‘GMO 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에서 GMO는 각 단어의 첫 자음만 따서 약자로 나타낸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GMO는 유전자 변형 생물(遺傳子 變形 生物,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MO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GMO를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농림부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토론 전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린 후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다. GMO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토론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어서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에서 동성은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성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별이 같은, 즉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말은 동음이의어가 많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고 토론에

입할 경우,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토론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논제에서 동성은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처럼 같은 성별을 의미하고, 동성결혼이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이 논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및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류의 존속 및 사회 공동체 유지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쟁점이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의미한다. 토론은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논제에 대한 쟁점이 형성된다. 실제 토론에서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마다 모두 토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토론 전 어떤 것을 필수쟁점으로 보고 토론을 전개할 지 예측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 측이 나누어지기 전, 다양한 관점에서 논제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지도하는 교사는 토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논제에 대한 쟁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질문은 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하거나, 가정법을 사용하여 만약 앞으로의 상황이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처럼 전개된다면 어떨지를 묻는 등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논제에 대한 필수 쟁점은 찬성 측 제1토론자가 입론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몇 가지 쟁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쟁점을 정리한다면 논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살펴보기에 용이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찬반 대립이 가능하다. 여러 쟁점 중 우선시 되는 쟁점을 필수쟁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인 로봇의 활약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찬성 측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인공지능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질병 치료에 이용됨으로써 인간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찬성 측과 질병에 대한 잘못된 처치를 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하는 반대 측이 또 다른 쟁점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쟁점은 경제적 측면인데, 인공지능의 등장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다. 찬성 측에서는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 경제적으로 유택해지는 부의 가속화를 이룬다고 본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인간의 일자리가 줄고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반론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찬성과 반대 쟁점 예시1

논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입장		찬성	반대
쟁점	1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저하
	2	생명 연장	생명 단축
	3	부의 가속화	부의 불평등 가속화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 보전과 개발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케이블카와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고민하게 하는 논제이다. 이 논제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한라산 이용객의 증가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밟아대는 답압(踏壓)으로 인해 한라산 훼손이 심각하므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자연 보호와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사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해 자연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에서 케이블카를 설치에 대해 내세운 두 번째 이유는 케이블카 설치의 관광 활성화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라산 등반을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등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라산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제주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적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표 IV-12> 찬성과 반대 쟁점 예시2

논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입장	찬성		반대
쟁점	1	자연 보호 생태계 보존	자연 훼손 생태계 파괴
	2	관광 활성화로 제주 경제 도움	과도한 설치비용으로 인한 적자 우려

논제의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 개념을 정의하며 찬성과 반대 양측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토론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토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논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미비한 자료로 인해 토론이 맥없이 끝나버리는 데서 오는 아쉬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토론 과정을 미리 예상하여 쟁점 중심으로 토론한다면 유익하고 인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4) 교실토론의 논증

논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증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 왔던 사회적 통념에 대해 의문을 품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함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을 설득력 강화의 필수 요소로 보았다. 그는 설득의 3요소 중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 능력인 로고스를 제시했다. 청중 중심의 논증 행위를 중시했던 신수사학의 창시자 페렐만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리는 사물과 정신의 조응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명료해진다고 한다(미에치슬라브 마넬리, 2006:252). 페렐만의 신수사학은 청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의 방법으로 논증에 대해 말한다. 페렐만은 ‘논증의 목적은 몇몇 전제들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의견에 청자들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1988:23)이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주요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이성

적인 논증 공간인 공론장(Public sphere)에서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이 비판적 합리성의 증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또 논증에 대해 ‘어떤 사안의 타당성 여부를 논거를 통해 뒷받침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대화 형태’라고 정의했다. 현대에 들어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논증이 담당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논증은 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힘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토론에서도 논증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현장에서도 갈등은 늘 존재한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토론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의 근간을 이루는 논증에 대해 교실토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논증 방식

교실토론 논증 방식은 크게 연역 추론과 비연역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연역추론은 삼단논법이, 비연역추론은 귀납추론과 유비추론이 대표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귀납추론에서는 예시에 의한 논증을, 유비추론은 유추를 사용한다.

연역 추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여 특수하고 개별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 추론 방식이다. 다음은 연역추론의 하나인 삼단논법의 도식과 예시이다.

<표 IV-13> 삼단논법의 도식과 예시

단계	도식	예시
대전제 (보편적 판단)	모든 ★은 ♥이다.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
소전제 (개별 판단)	☆는 ★이다.	인간은 포유동물이다.
결론	(그러므로) ☆는 ♥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손을 남긴다.

연역 추론은 일반적 원칙인 대전제가 참이라면 거기에서 연역되어 추론된 결론도 참이라는 확실성이 보장된다. 예를 들면,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

‘인간은 포유동물이다.’가 참이므로, 결론인 ‘인간은 자손을 남긴다.’는 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역 추론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전제인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가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귀납 추론이 필요하다.

귀납 추론은 다수의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주장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추론 방법으로 예시에 의한 논증이 있다.

<표 IV-14> 귀납추론의 도식과 예시

단계	도식	예시
전제1 (개별 판단)	★은 ♥이다.	사자는 포유동물이고 자손을 남긴다.
전제2 (개별 판단)	☆는 ♥이다.	코끼리는 포유동물이고 자손을 남긴다.
전제3 (개별 판단)	*는 ♥이다.	돌고래는 포유동물이고 자손을 남긴다.
전제4 (개별 판단)	㉠는 ♥	인간은 포유동물이고 자손을 남긴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 ☆, *은 ♥이다.	(그러므로)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

앞에서 살펴 본 연역추론인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든 포유동물은 자손을 남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는 동물들이 모두 종족을 남겼다는 사실을 가지고 추리해야 할 것이다. 귀납추론이 없다면 연역 추론도 없는 것이다. 귀납 추론을 할 때 알아보려는 대상들을 골고루 조사하지 않고 어느 부류에 치우쳐 알아봤다면 올바른 귀납 추론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의 영역은 점점 확장될 수 있다.

유비 추론은 유사한 사례를 근거 삼아 이것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면 자신의 주장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비유를 사용한 추론으로 유추라고도 한다.

<표 IV-15> 유비추론의 도식과 예시

단계	도식	예시
1단계	★과 ☆은 (다르지만) ✕라는 속성을 가진 점에서 유사하다.	진시황과 히틀러는 (다르지만) 독재자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단계	★에는 ☼의 속성이 있다.	진시황은 책을 불태웠다.
결론	☆도 ☼이라는 속성이 있다.	히틀러도 책을 불태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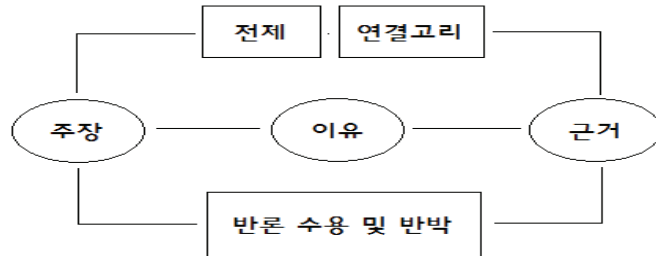
유비추론은 비교 대상(★)과 목표 대상(☆)의 유사점(✕)을 근거로, 비교 대상(★)에게 (☼)라는 속성이 있다면, 목표 대상(☆)에게도 (☼)라는 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세계 역사는 진시황과 히틀러를 독재자로 평가한다. 진시황이 책을 불태웠다면, 독재자인 히틀러도 책을 불태웠을 것이다. 실제, 진시황의 경우는 자신의 집권을 위해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유학자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로 유명하다. 히틀러 역시, 베벨 광장에서 자신의 정권에 반하는 불온서적을 선정하여 약 2만권의 책을 불사른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많은 이들을 살상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2) 논증 구조

논증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논증구조를 이룬다. 논증 구조에는 주장, 이유, 근거, 전제·연결고리, 반론 수용 및 반박과 같은 논증 요소들이 포함된다. 하나의 주장과 여러 이유만으로 구성된 논증은 내용이 빈약해 보이고, 하나의 주장과 수치나 인용구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근거만으로 이루어진 논증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유가 있어야 논증의 논리와 구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근거가 있어야 이유의 토대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와 주장의 연결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제·연결고리⁶⁵⁾ 또한 필

65) 2011년 제1회 서귀포토론아카데미에서는 ‘연결고리’를 ‘고리’라는 용어로 사용했었다. 그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토론아카데미에서는 ‘연결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요하다. 반론수용 및 반박은 상대의 반론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5] 교실토론 논증 구조

논증 구조에서 필수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가 될 것이다. 전제·연결고리와 반론 수용 및 반박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논증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6> 교실토론 논증 요소

요소	설명	중요도
주장(claim)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 가장 강한 의견, 논증의 결론	필수
이유(reason)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생각해 낸 것)	필수
근거(data)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증거 (비깁세상에서 가져온 것)	필수
전제·연결고리 (warrant)	전제 : 주장과 이유를 이어주는 보편적인 원칙, 원리 연결고리 : 주장과 이유와의 관련성	추가
반론 수용 및 반박 (Acceptance of counter argument and rebuttal)	예외 상황인 반론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	추가

교실 토론의 논증 구성에 대한 실례는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an)'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영화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피고를 사이에 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한 자기주장을 편다.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은 토론의 과정과 같다. 검사는 찬성 측 토론자이고, 변호사는 반대 측 토론자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자

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는 검사의 논증에 대한 오류, 비약, 인과관계의 부적절성, 과장 등을 파헤쳐 잘못되었음을 반증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쿠바의 판타나모 기지에서 산티아고 사병이 2명의 해병에게 거친 폭행 끝에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즉각 워싱턴에 보고되고,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이 뛰어난 캐피 중위에게 맡겨진다. 그는 이 사건을 위해 겔로웨이 소령과 한 팀이 되는데, 겔로웨이는 캐피와 달리 합의보다는 진실을 추구한다. 겔로웨이에게 떠밀려 조사를 계속하던 캐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법정에서 검사는 2명의 해병이 산티아고 사병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는 명료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게 된다. 그에 반해 반대 측 변호사는 검사의 변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변호사는 이런 순서로 주장을 펼칠 것이다.

“유죄를 증명하는 검사의 주장은 잘못되었다.(주장) 왜냐하면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첫 번째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이유1) 그 근거는 ~~ 이다.(근거1) 첫 번째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연결고리1) 검사의 두 번째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이유2)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다.(근거2) 검사의 두 번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검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연결고리2)”

변호사가 변론을 펴는 방식은 바로 논증 구성 방식과 일치한다. 교실 토론에서도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토론자는 탄탄하게 논증을 구조화하여 증명의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법정 판결 과정에서 논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법정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12명의 배심원이 친아버지를 살해한 소년의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결정을 하면 소년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 무더운 날씨, 좁은 공간에 갇혀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정황상 유죄로 보이는 소년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리고 불편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처음 투표 결과는 유죄 11대 무죄 1로 단 한 명의 배심원의 반대로 회의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소년이 유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한 명의 배심원은 편견, 독선, 아집, 선입견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의심되는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 증거물들을 통해 서서히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 결국 최종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소년이 무죄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선부른 감정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고,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물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논증은 토론의 내용을 이루는 가장 주된 요소로 평소 관심을 갖고 논리를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유를 제시하고 이러한 이유들을 수합하여 최종 결론인 주장을 펴고, 이유와 주장과의 관련성을 연결고리로 묶어서 다시 제시한다면 탄탄한 논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잘못 구성된 논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논증 구성 능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교실토론의 모형

교실토론의 수업 모형은 계획-실행-적용의 3차시의 과정으로 구안하였다. 먼저, 교실토론을 계획하는 1차시에는 토론에서 사용할 토론 모형을 익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읽고 서로 대립되는 지점인 쟁점을 찾는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 논제를 정한다. 이때, 토론 논제는 논제의 적합성에 맞게 제시된 논제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 구조를 밝힌다. 논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이유, 근거, 전제·연결고리, 반론 예측 및 반박과 같은 논증 요소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토론 실행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 토론 개요서는 과제로 제시하여 토론 전에 미리 써올 수 있도록 한다.

계획 (1차시)	토론 모형	토론 모형 익히기
	자료 읽고 쟁점 찾기	작품 읽고 쟁점 찾기
	논제 정하기	토론할 논제 정하기
	논증구조 밝히기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 구조 밝히기
	역할 나누기	토론자, 사회자, 계측자, 판정단으로 역할 나누기
	토론 개요서 쓰기	토론 개요서 쓰기(과제)
실행 (2차시)	토론하기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하기
	판정하기	토론에 대한 판정하기, 판정지 쓰기 학생 판정 듣기, 교사 최종 마무리
적용 (3차시)	토론 복기하기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 복기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논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

[그림 IV-6] 토론 수업 모형

2차시는 논제에 대한 교실토론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교실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진행 과정을 미리 학습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여 주어진 시간에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론을 마친 후, 학생판정단의 판정을 듣고 교사가 최종 마무리한다.

3차시는 교사가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전 시간에 이루어졌던 토론의 과정을 복기한다. 학생들이 토론 판정에 대해 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승패가 나뉘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토론 쟁점을 중심으로 어느 편의 주장에 대한 논증이 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후, 논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다. 토론을 한 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면 토론 과정에서 다른 토론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글의 내용이 매우 풍부해질 수 있다.

토론은 국어교과의 전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 통합

에 활용할 수 있다. 토론은 몇몇 영역을 한 데 묶어 융합 수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문학·비문학 수업,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연극 수업에 토론을 활용한 융합 수업의 모형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토론·문학 수업 모형

토론을 활용한 문학 수업 교수·학습 모형은 문학 작품 속 갈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층적인 작품 해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총체적인 언어 사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시사적인 논제의 경우, 교과서가 출판될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던 논제가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순간에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어 토론할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 본연의 윤리적인 문제, 보편적인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문학토론의 장점은 이러한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기에 좋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토론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권장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문학토론은 화법 영역과 문학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의 한 형태이다(이선영, 2013 : 207-208). 문학토론수업모형은 소설, 동화, 그림책, 시나리오와 같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상황에서 각자의 판단이 대립될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작품 속 문제를 토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갈매기 조나단을 추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원미동 사람들에서 김반장의 행위가 바람직한지, 배짱이의 삶과 개미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더 행복한지, 20년 후에서 친구인 밥을 체포하게 한 지미의 행동은 정당한지, 트리갯의 샘물에서 죽음이 있는 삶이 영원한 삶보다 행복한지와 같이 양측의 팽팽한 갈등 상황은 토론에서 가치 논제로 다룰 수 있다. 문학토론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논제에 대해 판단한 것을 토론 과정을 통해 동료 학습자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관점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다양한 해석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작품 분석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문학 토론에서의 토론 논제는 교사 주도로 제시하기보다는 작품을 읽고 난 후, 모둠 별로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스로 논제를 찾게 해야 자신들이 정한 논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학생들이 제시한 논제는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논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논제로 다듬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여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 (1차시)	토론 모형	토론 모형(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익히기
	작품 읽고 쟁점 찾기	작품(갈매기 조나단) 읽고 쟁점 찾기
	논제 정하기	“조나단을 추방한 것은 정당하다.”
	논증구조 밝히기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 구조 밝히기
	역할 나누기	토론자, 사회자, 계측자, 판정단으로 역할 나누기
	토론 개요서 쓰기	토론 개요서 쓰기(과제)
실행 (2차시)	토론하기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하기
	판정하기	토론에 대한 판정하기, 판정지 쓰기 학생 판정 듣기, 교사 최종 마무리
적용 (3차시)	토론 복기하기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 복기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논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

[그림 IV-7] 토론·문학 수업 모형

교실 토론 문학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은 총 3차시로 계획하였다. 각 차시별 단계와 세부 활동 내용은 그림과 같다. 교실 토론의 형식과 내용과 관련된 토론에 대한 교육은 본격적인 토론 수업 전에 미리 교육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토론 활용 ‘문학 수업’의 실행 단계인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17> 토론·문학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일시	2010년 0월 0일 0요일 0교시	대상	중학교 3학년 0반 0명		
단원명	2. 세상을 바꾸는 힘	교과서 ⁶⁶⁾	108~109	차시	2/3
학습형태	문제 해결·협력학습	토론 모형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학습목표	토론을 듣고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자료	PPT, 판정지, 중, 초시계, 사회자 대본, 토론자 팻말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1) <갈매기 조나단> 내용 정리 활동2) 토론 모형 <퍼블릭포럼디베이트> 안내하기 활동3) 대표토론하기 활동4) 판정하기	2분	토론 자리 배치는 쉬는 시간에 미리 한다.
	◦교과서 내용 정리	■ 활동1) <갈매기 조나단> 내용 정리 · 조나단이 하늘을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갈매기들과 비교하여 말해보자. · 조나단이 무리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 꿈을 좇는 삶과 현실적인 삶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3분	PPT
	◦토론 모형 안내	■ 활동2)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순서와 규칙 안내하기 ·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의 진행 순서와 규칙을 간단히 안내한다.	3분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확인하기 토론을 듣고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개	◦대표 토론	■ 활동3) 대표토론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 논제 - 조나단을 추방한 것은 정당하다. </div> · 토론 판정지를 배부한다. · 판정에 대해 안내한다. ▷ 대표 토론자	3 2 분	판정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66)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⑤』, 천재교육, 108-109.

	<p>- 자기 팀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발언한다. - 상대방이 발언할 때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예를 들도록 한다. - 같은 팀끼리 협력하며 토론한다. - 틀렸거나 실수한 말에 웃거나 비난하지 않는다.</p> <p>▷ 판정단</p> <p>- 찬반 양쪽의 쟁점을 파악한다. -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개요서를 작성한다.</p> <p>♣▷♣ 퍼블릭포럼디베이트(4:4)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토론자 8명을 미리 선발한다. ·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계측자가 시간을 체크한다. ·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판정에 참여한다. <table border="1" data-bbox="466 922 1142 1393"> <tr> <td colspan="2">먼저 발언 팀(찬성/반대)</td> <td colspan="2">나중 발언 팀(찬성/반대)</td> </tr> <tr> <td colspan="2">A토론자 : 입론(2분)</td> <td colspan="2">A토론자 : 입론(2분)</td> </tr> <tr> <td>준비시간</td> <td colspan="3">1분</td> </tr> <tr> <td colspan="4">A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td> </tr> <tr> <td>준비시간</td> <td colspan="3">1분</td> </tr> <tr> <td colspan="2">B토론자 : 반론(2분)</td> <td colspan="2">B토론자 : 반론(2분)</td> </tr> <tr> <td colspan="4">B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td> </tr> <tr> <td>준비시간</td> <td colspan="3">1분</td> </tr> <tr> <td colspan="2">C토론자 : 반론(2분)</td> <td colspan="2">C토론자 : 반론(2분)</td> </tr> <tr> <td colspan="4">C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td> </tr> <tr> <td colspan="2">D토론자 : 최종발언(2분)</td> <td colspan="2">D토론자 : 최종발언(2분)</td> </tr> <tr> <td colspan="2">총 소요 시간</td> <td colspan="2">25분</td> </tr> </table> <p>▣ 활동4) 판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단은 대표토론에 대해 평가한다. ·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에 대한 판정을 한다. · 판정관은 우승팀 및 우수토론자를 발표한다. 	먼저 발언 팀(찬성/반대)		나중 발언 팀(찬성/반대)		A토론자 : 입론(2분)		A토론자 : 입론(2분)		준비시간	1분			A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				준비시간	1분			B토론자 : 반론(2분)		B토론자 : 반론(2분)		B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				준비시간	1분			C토론자 : 반론(2분)		C토론자 : 반론(2분)		C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				D토론자 : 최종발언(2분)		D토론자 : 최종발언(2분)		총 소요 시간		25분		<p>판정단은 토론을 들으며 판정지를 작성한다.</p> <p>양측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판정한다.</p>
먼저 발언 팀(찬성/반대)		나중 발언 팀(찬성/반대)																																																
A토론자 : 입론(2분)		A토론자 : 입론(2분)																																																
준비시간	1분																																																	
A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																																																		
준비시간	1분																																																	
B토론자 : 반론(2분)		B토론자 : 반론(2분)																																																
B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																																																		
준비시간	1분																																																	
C토론자 : 반론(2분)		C토론자 : 반론(2분)																																																
C토론자 간 교차질의(2분)																																																		
D토론자 : 최종발언(2분)		D토론자 : 최종발언(2분)																																																
총 소요 시간		25분																																																
정리 및 평가	<p>▣ 학습 정리하기</p> <p>▣ 교사의 최종 평가 및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을 하고 난 후 느낀 점을 발표한다. · 토론자와 판정단이 골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에 대한 평가와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설명해 준다. · 토론 개요서를 모아 오도록 한다. 	5분																																																

	예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를 한다.		
--	----	--	--	--

문학 작품을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의 토론 모형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제시하였다. 이 토론 모형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모두 자기 팀의 주장에 대해 입론할 수 있다.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는 입론 후 곧바로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자기 측 주장에 대해 입론하는 것이 쉽다.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반대 측 1토론자가 상대 팀에 대해 반박하기보다 자기 팀의 주장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들어 을 입론한다. 이 토론 모형은 토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토론을 배울 때 토론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 갈매기 조나단에 대한 질문을 통해 토론에서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갈매기 조나단과 나머지 갈매기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나단과 다른 갈매기들이 어떤 이유로 하늘을 나는지, 조나단이 추방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집단의 규율을 어겼다고 쫓아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양측의 입장에서 논제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토론을 마친 후, 적용 단계에서는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의 쟁점을 복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꿈을 좇는 삶과 현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 중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토론·비문학 수업 모형

토론을 활용한 비문학 수업 교수·학습은 문학토론에서 다루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에 적합하다. 비문학 단원 학습을 통해 토론할 만한 논제를 추출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인터넷, 신문, 방송, 학술 논문 등에서 찾아 이를 근거로 사용하여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 검색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정책 논제의 경우, 문제 상황이 해결되어 시사성을 잃게 되면 토론 논제로서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지만, 시사성 있는 논제는 관련 자료를 구하기도 쉽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도 좋다.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교과서 비문학 단원을 학습한 후,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다면, 국어과에서 요구하는 총체적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계획 (1차시)	토론 모형	토론 모형(디베이트 기본) 익히기
	작품 읽고 쟁점 찾기	작품 읽기, 상반된 관점의 신문 자료 읽고 쟁점 찾기
	논제 정하기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
	논증구조 밝히기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 구조 밝히기
	역할 나누기	토론자, 사회자, 계측자, 판정단으로 역할 나누기
실행 (2차시)	토론하기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하기
	판정하기	토론에 대한 판정하기, 판정지 쓰기 학생 판정 듣기, 교사 최종 마무리
적용 (3차시)	토론복기하기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 복기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논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

[그림 IV-8] 토론·비문학 수업 모형

비문학 토론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치 논제보다는 현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해결할 것인지를 논하게 된다. 토론 전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신문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각이 다른 사설이나 기사를 준비하여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비문학 작품 <신재생 에너지를 아시나요?>를 읽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과서 단원 학습 시, 관련되는 논제를 추출한 후, 상반된 관점의 신문 자료를 읽기 자료로 제시하여, 토론 전에 미리 읽어올 수 있도록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아시나요?’라는 소단원 학습을 하고 난 후, 추출한 토론 논제인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에 대해 토론하는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IV-18> 토론·비문학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일시	201○년 ○월 ○일 ○요일 ○교시	대상	고등학교 1학년 ○반 ○명		
단원명	7. 다양한 매체와 언어생활 (1)신재생 에너지를 아시나요?	교과서	262~266쪽 ⁶⁷⁾	차시	2/3
학습형태	문제 해결·협력학습	수업모형	디베이트 기본 토론 모형		
학습목표	토론을 듣고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자료	PPT, 토론개요서, 판정지, 종, 초시계, 사회자 대본, 토론자 팻말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활동3) 대표토론하기 활동4) 평가하기 	2분	토론 자리 배치는 쉬는 시간에 미리 한다.
	·교과서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 신재생 에너지란 어떤 에너지인가? ·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분	PPT

67) 신동훈 외, 『고등학교 국어 II』, 동아출판, 262-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모형 안내 ◦ 학습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 디베이트 기본 토론 모형의 순서와 규칙을 안내한다. ■ 학습목표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토론을 듣고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div>	3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3) 대표토론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 논제 -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판정에 대해 안내한다. ▷ 대표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팀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발언한다. - 상대방이 발언할 때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예를 들도록 한다. - 같은 팀끼리 협력하며 토론한다. - 틀렸거나 실수한 말에 웃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 판정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반 양쪽의 쟁점을 파악한다. -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개요서를 작성한다. ▷ 디베이트⁶⁸⁾ 토론(4:4)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토론자 8명을 미리 선발한다. ·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계측자가 시간을 체크한다. · 나머지 학생들은 판정에 참여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찬성</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반대</th> </tr> </thead> <tbody> <tr> <td>① 찬성1 입론 (3분)</td> <td>② 반대1 입론 (3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전회의(1분)</td> </tr> <tr> <td>③ 찬성2 반론1 (3분)</td> <td>④ 반대2 반론1 (3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전회의(1분)</td> </tr> <tr> <td>⑤ 찬성3 반론2 (3분)</td> <td>⑥ 반대3 반론2 (3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전회의(1분)</td> </tr> <tr> <td>⑧ 찬성4 최종발언 (3분)</td> <td>⑦ 반대4 최종발언 (3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 소요 시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27분</td> </tr> </tbody> </table>	찬성	반대	① 찬성1 입론 (3분)	② 반대1 입론 (3분)	작전회의(1분)		③ 찬성2 반론1 (3분)	④ 반대2 반론1 (3분)	작전회의(1분)		⑤ 찬성3 반론2 (3분)	⑥ 반대3 반론2 (3분)	작전회의(1분)		⑧ 찬성4 최종발언 (3분)	⑦ 반대4 최종발언 (3분)	총 소요 시간		27분		32분	<p>판정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p> <p>토론을 들으며 판정지를 작성한다.</p> <p>양측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판정한다.</p>
찬성	반대																							
① 찬성1 입론 (3분)	② 반대1 입론 (3분)																							
작전회의(1분)																								
③ 찬성2 반론1 (3분)	④ 반대2 반론1 (3분)																							
작전회의(1분)																								
⑤ 찬성3 반론2 (3분)	⑥ 반대3 반론2 (3분)																							
작전회의(1분)																								
⑧ 찬성4 최종발언 (3분)	⑦ 반대4 최종발언 (3분)																							
총 소요 시간																								
2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4) 판정하기 · 판정단은 대표토론에 대해 평가한다. ·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에 대한 판정을 한다. · 판정관은 우승팀 및 우수토론자를 발표한다.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정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정리하기 ■ 교사의 최종 평가 및 정리하기 · 토론을 하고 난 후 느낀 점을 발표한다. · 토론자와 판정단이 골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에 대한 평가와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설명해 준다. · 토론 개요서를 모아 오도록 한다.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를 한다. 	5분	

비문학 작품을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의 토론 모형은 디베이트 토론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주의 깊게 듣고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는 이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찬성 측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었다면, 반대 측은 세 가지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한다. 승패는 찬성 측의 논증을 반대 측이 얼마나 잘 반박했느냐에 달려 있다. 반대 측 토론자들은 자기 측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증해야 한다.

이 토론 모형은 상대의 논리를 경청하여 듣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박해야 하므로 집중력을 매우 필요로 한다. 토론에서 주고받은 말들을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므로 토론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메모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토론이 익숙해지면 디베이트 기본 모형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68) 디베이트 토론 모형은 다인수 교실 토론에 맞게 되도록 많은 학생들(4:4)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논쟁형 토론 모형이다. 한국토론교육연구소와 서귀포토론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것을 교실토론에 도입하였다.

3) 토론·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모형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과 의견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말이 토론이고, 이를 글로 쓸 때, 주장하는 글이 된다. 주장하는 글은 자신의 글을 읽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거나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쓰는 글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자기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증의 방법으로 글을 써 나가야 한다.

글쓰기에서 논증이란 이치에 맞게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주장을 내세워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논증적인 글인 주장하는 글쓰기가 다른 글쓰기와 다른 점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글쓰기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근거를 재구성하는 가공 절차를 거쳐 나만의 것인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같은 문제라도 지식과 정보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유를 내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토론과 주장하는 글쓰기는 논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세운다.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과 토론을 한 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다면, 주장과 이유만이 아닌 근거와 연결고리가 있는 탄탄한 논증구성으로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토론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2. 합리적인 의사소통 (2)주장하는 글쓰기’의 교과서 학습 활동인 ‘사회적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보기’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 ‘공동 주택 단지 내 방범 카메라 설치 논란’에 대한 소단원 학습을 하고 난 후, 학생들과 함께 추출한 토론 논제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이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2012년 신문 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년 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

어서 이 논제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거쳐 나온 논제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이다. 이에 대한 최신 자료인 신문 기사를 읽고, TV 뉴스 영상 자료를 시청한 후 이에 대해 원탁토론하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계획 (1차시)	토론 모형	토론 모형(원탁 토론) 익히기
	작품 읽고 쟁점 찾기	작품 읽기, 상반된 관점의 신문 자료 읽고 쟁점 찾기
	논제 정하기	“교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논증구조 밝히기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 구조 밝히기
	역할 나누기	토론자, 사회자, 계측자, 판정단으로 역할 나누기
주장하는 글쓰기 (2차시)	내용 생성하기	브레인 스토밍을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마인드 맵과 개요 짜기로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고쳐쓰기 (3차시)	작품 제시	한 편의 글을 선정하여 복사본을 제시한다.
	고쳐쓰기	색깔 펜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의 오류 부분을 수정한다.
	교사 평가	수정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한다.

[그림 IV-9] 토론·주장하는 글쓰기 수업 모형

중국의 초·중·고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교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한 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이 매우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토론 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내 복도, 통학로, 학교 내 사각지대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교실과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근 중국의 초·중·고 교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사례여서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시 수업과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9> 토론·주장하는 글쓰기 교수·학습 과정안

일시	2010년 ○월 ○일 ○요일 ○교시		대상	중학교 3학년 ○반 ○명		
단원명	2. 합리적인 의사소통 (2) 주장하는 글쓰기		교과서	79~89 ⁶⁹⁾	차시	2/3
학습형태	문제 해결·협력학습		토론 모형	원탁토론 모형		
학습목표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료	PPT, 판정지, 중, 초시계, 사회자 대본, 토론자 팻말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활동3) 주장하는 글쓰기			2분	토론 자리 배치는 쉬는 시간에 미리 한다.
	◦교과서 내용 정리	■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 CCTV란 무엇인가? · 학교에 CCTV 설치 장소와 미설치 장소는? ·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 찬성과 반대 양측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내 주장은 무엇인가?			3분	PPT
	◦토론 모형 안내	■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 원탁 토론 모형의 순서와 규칙을 안내한다.			2분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확인하기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전개	◦대표 토론	■ 활동3) 원탁토론하기 - 논제 -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모둠별로 원탁토론한다. · 주장-이유-근거 찾기(브레인스토밍 활용) · 공통된 생각 묶기(마인드 맵 활용) ■ 활동4) 주장하는 글쓰기 · 주장하는 글쓰기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15분	4 절 지, 포스트잇 배부

69)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⑤』, 천재교과서, 7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용지를 배부한다. · 논제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쓴다. 	21 분	글 쓰기 용 A4 용지 배 부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정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모둠장에게 작성한 글을 모아오도록 한다. · 교사는 오늘 수업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한다.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 활동인 <고쳐쓰기>에 대한 예고를 한다. 	2분	

토론을 활용한 주장하는 글쓰기 수업에서의 토론 모형은 원탁 토론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토의식 토론 모형으로 다른 토론 모형에 비해 형식적 제약이 강하지 않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럿이 함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의에 가까운 모형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많은 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브레인 스토밍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각을 펼치고, 이러한 생각을 마인드 맵으로 분류한 후, 주장하는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실 내 CCTV 설치 논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만, 학생과 교사의 인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실제 실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한 후 주장하는 글을 쓴다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관심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원탁토론을 한 후 논증 구조를 이용하여 주장하는 글쓰기에 적합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4) 토론·교육연극 수업 모형

교육연극은 ‘연극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곽한영, 2013:8)로 교육연극의 한 유형에 ‘모의재판’이 있다. ‘모의재판(模擬裁判)’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제의 재판을 본떠서 논고, 변론, 심리, 언도 따위를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의재판’은 재판이라는 상황과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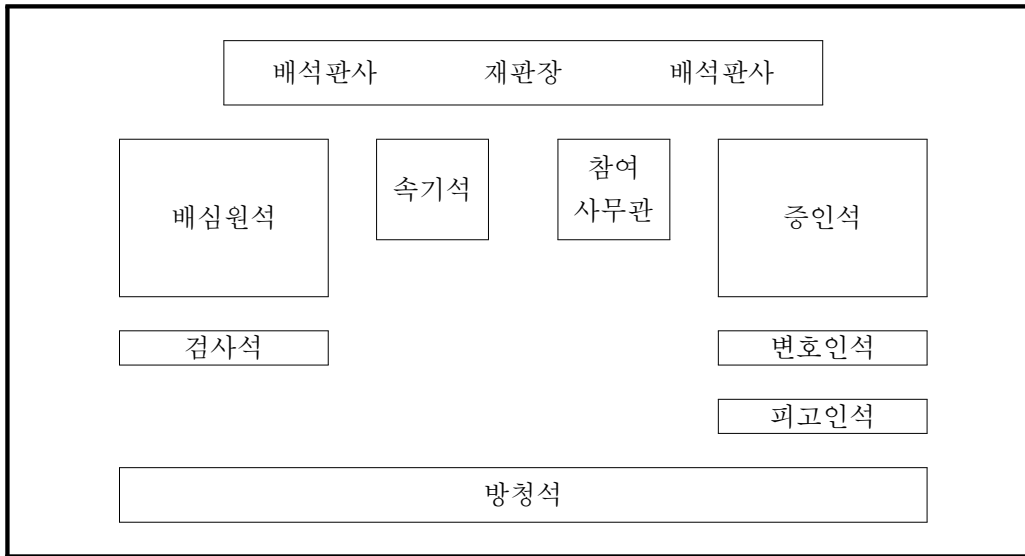
등의 역할 설정을 통해 실제의 재판을 모방한 일종의 ‘교육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의재판과 토론을 융합한 ‘모의재판토론’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국어과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능력을 기르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변호인의 팽팽한 갈등을 담고 있는 토론은 고대 그리스의 법정토론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가 전제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 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참주에게 빼앗긴 토지를 반환하는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정 배심원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자 하였다. 이때 설득의 수단으로 논증인 Logos, 감정인 Pathos, 성품이자 인격인 Ethos를 동원하여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법정의 재판을 모방한 모의재판에서도 이러한 설득의 수단들이 동원된다.

모의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은 토론에서의 사회자, 찬성토론자, 반대토론자, 판정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CEDA 토론에서의 교차조사와 같다. 모의재판은 토론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 토론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법정의 모습은 실제 범죄 상황을 담고 있어서 연극적 요소도 강하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을 두고 볼 때, 모의재판토론은 교육연극과 토론을 융합한 수업의 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의재판토론을 위해서는 교실 환경을 실제 재판장과 유사하게 꾸밀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면 법정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맞는 복장과 소품을 준비하게 하여 실감나는 재판 과정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더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쓰이는 공소장, 판결문, 증인 선서문 등 양식을 마련하여 증인 선서의 시간을 제공하고, 판사에 재판정에서의 분위기를 재현한다면 실감나는 모의재판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의재판 토론 중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배심원으로 들 수 있다. 배심원 모의재판토론을 위한 교실 환경은 그림과 같이 좌석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림 IV-10]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실 배치도⁷⁰⁾

모의재판토론의 교수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 (1차시)	토론 모형	토론 모형(모의재판토론) 익히기
	작품 읽고 쟁점 찾기	작품 읽기,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쟁점 찾기
	논제 정하기	“응오를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역할 나누기	모의재판토론 역할 나누기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
	대본, 의상, 소품 준비	대본, 의상, 소품 준비하기
준비 (2차시)	대본 읽기	각자의 역할에 맞게 대본 읽기
	연극 연습	모의재판토론 연극 연습하기
실행 (3차시)	모의재판토론	모의재판토론하기
	배심원판정	배심원판정하기
	교사총평	교사 총평 및 마무리하기

[그림 IV-11] 토론·교육연극 수업 모형

70) 백운태(2009:23)를 참고하였다.

교실토론 ‘교육연극 수업’은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에 나오는 응오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의재판토론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진행을 위해 만무방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하의 농촌으로 작품은 그 당시 농촌의 극도로 궁핍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주인 김첨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작농인 응오가 지주의 논을 벼를 훔친 것이므로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 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나면 빈 지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병든 아내를 위해 자신의 논에서 벼를 훔친 응오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 이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제 강점기 하의 궁핍한 농촌의 상황에서 개인의 잘못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인지에 대해 배심원모의재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0> 토론·교육연극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일시	2010년 0월 0일 0요일 0교시	대상	고등학교 1학년
단원명	3. 문학과 독서에 눈뜨다 (2) 만무방	차시	3/3
학습형태	문제 해결·협력학습	토론 모형	배심원모의재판 토론모형
학습목표	토론을 듣고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자료	PPT, 판정지, 종, 초시계, 사회자 대본, 토론자 팻말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활동3) 배심원모의재판토론하기 활동4) 배심원 판정하기 활동5) 교사 총평하기	2분	학습 분위기 조성 PPT
	◦교과서 내용 정리	■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 ‘만무방’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말인가? · 1930년대 일제 식민지 농촌 상황은 어떠했나?	3분	

정리 및 평가	◦학습 정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습 정리 · 교사는 판정지를 수합한다. · 교사는 마무리 발언을 한다.	2분	
	◦차시 예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를 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모형은 피의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교차조사가 있어서 CEDA 토론 모형의 성격을 띤다. 모의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서 모의재판결과에 대해 판정할 수 있다. 법정의 모습을 재현하여 실제 배역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여 토론한다면 매우 흥미진진한 수업이 될 것이다.

4. 교실토론 지도방안 설계

교실토론 지도 방안 설계는 교실토론 준비하기와 교실토론 실행하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실토론 준비하기에서는 교실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논제 정하기, 모둠 구성하기, 역할 분담하기, 자료조사하기,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토론 판정지 작성하기에 대해 교실토론 실행하기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자 실태를 점검한 후, 교실토론 수업에 앞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론 수업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1) 교실토론 준비하기

아래의 내용은 교실토론에서 일반적으로 토론 수업을 하기 전, 필요한 내용들이다. 교실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제를 정하고, 모둠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 또한 토론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 교실토론 준비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논제 정하기

논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으로 찬성 측 주장을 담고 있다. 교실토론 논제는 교과서에 제시된 논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논제를 수집하여, 논제의 조건에 맞게 다듬은 후 사용하는 것도 좋다. 학생들에게 토론하고 싶은 논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교사는 칠판에 이 논제들을 모두 적는다.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논제들을 적고 난 후, 유사 논제를 관련되는 것끼리 묶는 과정을 거쳐서 토론할 만한 몇 개의 논제를 뽑는다. 토론 논제를 제시한 학생에게 논제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거수를 통해 최종 논제를 선정한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논제에 복수로 손을 들게 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논제를 토론 논제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논제는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로 다듬는다. 토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팽팽한 쟁점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해야 할 논제가 토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의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토론 논제는 명백한 하나의 주장에 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 더불어 토론 주체인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논제여야 한다. 학생들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거나, 자신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흥미를 느낀다. 이러한 논제를 찾기 위해서는 교사 주도로 논제를 정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논제를 토론 논제로 정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과 함께 했던 몇 가지 논제⁷¹⁾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 교실토론 논제 예시

구분	번호	논제
초등	1	만화책은 유익하다.
	2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3	일기장 검사를 해야 한다.
	4	친구의 별명을 불러도 된다.

71) 본 논제들은 필자가 2013년~2018년 현재까지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귀포시 초등토론아카데미, 청소년 토론아카데미에서 사용했던 논제와 2014년~2015년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에서 활용했던 논제들을 학교급별로 분류한 것이다.

	5	빼빼로데이를 없애야 한다.
	6	SNS는 유용하다.
	7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8	집에서 키우기에는 고양이가 개보다 낫다.
	9	베짱이의 삶이 개미의 삶보다 가치 있다.
중등	10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11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12	중학생의 교복을 자율화해야 한다.
	13	인공지능은 삶을 행복하게 한다.
	14	동물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15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16	학교 폭력의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
	17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바람직하다.
	18	상벌점제를 폐지해야 한다.
	19	중학생의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20	유기견을 안락사시켜야 한다.
고등	21	남녀공학에서 남녀합반이 남녀분반보다 낫다.
	22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23	소비가 절약보다 우선이다.
	24	중국을 미국보다 우선해야 한다.
	25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26	중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27	투표권 나이를 낮춰야 한다.
	28	현재는 미래보다 우선한다.
	29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
	30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31	탈(脫) 원전을 해야 한다.
	32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33	효도법을 제정해야 한다.
	34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

(2) 모둠 구성하기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모둠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모듬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친한 친구끼리 모듬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친한 친구가 없는 학생은 소외되고 이렇게 소외된 학생끼리 조직된 모듬은 사기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 좋은 토론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무작위로 섞이다보니 모듬에 따라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이 많이 들어 있는 모듬은 토론 전에 토론에 자신감이 불고, 토론에 소극적인 학생,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모인 모듬은 모듬구성원들이 토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토론에

소극적일 수 있다. 토론에 임하는 학생들을 능력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희망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모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모둠 구성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법1>

4인 1모듬의 경우, 미리 집단을 ‘리더십이 있는 학생’, ‘발표력이 좋은 학생’, ‘책임감이 강한 학생’, ‘친화력이 있는 학생’ 등의 네 개로 정해 반 학생들을 해당하는 집단에 배치한다. 거기에서 한 명씩 뽑아 한 모듬을 구성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모듬이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방법2>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듬 수만큼 ‘이끌이’를 뽑는다. ‘이끌이’는 모듬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정한다. ‘이끌이’는 자신을 도울 ‘도움이’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도움이’ 선택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선택된 ‘도움이’는 자신을 도울 ‘지킴이’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지킴이’ 선택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마지막 남은 ‘기록이’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학생 순서로 자신이 원하는 모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법3>

학급 자리 배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학급 자리 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종이를 이용해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앉은 자리에서 네 명씩 짝을 이루어 모듬을 구성하면, 수업하기에도 편하고 모듬 구성도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편리하다.

(3) 역할 나누기

토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토론 참여 학생들에게 역할분담을 시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신토론 참여자들의 역할은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교실토론 참여자 역할

지위	역할	
사회자	토론 시간을 알리고 논제 및 토론자를 소개하며, 발언 순서와 시간 등 토론 절차와 규칙을 간단히 설명한 후 토론을 진행한다.	
계측자	타이머로 토론 시간을 재고 토론 종료 30초 전에 종을 한 번 울리고, 토론 종료 시 종을 두 번 울리는 등 진행 상황을 알린다.	
입론자	찬성 측	찬성 측 주장에 대한 이유, 근거, 연결고리 등 2~3개 정도의 논증 세트 들어서 말하는 것이 좋다.
	반대 측	찬성 측 발표를 듣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반대 측 주장을 내세운다. 찬성 측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해 바로 반박해야 하므로 순발력 있고 논리적인 학생이 하는 것이 좋다.
반론자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잘 듣고 메모한 후 이에 대해 반박한다.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하므로 순발력 있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최종발언자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며,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화한다. 토론 전체를 쟁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학생에게 유리한 역할이다.	
판정관	토론 판정지에 따라 토론의 승패를 판정한다. 판정자들이 내린 판정 결과를 수합하여 판정자들을 대표하여 토론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판정자	토론 판정지에 따라 토론의 승패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를 판정관에게 제공한다.	

역할은 일부 학생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학생들에게 각각의 역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학생을 모둠으로 나누어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을 하지 않는 학생은 판정단에 넣어 판정표를 작성하면서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토론 수업은 교실을 토론하기 좋은 환경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교과교실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토론 수업을 할 때 마다 자리 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IV-23>은 교실토론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 분담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표 IV-23> 교실토론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 분담

지위	역할 분담
학급 학생들	토론 수업 시 책걸상 배치하기, 교실 주변 정리정돈
반장	칠판에 토론 주제와 대표토론자 명단을 수업 시작 전 적기
토론부장	토론자료 바구니 가져다 놓기, 토론명패 놓기, 토론개요서·판정지 배부 및 정리

학급 학생들은 교실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책걸상을 토론 모형에 맞게 배치한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사물함으로 옮기도록 하고, 교실 바닥은 청소담당학생에게 깨끗이 쓸도록 한다. 교실 환경을 정리해서 토론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반장은 칠판에 토론할 주제를 적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표토론자 명단을 주제 밑에 적는다. 토론부장은 교무실로 미리 와서 토론 자료를 담은 바구니를 교사에게 받고는 가져다 놓는다. 토론 모형으로 배치된 자리에는 학생들의 역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토론 명패를 놓는다.

(4) 자료 조사하기⁷²⁾

‘자료 조사’를 뜻하는 ‘research’는 ‘무엇인가 찾는 것을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중세 프랑스어인 ‘recherche’에서 유래하였다. ‘rescherche’는 ‘re-’와 ‘찾다’를 의미하는 ‘cerchier’ 혹은 ‘sercher’의 합성어이다. ‘자료 조사’는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 자료,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을 하다보면, 주장과 이유가 아닌 근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토론은 누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72)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로는 한국 언론 재단이 운영하는 기사 검색 사이트인 ‘www.kinds.or.kr’이나 국회도서관 사이트인 ‘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www.riss.kr’ 등이 있다.

에서는 인터넷에서 토론의 핵심 용어를 검색하여 관련 사이트를 통해 최신의 가장 정확한 자료 순서로 자료를 모아둔다. 오프라인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관련 서적, 사전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 사전의 내용은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자료를 찾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24>은 자료 카드 양식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IV-24> 자료 카드 양식

논제 :			
자료 제목		자료 제목	
자료 출처		자료 출처	
게재연월일		게재연월일	
자료 유형		자료 유형	
세부 내용		세부 내용	

토론에서 활용하기 좋게 자료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료 카드에는 토론 논제를 적고, 자료의 제목을 쓴다. 또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을 할 경우에 그 주장에 대한 명확성도 떨어지므로 출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언제 작성된 자료인지, 게재 연월일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된 자료인 경우 자료가 제시되고 난 후, 그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므로 자료는 되도록 최신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행본, 논문, 보고서, 신문 기사, 인터뷰, 설문조사, 동영상 등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도 밝힌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5)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글쓰기에서만 개요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할 때에도 개요서는 필요하다. 개요란 outline으로 사물의 윤곽, 테두리를 말한다. 그림을 그릴 때 명암을 넣지 않고 윤곽만 잡아 스케치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전체의 틀을

잡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것이 아닌 중요한 핵심, 요점을 큰 틀에서 잡는 것이다. 개요는 건축에서 설계도를 그리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글 쓰기에 있어서도 개요 작성은 글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에서 꼭 다루고자 하는 글의 요점을 전체적인 글의 구조 속에서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글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개요 작성은 토론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토론에 대한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면 토론자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리가 안 돼 증언부언하거나 막막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토론 과정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토론할 문제에 대해 뒤엀킨 내용을 선별하여 내용을 분류하고 배열하여 요점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요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핵심만 간단히, 그러나 중요 내용은 빠지지 않게, 내용의 순서를 정해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뒤엀킨 내용을 선별하여 조직하는 단계에서 개요 작성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잘 짜인 개요는 토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개요를 작성하고 토론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논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개요는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한 '화제 개요'와 각 항목의 요지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타낸 '문장 개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탈(脫)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를 살펴보자. 문장 개요는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을 알아보자.

<표 IV-25>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 예시

화제 개요	문장 개요
안전성(원전 위험)	(찬성) 원전은 위험하다.
	(반대)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
경제성(원전 단가)	(찬성) 원자력 발전 단가는 싸지 않다.
	(반대)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다.
원전 수출 영향	(찬성) 원전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
	(반대)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화제 개요는 목차식 개요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이나 책의 목차처럼 핵심 어구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작성할 수 있어서 능률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자신도 내용을 잘 모르는 단점이 있다. 문장 개요는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비능률적이지만 내용을 정확히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론 개요서 양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6> 토론 개요서 양식

3학년 ()반 ()번		제출일	월	일	교시
입장	찬성 / 반대	발표일	월	일	교시

논제		
처음	사회적 배경	
	용어 정의	
	주장	
중간	첫째	이유
		근거
		연결고리
	둘째	이유
		근거
		연결고리
	셋째	이유
		근거
		연결고리
끝	요약	
	주장 강조	

자료 출처	
-------	--

글쓰기처럼 토론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부분에서는 논제의 사회적 배경과 용어 정의, 논제에 대한 주장을 다룬다. 이 부분은 글쓰기에 있어서는 서론에 해당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논증 세트(주장-이유-근거-연결고리)는 세 개 정도가 적당하다. 힘들 경우는 두 개를 제시해도 된다. 이 부분은 글쓰기의 본론에 해당한다. 끝 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다룬 논증 세트를 요약하고 다시 주장에 대한 강조를 한다. 이 부분은 글쓰기의 결론에 해당한다.

토론자는 토론 개요를 작성하기 전에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가

어떤 점에서 충돌하는지 쟁점을 파악하여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토론할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글감들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글감이 논제와 관련이 없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토론은 말하기이다. 개요를 작성할 때도 직접 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다. 문장이 너무 길거나 자신이 소화하기 힘든 어려운 말을 쓰면 실제 토론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힘들 수 있다. 간결하게 핵심을 잡아서 긴 문장이 아닌 짧은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문장을 읽어 보고 자신의 호흡에 맞는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말하듯 작성이 되었는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6) 토론 판정지 작성하기

‘판정(judgement)’이란 토론 후 찬반 양측의 토론 결과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승패를 가리는 과정이다. 토론에서 판정자는 토론자의 토론 내용과 태도를 미리 메모한 후 이에 대한 내용을 판정지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판정하게 된다. 토론에서의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교사는 토론 전에 학생들에게 판정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판정지에 제시된 판정 기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인수 학급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급 학생들에게 판정자의 역할을 부여하면 실제 토론을 하지는 않지만 판정을 하기 위해 토론에 집중하게 되어 학생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판정자들을 대표하는 판정관은 토론의 전 과정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논증 구조 파악을 통해 승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토론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찬성 측에서는 논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 연결고리를 써서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판정자들은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쟁점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어느 쪽이 자신들의 주장을 잘 살려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눈으로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찬성 측은 주장에 대한 이유, 근거, 연결고리의 논증 세트를 세 개 정도 제시한다. 여기서 반대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면 세 개의 쟁점이 형성된다. 판정자는 이때, 찬성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에 대해 반대 측에서 반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주장과 이유, 근거,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할 것이다. 판정자는 찬성에서 세운 입론이 잘 쌓은 성처럼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남아 있는지, 반대가 반론을 통해 성을 무너뜨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판정은 이러한 토론 내용과 함께 공통 항목으로 언어적 요소의 적절성 여부와 토론 예절과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표 IV-27> 에머렌과 구르텐도르스트의 10가지 토론 규칙⁷³⁾

규칙1	토론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어 서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규칙2	한쪽 토론자는 반대편 토론자의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
규칙3	반론은(상대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주장에 대해서만 제기해야 한다.
규칙4	토론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때에는 그 입장과 연관된 논증만으로 해야 한다.
규칙5	토론자는 확실치 않은 전제를 부정할 수도, 상대편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
규칙6	토론자는 거짓된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미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진 전제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규칙7	적합하며 무리 없이 적용된 논증체계에 의해 방어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규칙8	토론자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거 또는 전제들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논거만을 사용해야 한다.
규칙9	한 쪽 입장을 방어하는 데 실패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으며, 입장 방어에 성공하면 반대 측의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한다.
규칙10	토론자들은 혼란스럽거나 애매한 형식으로 주장을 펴서는 안 되며, 반대편 주장을 가능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위의 표는 언어학자 에머렌과 구르텐도르스트의 10가지 토론 규칙을 소개한 것이다. 토론은 기회 균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토론 규칙을 염두에 두고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토론해야 한다. 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거

73) 필립 브르통·질 고티에(2006:108)를 참고하였다.

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상대의 말허리를 자른다든지 하는 행동은 토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2) 교실토론 실행하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실토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토론 성취기준과 토론 단원이 수록된 토론 교과서를 점검하였다. 토론에 참여할 학습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토론 유형을 선택하고, 교실토론 수업을 위한 모형과 교수·학습과정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교과서 토론 단원에 수록된 논제를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토론에 적합한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1) 교육과정 분석하기

현재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토론 단원이 하나의 대단원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에 맞춰서 교육과정에 토론 관련 성취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행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학기 초 토론 수행 평가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한 후, 본격적인 토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앞으로 2년 뒤인 2020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토론에 대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강화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에서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⁷⁴⁾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토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토론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 표IV-28>과 같다.

<표 IV-28>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듣기·말하기 영역 토론 성취기준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듣기·말하기]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중학교	[1~3학년군 듣기·말하기]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고등학교	[1학년 듣기·말하기]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화법과 작문]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신문하며 토론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규칙 지키기, 근거 제시’(5~6학년

74)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핵심 역량(『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3-4)은 다음과 같다.

핵심 역량	내용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
자기성찰·계발 역량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군), ‘근거 들어 논박하기’(중학교 1~3학년군), ‘쟁점별 논증 구성’(고등학교 1학년), ‘반대신문’(화법과 작문)을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논증’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형식만이 아닌 내용에 충실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에서 ‘반대신문’을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여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반대신문인 교차조사가 포함된 CEDA 토론 모형은 논증에 대해 익숙한 토론 심화 단계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실토론을 준비하는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토론의 성취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검토를 통해 교실토론의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한 교실토론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2) 교과서 분석하기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교사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실토론을 설계할 수 있다. 먼저, 토론을 대단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⁷⁵⁾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다.

<표 IV-29>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개관

교과서	중학교 국어 ⑥	출판사 · 저자	천재 교과서 · 김종철 외
		쪽수	88쪽 ~ 131쪽
대단원	3. 토론의 발견		
소단원	(1) 착한 사마리아 인 법, 필요한가		
	(2) 토론의 실제		
변경 전 학습목표	1. 토론의 방법과 절차를 알고, 토론의 올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다.		
	2. 다양한 논제에 관해 토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변경 후 학습목표	1. 논제에 대한 쟁점을 찾을 수 있다.		
	2. 논증 구조를 밝힐 수 있다.		

교과서 소단원명은 ‘착한 사마리아 인 법, 필요한가’이고, 이에 대한 토론 논제

75) 연구 과정에서 살펴 볼 교과서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이다.

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서 제사장파 레위 인은 사마리아 인과 달리 자신에게 특별한위험이 생기지 않는데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으로 도덕의 영역을 법이 간섭할 수 있는가하는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교과서 학습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교실토론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성취기준에 맞게 실제수업 학습목표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론의 방법과 절차, 토론 자세, 토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대 논증이 타당한지, 자신의 논증을 타당하게 근거를 들어 논박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습목표를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 3단원에서는 소단원 1, 2에서 각각 토론 주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를 다루고 있다. 소단원 1에서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대해 소개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제시한다. 교과서 3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0>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교수·학습 내용

구분	교수·학습 내용	
•단원의 길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단원 표지와 관련하여 단원 학습 목표 알기 •‘단원의 길잡이’ 읽기 •‘단원의 길잡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대단원의 학습 방법 이해하기 	
소단원 (1)	준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상황을 보고, 새치기를 당한 친구가 할 말을 생각해 보자. •일상생활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소단원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을 듣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해 보자. 논제를 찬성과 반대 양측이 공정하게 대립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제로 바꿔보자. • 변경 전 논제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

		<p>으면 처벌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후 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학습 활동	<p>【내용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말하기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보자. •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란 무엇인지 찾아 써 보자. <p>【목표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과정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해 보자. • 질문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논거가 타당한지 평가해 보자. <p>【적용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토론을 통해, 토론 참가자들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p>【열린 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종류 알아보기
	소단원 마무리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정의와 목적을 정리해 보자. • 일반적인 토론의 과정을 정리해 보자.
소단원 (2)	준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물음에 답해 보자.
	소단원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준비하기 • 토론 계획하기 • 토론하기 • 논제 :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습 활동	<p>【열린 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규칙과 올바른 자세
	소단원 마무리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각 과정에 따른 유의점으로 적절인지 평가해 보자.

토론 논제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매우 모호할 수 있다. 또한 문장이 길어서 듣기·말하기 영역의 토론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논제를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착한’이라는 수식어에 내포된 감정으로 인해 어느 한 쪽에 유리한 토론 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토론 하기도 편한 논제인 ‘불구조죄를 처벌해야 한다.’ 또는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에서는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로 논제를 수정하였다. 구조불이행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

다는 것이다. 이 토론에서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할 윤리의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는 이 법이 제정되어 적용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 조항(유기죄)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도울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3) 학습자 실태 분석하기

교실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교실토론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중학교 3학년을 교실토론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토론 단원이 국어 교과서 대단원에 실려 있어 토론 시간 확보가 용이하고, 교과서 내용을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토론 수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가. 학년 실태 분석(N=140)

- 본교의 3학년을 5개 학급으로 각 반은 여학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어 수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 1학기 중간고사 국어 학년 평균은 82점대로 높은 편이다.
- 수업 분위기는 반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 서귀포 학생문화원 초등토론아카데미,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를 통해 토론을 경험한 학생이 소수이지만 반별로 분포되어 있다.

나. 학년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대책

- 발표를 자주하게 하여 듣기·말하기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 문제 상황이 제시된 상반된 입장의 자료 읽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 및 매체를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 모둠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조성한다.
- 토론 전 자료 읽기, 토론 중 듣기·말하기, 쓰기, 토론 후 쓰기 활동을 통해 총체적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한다.

(4) 평가 계획 수립하기

3학년 국어교과서 토론 단원은 2학기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3학년 전 학기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IV-31>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 평가 내용

분류 학기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중간고사	기말고사	λεκ처 포럼	글쓰기 와 나	토론	독서기록장	태도
1학기	30%	30%	10%	10%	·	10%	10%
2학기	30%	30%	10%	·	10%	10%	10%

3학년 국어 교과 평가는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로 나눌 수 있다. 1학기 수행 평가는 ‘λεκ처 포럼’, 글쓰기와 관련한 자기소개서 쓰기인 ‘글쓰기와 나’, ‘독서기록장’, ‘태도’를 평가하고, 2학기에는 ‘글쓰기와 나’ 평가 대신 ‘토론’ 평가가 들어 있다. 토론 단원이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단원 학습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과정 평가를 할 수 있다. 토론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2> '토론' 수행 평가 기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배점
토론 전 평가	역할 분담	자료 조사, 정리 등의 역할 분담이 잘 되었는가?	5점
	자료의 조직화	<토론 개요서>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였는가? <토론 개요서>의 자료는 출처가 분명한가?	
	제출 기한 준수	<토론 개요서>는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토론 중 평가	토론	입론에서 효과적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는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쟁점으로 부각시켰는가? 반론자는 앞의 발언자의 논거를 보완하여 주장을 강화하였는가? 찬반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잘 갖추었는가? 쟁점에 대한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였는가? 다양한 각도에서 예상될 수 있는 반론을 고려하였는가? 상대측 주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교차 질문 및 반론을 제기하였는가? 상대측의 오류를 파악하여 비판하였는가?	10점
	태도	예의를 갖추었는가? 정확한 발음, 성량, 시선 처리로 토론하였는가?	
	규칙 준수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였는가? 발표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토론 후 평가	판정지	쟁점 중심으로 토론의 흐름이 잘 나타나있는가? 판정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판정지>는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5점

토론 수행평가는 토론 전, 토론 중, 토론 후 세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토론 전 평가는 학습자가 제출한 <토론 개요서>의 정확성, 신뢰성,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토론 중 평가는 토론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토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판정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토론 후 평가인 판정지 평가를 통해 평가가 쟁점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판정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제출 기한을 지켰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5) 토론 단위 수업 모형

실제 토론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체 3차시 토론 수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1차시는 토론 수업을 위한 계획단계, 2차시는 토론 실행 단계, 3차시는 토론 후 적용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한 교실토론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IV-12]와 같다.

계획 (1차시)	토론 모형	토론 모형(CEDA 토론) 익히기
	작품 읽고 쟁점 찾기	작품 읽기, 상반된 관점의 신문 자료 읽고 쟁점 찾기
	논제 정하기	“구조 불이행법을 도입해야 한다.”
	논증구조 밝히기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 구조 밝히기
	역할 나누기	토론자, 사회자, 계측자, 판정단으로 역할 나누기
실행 (2차시)	토론하기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하기
	판정하기	토론에 대한 판정하기, 판정지 쓰기, 학생 판정 듣기, 교사 최종 마무리
적용 (3차시)	토론복기하기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 복기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논제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

[그림 IV-12] 토론 단위 수업 모형

CEDA 토론 모형이 어렵고 낯설게 느낄 수 있으므로, 사회자에게 토론 대본을 제공하여 토론에 대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참여자들이 미리 자신의 발언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칠판에 간략하게 토론 진행과정을 제시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CEDA 토론은 교차조사가 있어서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몇 차례 토론을 하면서, 토론에 익숙해지게 되면 교차조사를 하기 위해 상대의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 과정

을 통해 고도의 집중력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몇 차례 교실 토론 수업 과정을 통해 우수토론자를 선정한 후, 이 토론자들이 CEDA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된다면,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을 힘들어 하는 경우, 디베이트 기본 모형이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그에 대해 토론하는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로 든다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토론 단위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면 <표 IV-33>과 같다.

<표 IV-33> 토론 단위 교수·학습 과정안

일 시	2010년 0월 0일 0요일 0교시	대상	3학년 0반 0명
단원명	3. 토론의 발견	교과서 ⁷⁶⁾	88~131쪽
학습형태	문제 해결·협력학습	토론 모형	CEDA 토론
학습목표	1. 논제에 대한 쟁점을 찾을 수 있다. 2. 논증 구조를 밝힐 수 있다.		
자 료	PPT, 판정지, 종, 초시계, 사회자 대본, 토론자 팻말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활동3) 대표토론하기 활동4) 평가하기	2분	토론 자리 배치는 쉬는 시간에 미리 한다.
	◦교과서 내용 정리	■ 활동1) 교과서 내용 질문하기 ·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란 어떤 법인가? · 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이유, 근거는? · 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이유, 근거는? · 법 제정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 논제의 조건에 맞게 토론 논제를 수정해보자.	3분	PPT
	◦토론 모형 안내	■ 활동2) 토론 모형 안내하기 · <CEDA 토론> 모형의 순서와 규칙을 안내한다.	3분	

76) 김종철 외, 『국어 ⑥』, 천재교과서, pp. 88-131.

	<p>◦학습 목표 확인</p> <p>■ 학습목표 확인하기</p> <table border="1" data-bbox="443 315 1177 398"> <tr> <td>1. 논제에 대한 쟁점을 찾을 수 있다.</td> </tr> <tr> <td>2. 논증 구조를 밝힐 수 있다.</td> </tr> </table>	1. 논제에 대한 쟁점을 찾을 수 있다.	2. 논증 구조를 밝힐 수 있다.																							
1. 논제에 대한 쟁점을 찾을 수 있다.																										
2. 논증 구조를 밝힐 수 있다.																										
전개	<p>◦대표 토론</p> <p>■ 활동3) 대표토론하기</p> <table border="1" data-bbox="443 477 1177 56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td> </tr> </table> <p>· 판정에 대해 안내한다.</p> <p>▷ 대표 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팀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발언한다. - 상대방이 발언할 때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예를 들도록 한다. - 같은 팀끼리 협력하며 토론한다. - 틀렸거나 실수한 말에 웃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p>▷ 판정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반 양쪽의 쟁점을 파악한다. -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지를 작성한다. <p>▷ CEDA 토론(4:4)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토론자 8명을 미리 선발한다. ·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계측자가 시간을 체크한다. · 나머지 학생들은 판정에 참여한다. <table border="1" data-bbox="443 1263 1161 1809"> <tr> <td colspan="2">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td> </tr> <tr> <td>① 찬성 1토론자 입론 (2분)</td> <td>② 반대 1토론자 입론 (2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전 회의(1분)</td> </tr> <tr> <td>③ 찬성 2토론자 1차 반론 (2분)</td> <td>④ 반대 3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td> </tr> <tr> <td>⑥ 찬성 2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td> <td>⑤ 반대 2토론자 1차 반론 (2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전 회의(1분)</td> </tr> <tr> <td>⑦ 찬성 3 토론자 2차 반론 (2분)</td> <td>⑧ 반대 2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td> </tr> <tr> <td>⑩ 찬성 3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td> <td>⑨ 반대 3 토론자 2차 반론(2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전 회의(1분)</td> </tr> <tr> <td>⑫ 찬성 4토론자 최종 발언 (2분)</td> <td>⑪ 반대 4토론자 최종 발언 (2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총 소요 시간 : 27분</td> </tr> </table> <p>◦판정 하기</p> <p>■ 활동4) 판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단은 대표토론에 대해 평가한다. 	- 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	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		① 찬성 1토론자 입론 (2분)	② 반대 1토론자 입론 (2분)	작전 회의(1분)		③ 찬성 2토론자 1차 반론 (2분)	④ 반대 3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	⑥ 찬성 2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	⑤ 반대 2토론자 1차 반론 (2분)	작전 회의(1분)		⑦ 찬성 3 토론자 2차 반론 (2분)	⑧ 반대 2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	⑩ 찬성 3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	⑨ 반대 3 토론자 2차 반론(2분)	작전 회의(1분)		⑫ 찬성 4토론자 최종 발언 (2분)	⑪ 반대 4토론자 최종 발언 (2분)	총 소요 시간 : 27분		32 분	<p>판정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p> <p>판정단은 토론을 들으며 판정지를 작성한다.</p> <p>양측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판정한다.</p>
- 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																										
논제 : 구조불이행법을 제정해야 한다.																										
① 찬성 1토론자 입론 (2분)	② 반대 1토론자 입론 (2분)																									
작전 회의(1분)																										
③ 찬성 2토론자 1차 반론 (2분)	④ 반대 3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																									
⑥ 찬성 2 토론자 1차 교차조사(2분)	⑤ 반대 2토론자 1차 반론 (2분)																									
작전 회의(1분)																										
⑦ 찬성 3 토론자 2차 반론 (2분)	⑧ 반대 2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																									
⑩ 찬성 3 토론자 2차 교차조사(2분)	⑨ 반대 3 토론자 2차 반론(2분)																									
작전 회의(1분)																										
⑫ 찬성 4토론자 최종 발언 (2분)	⑪ 반대 4토론자 최종 발언 (2분)																									
총 소요 시간 : 2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토론에 대한 판정을 한다. · 판정관은 우승팀 및 우수토론자를 발표한다.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정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최종 평가 및 정리하기 · 토론을 하고 난 후 느낀 점을 발표한다. · 토론자와 판정단이 골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에 대한 평가와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설명해 준다. · 토론 판정지를 모아 오도록 한다.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를 한다. 	5분	

V. 결론

이상으로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국어과 토론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실토론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교실에서 다인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 내의 영역 통합 및 교과 외의 타 교과와의 통합을 통한 범교과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도 교실토론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교실토론 과정에서 토론에 적합한 논제의 제시와 자신들의 논리를 구축하고 상대 논리의 허점을 반박하기 위한 논증은 매우 중요한 토론 요소이다. 이러한 논제와 논증을 중심으로 교실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 수업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 토론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더 나은 토론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현대인들은 매체 환경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게 되었다. 교육도 미래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토론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 방법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의 일부로서 토론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토론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논제, 논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토론 교육이 국어과의 교과 전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법적 고찰을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론 교육, 논제,

논증, 토론 수업 모형에 대해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토론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먼저 토론의 형식에서 교육 토론의 유형으로 링컨-더글라스 토론, 의회식 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CEDA 토론, 칼 포퍼 토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토론의 과정은 입론, 반론, 교차조사, 최종발언, 작전회의, 판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론의 내용은 논제와 논증 부분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먼저 논제에서는 논제의 개념, 유형, 조건, 적합성 분석을 논증에서는 논증의 개념, 방식, 구조에 대해 고찰하였다.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의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논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논제의 조건으로 하나의 논점, 찬반대립, 시의성, 현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긍정 측 입장, 긍정 평서문을 들고 있다. ‘하나의 논점’은 토론 논제가 하나의 주장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을 담게 되면 토론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서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 ‘찬반 대립’은 논제가 찬성과 반대 측의 팽팽한 대립이 될 수 있도록 쟁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편에 유리한 표현이 논제에 들어가는 안 된다. ‘시의성’이란 토론 논제가 그때그때 그 시기에 적절해야함을 의미한다. 토론 논제는 시의성을 잃게 되면 논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긍정 측 입장’은 토론에서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 입장이 논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는 ‘긍정평서문’의 단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복문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을 담게 되어 하나의 논점을 제시해야 하는 토론의 조건을 어기게 되고, 의문문은 토론이 아닌 토의로 호를 가능성이 있으며 청유문은 상대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이므로 대결 구도 속에서 논쟁하는 토론에는 적합하지 않다.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논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논제 조건을 적용하여 논제 확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먼저, 논제를 파악한 후,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적합한지를 살핀 후 논제다듬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논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토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증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논리학에서의 논증은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실제 논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일상에서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둔 화용-대화론적 입장과 신수사학적 관점에서의 논증은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상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틀민은 그의 저서 『논증의 사용』에서 논증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보고 논증의 구조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논증의 작동 방식에 대해 제시한 그의 이론은 학문의 영역을 넘어 일상 담화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틀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단계의 논법을 구체화하여 여섯 단계로 나눈다. 논증 과정에서 몇 단계의 과정을 축소하여 생략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는 모르나 그러한 습관은 정확한 논증의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조셉 윌리엄스는 그레고리 콜럼과의 공동 저서인 『논증의 탄생』에서 틀민 논증의 여러 단점을 보완한 논증 모형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은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문학이론가인 바흐친의 대화주의(Dialogism)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틀민의 여섯 단계 논증을 다섯 단계로 축소한다. 그는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양상적 한정어(Qualifiers)와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뒷받침하는 세부 근거인 보강(Backing)을 빼고, 정당한 이유(warrant)를 주장과 이유를 이어주는 ‘전제’로 본다. 또한 틀민이 사용했던 방향성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빼고 화살표 없이 논증 요소들을 묶는다. 논증 순서도 ‘근거에서 주장’이 아니라 ‘주장-이유-근거’로 제시하고 이유는 자신의 내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 견해인 반면, 근거는 외부 세계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보았다. 틀민의 논증 구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윌리엄스의 논증 구조는 토론이나 주장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교과서의 토론 단원의 논증 부분을 살펴보면 주장과 근거 위주의 2단 논법인 단순 논증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의 논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근거를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의견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장과 이유·근거를 잇는 연결고리, 보편적인 원리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제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다. 틀민이 논증의 필수 요소로 본,

‘정당한 이유(Warrant)’는 담화 상황에 따라 연결고리로 기능하기도 하고, 전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과서 토론 단원 논증 분석의 결과, ‘정당한 이유(Warrant)’를 ‘연결고리’ 또는 ‘전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 견해는 이유(Reason)로, 객관적 자료는 근거(Data)로 보았다. 틀민은 ‘정당한 이유(Warrant)’를 논증의 필수 요소로 본 반면, 본 연구자는 대부분의 교과서 논증에서 ‘정당한 이유(Warrant)’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추가요소로 보았다.

III장에서는 국어과 토론 교육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고,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논제와 논증을 분석하였다. 학년제에서 학년군제로 바뀐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단계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론 요소들의 위계화와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성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토론의 가장 핵심 요소인 ‘논증’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형식만이 아닌 내용에 충실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군)별 내용요소를 살펴보면 토론 내용은 논제와 논증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토론 태도는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상호교섭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및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상호교섭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토론 단원 분석은 본 연구에 앞서 토론 교육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게 하므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현재 교과서의 토론 단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토론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토론 교육이 분절되지 않고 단계별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교과서 토론 단원을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 토론에서는 ‘입론-반론-최종발언’을 ‘주장 펼치기-반론하기-주장다지기’라는 용어로 다루고 있었다. 6학년 토론 단원에서는 논제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논제’를 ‘문제’, ‘주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토론 ‘주제’는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도 가능하

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론 논제를 의문문으로 제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대의 대립이 힘들고, 공정한 토론을 하기도 부적합하며 토론이 아닌 토의로 흐를 수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논제의 조건을 적용하여 긍정평서문 형태의 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단원별로 통일하지 않고 제시한 점도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원 성취기준에는 ‘이유’와 ‘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유’와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근거’와 ‘근거자료’의 차이점 또한 명확하지 않다.

중학교 3학년 14종의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에서 다룬 논제들이 과연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인지를 점검해 보았다. 논제에 대해 연구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단일한 논점’, ‘찬반 대립성’, ‘시의적절성’, ‘찬성 측 입장’, ‘긍정평서문’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조건을 대입한 결과, 2개의 논제를 제외한 12개의 논제가 조건에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12개의 논제에 대해 ‘논제 파악하기-조건 적용하기-논제 다듬기-논제 확정하기’의 네 단계의 ‘논제 조건을 적용한 논제 확정 과정’을 통해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로 수정하였다.

교과서에서는 논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중학교 14종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논증 요소를 살펴보면, ‘주장, 근거’를 제시하는 교과서가 11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장, 이유, 근거’, ‘주장, 근거, 근거 자료’, ‘주장, 이유, 근거, 근거 자료’를 논증 요소로 보는 교과서가 각각 1종씩이 있었다. 여기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 근거, 근거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어서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는 국어과 토론 교육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교실 토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실제 교실토론을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해 구안하였다. 먼저, 교실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토론 유형을 수업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해야 한다.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토의식토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탁토론을 수업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실토론에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모형을

활용한다면 다인수 학급 상황에 맞게 많은 학생이 토론할 수 있도록 4:4 토론으로 진행할 수 있다.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의 장점은 교차질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 측도 찬성 측과 동일한 입장에서 입론할 수 있어서 반론을 힘들어 하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디베이트 기본 모형은 교차조사가 없는 단순 모형으로 토론을 처음 접하는 기본 단계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토론을 자주 접한 심화 단계의 토론자들은 교차조사가 들어 있는 CEDA 토론을 할 수 있다. CEDA 토론의 경우, 교차조사가 있어서 토론 단계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본격적인 CEDA 토론으로 진행하기 전, 교차조사가 들어 있지 않은 디베이트 기본 모형으로 토론을 먼저 익히고 난 후, 교차조사를 넣은 CEDA 토론 모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를 정해야 한다. 교실토론을 위해 교사는 교과서의 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논제를 개발할 수 있다. 본격적인 교실토론을 하기에 앞서 토론 논제 찾기, 논제 다듬기, 자료 찾고 정리하기의 과정을 통해 토론논제를 확정하고 토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토론에서도 논증은 매우 중요하다. 논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추론 방법은 연역 추론과 비연역 추론이 있다. 연역추론은 삼단논법이, 비연역추론은 귀납추론과 유비추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증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논증구조를 이룬다. 논증 구조에는 주장, 이유, 근거, 전제·연결고리, 반론 수용 및 반박과 같은 논증 요소들이 포함된다. 하나의 주장과 여러 이유만으로 구성된 논증은 내용이 빈약해 보이고, 하나의 주장과 수치나 인용구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근거만으로 이루어진 논증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유가 있어야 논증의 논리와 구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근거가 있어야 이유의 토대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실토론의 논증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 툴민, 윌리엄스의 모형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툴민의 모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계 논증을 세분화하여 6단계 논증으로 제시하였고, 윌리엄스의 논증은 툴민의 논증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5단계 논증으로 확정하였다. 교실토론 논증구조에서는 5단계 논증을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인 'Warrant'를 담화 상황 및 맥락에 따라 '전제' 또는 주장과 이유, 이유와 근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실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토론이 대단원에 실려 있어 토론 시간 확보가 용이하고 교과서 내용을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실토론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교실토론 준비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내용별로 투입 시기와 방법을 정해 적절한 시기에 토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점검을 통해 교과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교사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 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교실토론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토론 논제를 정하고, 모둠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토론 수업 전, 토론자들과 토론을 판정하는 학생들에 맞게 적절한 자리 배치를 한다. 또한 토론에 활용할 자료 카드를 미리 작성하게 한다. 자료 카드에는 토론 논제를 적고, 자료의 제목을 쓴다. 또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토론할 문제에 대해 뒤엀킨 내용을 선별하여 내용을 분류하고 배열하여 요점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요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핵심만 간단히, 그러나 중요 내용은 빠지지 않게, 내용의 순서를 정해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교사는 토론 유형 및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계획하는 수업에 맞게 토론 판정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점검을 통해 토론 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토론 단원이 수록된 중학교 3학년에게 해당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를 통해 토론 교육의 성취 기준을 점검한 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토론 관련 핵심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토론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토론 교과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는 과도기적 상황인 관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토론 교과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본 논문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출판될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본 논문은 교실 수업에서 토론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토론 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담고자 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종적으로 분석하여 토론 교육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실제 수업에서 토론을 활용하여 수업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중·고등학교 토론 단원 전반의 논제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논제의 조건들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한 후, 논제 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부적합한 논제에 대해서는 논제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론에 적합한 논제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부적합한 토론 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교사들에게 길러줄 수 있을 것이고, 부적합한 논제를 논제의 조건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서 맹신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토론 논제를 다듬고 확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결과,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 수업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토론의 내용 요소인 논증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중·고등학교 토론 단원의 논증 평가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한 후, 교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을 분석하여 논증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토론 교과서의 논증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논증 연구자들의 논증 이론을 제시한 후, 교실토론에 적합한 논증 요소와 논증 구조를 제시하였다. 교실 토론 논증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 틀민, 윌리엄스의 논증을 참고하여 5단계를 제시하였다. 윌리엄스가 틀민의 'Warrant'를 '전제'로만 본 반면, 본고에서는 'Warrant'를 기능, 담화 맥락 및 상황에 따라 '전제'와 '연결고리'로 달리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토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토론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를 상대로 토론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토론이 교실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는 것은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지만, 실제 토론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 토론은 일정한 형식과 규칙이 있고, 토론 논제도 토론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토론의 내용을 이루는 논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어려워한다.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가 토론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익힌다면 토론을 수업에 접목하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둘째, 토론 문화가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교과, 타 교과, 초·중·고 교사들이 연합한 토론 동아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학교 내 동일 교과 모임이든, 여러 교과 모임, 학교 밖 학년군을 초월한 교사들과의 모임 등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토론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실제 토론 수업을 참관하며 토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토론 단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어진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과서 토론 단원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토론에 적합한 최적의 교과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제2007-79호)』, 2007.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제2102-14호)』, 201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2015.

교육부, 『5-1㉔ 국어』, 『5-1㉔ 국어 활동』, 『5-1㉕ 국어』, 『5-1㉕ 국어 활동』, 2017.

_____, 『5-2㉔ 국어』, 『5-2㉔ 국어 활동』, 『5-2㉕ 국어』, 『5-2㉕ 국어 활동』, 2017.

_____, 『6-1㉔ 국어』, 『6-1㉔ 국어 활동』, 『6-1㉕ 국어』, 『6-1㉕ 국어 활동』, 2017.

_____, 『6-2㉔ 국어』, 『6-2㉔ 국어 활동』, 『6-2㉕ 국어』, 『6-2㉕ 국어 활동』, 2017.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⑥』, 서울 : 천재교과서, 2016.

김태철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비상교육, 2016.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교학사, 2016.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천재교육, 2016.

민형식 외, 중학교 『국어⑥』, 서울 : 좋은책신사고, 2016.

박경신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금성출판사, 2016.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천재교육, 2016.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지학사, 2016.

우한용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좋은책신사고, 2016.

윤여탁 외, 중학교 『국어⑥』, 서울 : 미래엔, 2016.

이관규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비상교과서, 2016.

이도영 외, 중학교 『국어⑤』, 파주 : 창비, 2016.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동아출판, 2016.

장수익 외, 중학교 『국어⑥』, 서울 : 대교, 2016.

전경원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동아출판, 2016.

한철우 외, 중학교 『국어⑤』, 서울 : 비상교육, 2016.

김중신 외, 고등학교 『국어Ⅱ』, (주)교학사, 2016.

김종철 외,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 2016.

노 철 외, 고등학교 『국어Ⅱ』, 해냄에듀, 2016.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Ⅱ』, 창비, 2016.

박영목 외,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 2016.

신동훈 외, 고등학교 『국어Ⅱ』, 동아출판, 2016.

우한용 외, 고등학교 『국어Ⅱ』, 비상교육, 2016.

윤여탁 외, 고등학교 『국어Ⅱ』, 미래엔, 2016.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Ⅱ』, 지학사, 2016.

이승원 외, 고등학교 『국어Ⅱ』, 좋은책 신사고, 2016.

한철우 외, 고등학교 『국어Ⅱ』, 비상교육, 2016.

2. 단행본

장태완 외,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장치원, 『토론의 힘』, 느낌이 있는 책, 2013.

케리 솔 모슨 · 캐릴 에머슨,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5.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 현실사, 2012.

김병원, 『생각의 충돌』, 자유지성사, 2000.

김육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8.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손장권·김상희 옮김, 『페렐만의 신수사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박보영, 『글로벌 인재 대립토론으로 키운다』, 교육과학사, 2016.

_____, 『대립토론 결승전』, 행간, 2013.

_____, 『대립토론 = Debating : 생각의 속도와 논리의 차원이 다른 고도의 두뇌 게임』, 행간, 2013.

_____, 『토론은 게임이다』, 와이스쿨, 2017.

박우현, 『논리를 모르면 웃을 수도 없다』, 책세상, 2004.

- 신광재 외,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창비, 2012.
- _____ 외, 『즐거운 토론 수업을 위한 토론 교과서』, 창비, 2013.
- 스티븐 E. 톨민, 고헌범·임건태 옮김, 『논변의 사용』,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수사학/시학』, 숲, 2017.
- 알프레드 스나이더·맥스웰 슈누러, 민병곤·박재현·이선영 옮김, 『수업의 완성 교실토론』, 사회평론, 2014.
- 에모리대학 전국토론연구소, 허경호 옮김, 『정책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위르겐 하버마스,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16.
- 이두원, 『논쟁』,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_____, 『정책 토론의 정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이영근, 『따뜻한 교실토론』, 에듀니티, 2013.
- 이정옥,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2014.
- 이종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HUEBOOKS, 2015.
- 유동걸, 『토론의 전사1 디베이트의 길을 열다』, 해냄에듀, 2012.
- _____, 『토론의 전사2 디베이트의 방법을 찾다』, 해냄에듀, 2012.
- 윤치영, 『1% 리더만 아는 토론의 기술』, 미래지식, 2009.
- 정문성·황연성, 『수업이 바뀐다! 아이들이 주도하는 토의·토론 수업』,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2012.
-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12.
- 존 미나.케이트 셔스터, 허경호 옮김, 『모든 학문과 정치의 시작 토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James Crosswhite, 오형엽 옮김,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대학생을 위한 이공계 글쓰기』, 도서출판 집옥재, 2015.
- 칼 R. 포퍼, 이명현 옮김,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 -헤겔과 마르크스-』, 민음사, 1998.
- 케빈 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Debate』, 한겨레 에듀, 2011.
- Christian Plantin, 장인봉 옮김, 『논증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탁석산, 『토론은 기싸움이다』, 김영사, 2006.
- _____,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책세상, 2015.
- _____, 『핵심은 논증이다』, 김영사, 2008.
- 티모시 보셔스, 이회복 외 옮김,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트레버 새더 외, 김내은 외 옮김, 『PROS and CONS』, 굿인포메이션, 2008.
- Fisher, A., 최원배 옮김, 『피셔의 비판적 사고』, 서광사, 2010.

필립 브르통 · 질 고티에, 장혜영 옮김, 『논증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최형용 외, 『발표와 토론』, 박이정, 2011.

최훈, 『변호사 논증법』, 응진지식하우스, 2014.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철학과 현실사, 2014.

한국토론교육연구회, 『제1회 서귀포 교사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 2011.

한국토론교육연구회, 『2012 교사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 2012.

한국토론교육연구회·서귀포교사토론연구회, 『제3회 서귀포 교사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 2012.

한국토론교육연구회·서귀포교사토론연구회, 『2013 청소년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 2013.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4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14.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5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15.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5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15.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6 하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16.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7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17.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2018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18.

휴 머서 커틀러, 맹주만·김진형 옮김, 『윤리적 사고와 논리』, 철학과 현실사, 2009.

3. 학위 논문

강주영, 「찬반대립토론에 기초한 논술 능력 신장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권대호, 「토론 담화의 논증 구성과 쟁론 수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권정인, 「독서 토론을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권희경, 「토론에서 논증 도식에 따른 비판적 의문과 반박 제기 양상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6학년 소집단 토론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명민, 「독서토론 유형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성수, 「중학교 주제통합수업 운영에 대한 실행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기중, 「초등학교 토론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종우, 「논증 도식 지도가 토론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지현, 「토론 단원 교수·학습의 비판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혜진,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노대원,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민병곤,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혜리, 「논증 구조를 활용한 설득적 텍스트의 교육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배정일, 「과학 찬반대립토론 수업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주장과 논증 유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백운대, 「모의재판을 활용한 법교육이 학생들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한 여자 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서영진, 「상호교섭적 논증 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손효정, 「과학교과에서 토론의 효과 연구 및 과학토론을 위한 수업 제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신지수,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 연극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양윤경,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법 연구 - 구성주의에 따른 토론·창작 학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양현정, 「논증과 신수사학 - 아리스토텔레스/카임 페렐만의 문답술과 법률적 모순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엄장희, 「토의·토론을 활용한 과학 실험 수업이 과학 학습동기,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엄훈, 「조선 전기 공론 논변의 국어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위자명, 「초등 수학 영재학급 학생들을 위한 수학 독서 토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유봉현, 「과정 중심의 논증문 쓰기 지도 방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육희석,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연극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윤영칠, 「주제 중심 통합학습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경진, 「입론 모형을 활용한 중학교 토론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이대성, 「법리적 접근에 기초한 TV 쟁점 토론의 논증 구조 분석 : 기본권 충돌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 박사학위 논문, 2005.
- 이민형, 「가치논제 토론수업을 위한 설계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샘, 「논증텍스트의 가치 기반 분석과 논증 구조에 따른 논증적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논증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선미, 「토론 강화 탐구실험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과학 탐구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선영, 「토론의 논증 구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_____, 「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 - 초·중·고 토론대회 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순훈,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토론 제재 연구 - 논제와 입론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5.
- 이주섭, 『범교과적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_____,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 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이주희, 「통합적 기능 접근법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과업중심교수법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장영우, 「초등학생의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한 논증 전략 교수-학습 모형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전제용, 「읽기 성취 수준에 따른 읽기 동기 유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_____, 「해석을 통한 필자의 상승적 의미 구성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정혜선, 「논증 텍스트의 ‘표지’ 분석 및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조선덕, 「총체적 언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토론 수업 설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조영규, 「수학 수업에서의 토론의 장점과 실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효정, 「논증 구조 익히기를 통한 주장하는 글쓰기 지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최복자,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한제준, 「계절 변화 수업의 논증 과정 및 논증적 담화 전략 분석」,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한현숙, 「토론능력 발달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 학술지

-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vol.7 No.6, 2013, 69-100.
- 곽한영, 「교육연구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방안 연구」, 법교육연구, vol.8 No.2, 2013, 1-22.
- 권숙도, 「‘국민대토론회’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vol.42 No.3, 2016, 355-377.
- 김주현, 「유비논증과 맥락의 화용론」, 수사학, vol.19 No.-, 2013, 5-34.
- 김주환, 「배심원 토론 수업의 교육적 효과」, 교육연구, vol.50 No.-, 2011, 73-101.
- 김지현·전은주, 「고등학교 토론 단원 교수·학습의 비판적 분석」, 교사교육연구, vol.51 No.2, 2012, 245-258.
- 김진형, 「토론에서 논증의 사용에 대해 -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 범한철학, vol.71 No.-, 2013, 301-416.
- 김창원, 「국어과 교육과정의 생태학(2): 2011년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쟁점과 그 해소」, 국어교육학연구, vol.43 No.-, 2012, 156-190.
- 김혜진·송현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토론 논제 분석」, 한국언어문학, vol.101 No.-, 2017, 151-174.
- 노명완, 「미래사회의 요구와 국어 교육」, 새국어교육, vol.104 No.-, 2015, 93-132.
- 노은희·이선영, 「프랑스 논증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논증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5 No.1, 2012, 103-126.
- 민병곤, 「신문 사설의 논증 구조 분석」, 국어국문학, vol.- No.127, 2000, 133-154.
- _____,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vol.12 No.1, 2001, 237-285.
- _____,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학 연구, vol.18 No.-, 2004, 184-222.
- 박삼열, 「토론과 수사적 설득」, 철학탐구, vol.37 No.-, 2015, 237-260.
- 박재현,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토론 유형 선택의 변수」, 화법연구, vol.19 No.-, 2011, 47-79.
- _____,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에 제시된 정책 논제의 적합성 연구」, 새국어교육, vol.96 No.-, 2013, 139-165.
- 박준호, 「비형식논리학의 논증과 논증 평가 개념」, 범한철학, vol.34 No.-, 2004, 151-175.
- _____, 「논증의 종류와 평가의 기준 - 비판적 사고와 형식 논리학의 의의」, 범한철학 vol.42 No.-, 2006, 273-296.
- 배식한, 「논증과 논증 행위 - 비판적 사고 교육의 관점에서 -」, 철학사상, vol.42 No.-, 2011, 151-183.

- 백춘현, 「도덕과 토론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열린교육연구, vol.12 No.1, 2004, 297-332.
- 서영진, 「논증적 상호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 - 국어 교과서의 ‘논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vol.41 No.-, 2011, 473-504.
- _____, 「TV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논증 도식 유형화」, 국어교육학연구, vol.43 No.-, 2012, 285-321.
- _____, 「토론 교육 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 연구」, 국어교육, vol.147 No.-, 2014, 305-346.
- _____, 「국어 교사의 토론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vol.50 No.3, 2015, 70-119.
- _____,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국어 능력과 핵심 역량의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vol.50 No.1, 2015, 272-305.
- 서정혁, 「“찬반 대립형 독서토론” 모형 연구 -교보, 숙명 전국독서토론대회 모형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vol.21 No.-, 2009, 257-284.
- 설규주·정문성·구정화, 「사회과 토의·토론 수업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 중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vol.19 No.3, 2011, 115-148.
- 송현정, 『국어 수업 참여에 대한 학습자 인식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2012. 111-138.
- _____, 『대학생 글쓰기 기초를 위한 문법 진단 평가 분석 연구』, 국어교육연구, 2015. 31-57.
- 엄훈, 「고전 논변의 교육적 재발견」, 국어교육학연구, vol.46 No.-, 2013, 451-477.
- 오연주, 「중등 사회과 교사가 인식하는 토론수업 개념과 실천 전략의 딜레마」, 사회과교육연구, vol.15 No.4, 2008, 45-79.
- 오준영·김유신, 「Toulmin의 논증의 옹호와 교육적 적용에 대한 탐색」, 범한철학, vol.55 No.-, 2009, 379-425.
- 이경희, 「생명윤리 수업을 위한 ‘CEDA 아카데미 토론’ -수업설계 및 실천적 수업모형을 위한 시론」, 윤리교육연구, vol.19 No.-, 2009, 67-89.
- 이경희, 「도덕과 수업에서 비판적·성찰적 글쓰기 - 프로젝트 학습과 교육토론을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vol.40 No.-, 2016, 283-299.
- 이광모, 「논증과 합리성 - 하버마스의 논증 이론에 대한 고찰」, 헤겔연구, vol.29 No.-, 2011, 227-248.
- 이두원, 「토론자의 디베이트 능력과 수행평가 모델 연구 : 아카데미식 정책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16 No.3, 2008, 83-103.
- 이병기·정종삼, 「도덕적 역량 신장을 위한 토론 수업 모형 연구 - 『생활과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학술대회, vol.2017 No.5, 2017, 191-216.
- 이보라, 「논제구축형 독서토론 수업 모형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vol.48 No.3,

- 2014, 459-490.
- 이상철,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운영 방안」,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5, 2015, 69-88.
- 이선영, 「토론 교육을 위한 논제 선정에 대한 소고(小考) - 국내, 외 토론대회 논제 분석을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vol.41 No.-, 2010, 241-267.
- _____, 「교실토론을 위한 토론 형식의 이해와 수업 적용 방안 연구」, 국어 교육연구, vol.52 No.-, 2013, 199-230.
- 이인화,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vol.94 No.-, 2013, 249-280.
- 이재승, 「총체적 언어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청람어문교육, vol.30 No.-, 2005, 125-147.
- 이지혜, 「학생자치법정 토의·토론 수업 과정에서의 사회과 핵심역량」, vol.5 No.1, 2017, 35-53.
- 이창덕, 「국어과 토론 교육의 의의와 발전 방향」, 국어교육연구, vol.52 No.-, 2013, 1-28.
- 이황직, 「개방형 논제 제시 독서 토론 모형 연구 -교보·숙명 독서토론 방식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vol.17 No.-, 2007, 311-332.
- 임철성·최복자, 「토론 수업 설계 모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21 No.-, 2004, 391-431.
-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vol.12 No.2, 2003, 1-35.
- 전제웅, 「교육대학 토론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좋은 강의 실천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2권,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1, 301-316.
- 정구향, 「차기 국어과 교육과정의 발전적 방향 :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 선택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청람어문교육, vol.41 No.-, 2010, 83-108.
- 정문성, 「토의·토론 수업의 개념과 수업에의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vol.12 No.1, 2004, 147-168.
- 정재찬·이성영·서혁·박수자, 「국어과 토의, 토론 학습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1)」, 선청어문, vol.26 No.1, 1998, 359-414.
- 조종화,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 -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본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 헤겔연구 31, 한국헤겔학회, 2012, 99-123.
- 최선영·차봉준, 「김유정의 문학 작품과 독서 토론의 의의」, 교양교육연구, vol.10 No.1, 2016, 485-506.
- 하병학, 「논증과 권위」, 철학탐구, vol.18 No.-, 2005, 317-339.
- 한철우·임택균,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 능력과 국어 교육」, 청람어문교육, vol.42 No.-, 2010, 363-395.
- 한승욱, 「토론식 수업이 학부모·교사·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vol.9 No.3, 2011, 16-33.

현남숙, 「인문학 글쓰기에서 틀린 논증의 활용」, 사고와 표현, vol.3 No.2, 2010, 63-97.

5. 의서

Alfred C. Sinder, *The Code of the Debater - introduction to policy debating*, Central European Univ Pr, 2008.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by George A. Kenn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Austin J. Freeley., *Argumentation and Debate - Reasoned Decision Making*, Belmont: Wadsworth, 1981.

_____. David L, Steinberg, *Argumentation and Debate*, Wadsworth.com, 2000.

旺文社, 『LONGMAN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英英辭典』, 1983.

Brockriede, W. & Ehninger, D., *Toulmin on argument :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46, 1960, pp. 44-53.

Eemem. F. H. et al.,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6.

Freeley, A. J. & Steinberg, D. L., *Argumentation and debate*, 13th ed., MA Cengage Learning, 2013.

Hill,B.& Leeman,R., *The Art and Practice of Argumentation and Debate*, MountainView,CA:MayfieldPublishingCompany, 1997.

James Milton O'Neill and Rupert L. Cortright., *Debate and oral discussion : for schools societies and clubs*, New York : Appleton-Century, 1931.

N. Chomsky., *Aspects of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MIT Press,1965.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9.

Popper, Karl Rainmund,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ClarendonPr.,Oxford, 1972.

Stephen E. Toulmin.,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S. M. Drake., *Planning Integrated Curriculum: The Call to Adventure*,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3.

Voloshinov, Baskhin, *Discourse in Life and Discourse in Poetry*, in *Freudianism : A Critical Sketch*, ed, and trans, I. R. Titunik,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Williams, Joseph. M. and Colomb, Gregory. G., *The Craft of Argument*, Pearson Education, Inc, 2007.

Ziegelmueller, G. & Kay, J., *Argumentation: Inquiry and Advocacy*, Boston : Allyn and Bacon, 1997.

6. 온라인 사이트

<http://www.apa.or>(2018. 6. 7.)

<http://idebate.org>(2017. 5. 10.)

<http://www.nowmesa.org>(2018. 1. 23.)

<http://www.speechanddebate.org>(2017. 8. 12.)

<http://stdweb2.korean.go.kr>(2017. 11. 27.)

<http://www.wacfl.org>(2017. 8. 10.)

7. 보도 자료

교육부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2015. 9. 23.)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Debat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ed on the proposition and the argumentation –

Kim Hye-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This research is aimed to seek and systematize the teaching methods for debate through the critical review on the debat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through the review of the theory and reality of proposition and argumentation, the methods with which proposition and argumentation can be used in debate education were sought.

For this research, through the comparison and review of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one which are applied to the discussion unit of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achievement criteria of debate education was examined, and by analyzing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cusing on the proposition and argumentation, the problems in the debate unit of textbooks were drawn.

First,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propositions which were presented in a textbook are the ones which are suitable to debate or not, 'a single point, pros and cons confrontation, timeliness, position of the affirmative side, and affirmative statement' among the conditions of the propositions suggested by researchers were selected as those of the proposi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positions of textbooks based on that, the problems were found out, the propositions were revised into ones which are proper to the debate and suggested, applying the conditions of the propositions.

In addition, after extracting the argumentation evaluation elements of the debate unit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how textbook argumentation is done was considered based on tha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rgumentation of pros and cons of the debate unit, it was grasped that most of textbook argumentation is a simple 2 step argumentation. Therefore, to make the argumentation structure which is proper to debate, it was suggested that it would be changed into 5 step argumentation structure by subdividing the 2 step structure. Of the elements which are necessary to argumentation structure, 'claim, reason, and basis' we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and 'premise · connecting link', and 'acceptance of rebuttal and refutation' were done as additional ones.

The teaching methods for classroom debate were sought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bat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do that, curriculum and textbooks were analyze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classroom debate was suggested, and then the classroom debate class model and teaching · learning method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lassroom debate were provided. In addition, debate types, such as a roundtable debate model, a public forum debate model, a debate basic model, and a CEDA model, which can be properly used according to class situation. were suggested.

This research was aimed to contain the theory and practice on the whole

of debate education so that it would be helpful to teachers who are willing to teach debate in a classroom class. Especially, it is considered that examining the whole of debate education by analyzing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ngitudinally will be helpful to teachers who intend to use and teach debate.

▮ Key Words : Debate, Classroom Debate, Proposition, Argument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Textbook